발 간 등 록 번 호
74-6440065-000013-14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http://council.chungnam.go.kr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2014. 7. 1 ~ 2016. 6. 30)









충남도청행정자료실
AM020146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http://council.chungnam.go.kr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등록번호
AM20146
등록일 16년 11월 23일
충청남도 행정자료실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동북아 지역간 문화·관광 교류를 통


Tuv
Jilin
Yanbian
동해
The 7
Asia Lo



▲ 대천 소방서 안전점검 (2014. 7. 31.)



▲ 119 종합상황실 방문 (2014. 8. 7.)



▲ 2014을지훈련 위문 방문 (2014. 8.18.)



▲ 인천AG경기 성화봉송안치 (2014. 8. 22.)



▲ 사랑의김장김치담그기 (2014. 11. 10)



▲ 구제역방역초소방문 (2015. 1. 9.)



▲ 충청남도 메르스관리본부 (2015. 6. 9.)



▲ 당진항 분쟁 규탄 기자회견 (2015. 4. 21.)



▲ 충남도립대 자치행정과 학생들 방문 (2015. 7. 9.)



▲ 충남도의회-교육청 자유학기제 업무협약 (2015. 8. 24.)



▲ 뉴저지주의회와 교류협약 (2015. 9. 14.)



▲ 백제문화제 (2015. 9. 26.)



▲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2015. 12. 29.)



▲ 가뭄피해현장방문 (2015. 10. 21.)



▲ 충남 수출유공자 시상식 (2015. 12. 10.)



▲ 충남 닥터헬기 출범식 (2016. 1. 27.)



▲ 새해첫날참배 (2016. 1. 1.)



▲ 충남 신년교례회 (2016. 1. 6.)



▲ 동북아의장포럼 개막식 (2016. 4. 19.)



▲ 이르쿠츠크주 의회 방문 (2016. 3. 1.)



▲ 천민얼 구이저우성 당서기 오찬 (2016. 4. 23.)



▲ 부처님오신날 (2016. 4. 25.)



▲ 학교폭력추방캠페인 (2016. 6. 28.)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목차

Ⅰ. 원내외 의정활동

1. 개회사

- 제271회 임시회 / 2014.7.2. ····· 3
- 제272회 임시회 / 2014.7.15. ····· 7
- 제273회 임시회 / 2014.8.25. ····· 10
- 제274회 정례회 / 2014.9.25. ····· 13
- 제275회 정례회 / 2014.11.5. ····· 15
- 제276회 임시회 / 2015.1.27. ····· 17
- 제277회 임시회 / 2015.3.17. ····· 20
- 제278회 임시회 / 2015.4.30. ····· 23
- 제279회 정례회 / 2015.6.15. ····· 26
- 제280회 임시회 / 2015.7.9. ····· 29
- 제281회 임시회 / 2015.9.1. ····· 33
- 제282회 임시회 / 2015.10.1. ····· 37
- 제283회 정례회 / 2015.11.5. ····· 41
- 제284회 임시회 / 2016.1.25. ····· 45
- 제285회 임시회 / 2016.3.15. ····· 48
- 제286회 임시회 / 2016.5.10. ····· 51
- 제287회 정례회 / 2016.6.1. ····· 54
- 제288회 임시회 / 2016.6.30. ····· 58

2. 그 외 활동

- 제10대 전반기의장 당선인사 / 2014.7.2. ····· 63
-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축하연 / 2014.7.2. ····· 65
-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 2014.7.15. ····· 67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목차

- 정부예산 확보 설명회 / 2014.8.13. ····· 69
- 충청남도의회 의정연찬회 / 2014.9.15. ····· 71
- 국회예결위 예산안심사를 위한 국민 의견청취 / 2014.9.24. ····· 73
- 충청남도 및 시·군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 2014.10.30. ····· 74
- 충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발전방안 세미나 / 2014.10.30. ····· 76
- 갑오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세미나 / 2014.11.10. ····· 77
- 충남권역 외상센터 개소식 / 2014.11.13. ····· 78
- 충청남도 사회공헌정보센터 출범식 / 2014.11.19. ····· 79
- 충청남도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 2014.11.21. ····· 80
- 2014년 알찬 마무리를 위한 의장님 초청 송년오찬 / 2014.12.15. ····· 82
- 3농혁신 2030 비전선포 및 실천다짐대회 / 2015.2.10. ····· 84
- 주민행복과 지역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비전 / 2015.2.5. ····· 86
- 2015년도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 2015.2.25. ····· 88
- 지린성 정치협상회 주석 방문 / 2015.3.18. ····· 89
-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충청권 토론회 / 2015.4.17. ····· 90
- 도·시군의회 의장 간담회 / 2015.4.27. ····· 92
-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입법청원 전달식 / 2015.5.13. ····· 93
- 충남연구원 20주년 기념 및 학술행사 / 2015.6.12. ····· 94
-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 / 2015.5.26. ····· 96
- 충청남도의회 힐링연수 / 2015.5.26. ····· 98
- 제10대 충청남도의회 1주년 기념 기자회견 / 2015.6.30. ····· 99
-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 2015.7.2. ····· 101
- 지방자치법 개정안 책자발간 / 2015.7.20. ····· 102
- 충남영상위원회 출범식 / 2015.7.27. ····· 104
- 충청남도 예산혁신 대토론회 / 2015.7.29. ····· 105
- 의정아카데미 자유학기제 운영협약 체결 / 2015.8.24. ····· 106
- 뉴저지주 의회간 우호교류 방문 / 2015.9.14. ····· 107



- 정부3.0 충남지역 성과보고회 / 2015.9.11. ····· 108
-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이전 결의행사 / 2015.9.22. ····· 109
- 인권증진 업무협약식 / 2015.10.7. ····· 110
- 도민 인권선언 선포 1주년 기념식 / 2015.10.13. ····· 111
- 2015년 환황해포럼 / 2015.11.20. ····· 112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강원 · 충청권 토론회 / 2015.11.20. ····· 114
- 2015년 의정대토론회 / 2015.11.20. ····· 115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2015.12.1. ····· 116
- 충남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 / 2015.12.7. ····· 117
- 해양 수산비전 보고회 / 2015.12.15. ····· 118
-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 / 2015.12.28. ····· 119
- 충남 경제비전 2030 발표 및 토론회 / 2015.12.30. ····· 120
- 충남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 2015.12.30. ····· 121
- 충남 시 · 군의회 의장단 간담회 / 2016.1.14. ····· 122
- 제2회 한국인권회의 / 2016.3.24. ····· 123
-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회사 / 2016.4.19. ····· 124
-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환영 리셉션 / 2016.4.19. ····· 126
- 충남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식 / 2016.6.10. ····· 128
- 제10대 전반기 충청남도의회 결산 기자회견 / 2016.6.13. ····· 129

Ⅱ. 도민과 함께

▣ 2014년도

- 생활개선회장단 수련대회 / 2014.7.10. ····· 135
-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 2014.7.28. ····· 137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목차

-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 2014.8.7. ····· 139
- 충남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대항전 / 2014.8.8. ····· 140
- 사랑의 집짓기 20호점 준공식 / 2014.8.11. ····· 142
- 충남농민 전진대회 / 2014.8.21. ····· 143
-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회장 취임식 / 2014.8.22. ····· 145
- 충남 새농민 전진대회 / 2014.8.27. ····· 147
- 충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 2014.8.29. ····· 149
-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 2014.9.2. ····· 150
- 충남 시각장애인 생활체육대회 / 2014.9.4. ····· 151
- 충청남도 장애인 풋살대회 / 2014.9.4. ····· 152
- 추석맞이 영상메시지 / 2014.9.5. ····· 153
- 예산옛이야기축제 개막식 / 2014.9.18. ····· 154
-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 2014.9.19. ····· 155
-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 2014.9.19. ····· 157
- 충남 수석인연합회 수석대전 / 2014.9.19. ····· 159
- 민족통일 충남도대회 및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 / 2014.9.19. ····· 160
- 충남 관광의 날 기념행사 / 2014.9.19. ····· 162
- 전국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 2014.9.21. ····· 164
- 충남 서각예술 대제전 / 2014.9.21. ····· 165
- 재한 베트남인 위문공연 축하영상메시지/ 2014.9.23. ····· 166
- 충남여성농업인 농산물 홍보한마당 / 2014.9.23. ····· 167
-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2014.9.23. ····· 168
- 시설생활 어르신 및 근무자 한마음대회 / 2014.9.23. ····· 170
- 계룡 軍문화축제 축하영상메시지 / 2014.9.23. ····· 172
- 백제문화제 축하영상메시지 / 2014.9.23. ····· 173
-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 2014.9.25. ····· 174



-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 / 2014.9.27. ····· 176
- 충남장애학생 체육대회 / 2014.9.27. ····· 178
- 충남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 2014.9.27. ····· 180
- 청소년 애국정신문화 영어말하기대회 / 2014.9.27. ····· 182
-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 2014.9.30. ····· 183
- 평생학습 온통박람회 / 2014.10.3. ····· 184
- 충남지구 JC특우회 우정의 날 / 2014.10.3. ····· 185
- 충청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 2014.10.8. ····· 186
-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 대회 / 2014.10.8. ····· 187
-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 / 2014.10.10. ····· 188
- 아줌마 대축제 / 2014.10.10. ····· 190
- 충청남도 사진대전 / 2014.10.10. ····· 192
- 국가유공자 합동이장 영현봉송식 / 2014.10.10. ····· 193
- 충남도지사기 농악대회 / 2014.10.11. ····· 194
-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 / 2014.10.12. ····· 195
- 충남 도민인권선언 선포식 / 2014.10.13. ····· 196
-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 출범식 / 2014.10.13. ····· 197
-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남대전지회 전시회 / 2014.10.13. ····· 199
- 수산업 경영인 충청남도대회 / 2014.10.16. ····· 200
- 충남예술제 / 2014.10.17. ····· 202
- 내포 영산대제 / 2014.10.18. ····· 204
- 재가어르신 실버축제 한마당 / 2014.10.20. ····· 205
- 충남 문화융성비전 선포식 / 2014.10.22. ····· 206
-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결단식 / 2014.10.23. ····· 207
- 충남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축제 / 2014.10.23. ····· 208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결단식 / 2014.10.27. ····· 209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목차

- 청소년 의회교실 / 2014.10.30. ····· 210
- 전국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 2014.10.30. ····· 211
- 충청남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 2014.10.31. ····· 213
- 도덕성 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연수 / 2014.11.3. ····· 215
- 충남농업인학습단체 활동성과 보고회 / 2014.11.4. ····· 216
- 임업인 한마당행사 / 2014.11.5. ····· 218
- 충청남도 카운슬링 페스티벌 / 2014.11.5. ····· 219
-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전진대회 / 2014.11.6. ····· 221
-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 / 2014.11.6. ····· 222
- 소방의 날 기념식 / 2014.11.7. ····· 224
- 삽교 섶다리 곱창축제 / 2014.11.8. ····· 226
- 충남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 2014.11.8. ····· 227
- 애플컵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 2014.11.8. ····· 228
- 대한적십자사 창립 109주년 연차대회 / 2014.11.13. ····· 229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소식 / 2014.11.19. ····· 230
- 희망2015 나눔캠페인 출범식 / 2014.11.20. ····· 231
- 대전·세종·충남지역신문협회 풀뿌리 자치대상 / 2014.11.25. ····· 232
- 경우의 날 기념식 / 2014.11.25. ····· 234
- 민주평통 충남지역 여성한마당 행사 / 2014.11.29. ····· 235
-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 / 2014.12.4. ····· 236
- 충청남도 자원봉사자대회 / 2014.12.9. ····· 237
- 충청남도 벤처인대회 / 2014.12.9. ····· 238
- 충남문인화협회 특별기획전 / 2014.12.27. ····· 239
-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 2014.12.30. ····· 240
- 2014년 송년사 / ····· 241



▣ 2015년도

- 신년사 / ····· 245
- 대전일보사 주최 신년교례회 / 2015.1.2. ····· 247
- 충청남도 여성계 신년교례회 / 2015.1.7. ····· 249
-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식 / 2015.1.7. ····· 250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 충청투데이 주관 신년교례회 / 2015.1.8. ····· 251
- 희망 201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 / 2015.2.2. ····· 253
-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정기총회 / 2015.2.9. ····· 254
- 2015학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입학식 / 2015.2.26. ····· 255
- 청양소방서 개서식 / 2015.3.3. ····· 257
- (사)한국농업경영인 충남연합회 제14 · 15대 임원 이 · 취임식 / 2015.3.4. ··· 258
- 제1회 충남 풀뿌리 여성대회 / 2015.3.9. ····· 260
- 충우회 주관 만찬의 밤 / 2015.3.10. ····· 261
- 충남 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 2015.3.17. ····· 262
- 충청남도 축구연합회 제7대 회장 취임식 / 2015.3.19. ····· 263
- 한국여성농업인 충남연합회 제10대 회장 취임식 / 2015.3.23. ····· 264
- 충청남도 새마을회 제18대 회장 취임식 / 2015.3.23. ····· 266
-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기공식 / 2015.3.25. ····· 268
- 대한건축사협회 충남회관 개관식 / 2015.3.26. ····· 270
-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개소식 / 2015.3.27. ····· 271
- 제35회 장애인의 날 어울림축제 / 2015.4.17. ····· 272
- 충청남도 119 소방정 취항식 / 2015.4.8. ····· 274
- 제33회 충청남도 연극제 / 2015.4.20. ····· 275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찬회 / 2015.4.13. ····· 276
-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 기공식 / 2015.4.16. ····· 277
- 내포신도시 유채청보리 축제 / 2015.4.23. ····· 279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목차

- 제20회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 2015.4.29. ····· 280
- 교황 방문기념비 축성미사 / 2015.4.26. ····· 282
- 행복한 주말농장 개장 / 2015.4.30. 내포신도시 주말농장〉 ····· 283
- 문광부장관기 전국체고 체육대회 개회식 / 2015.4.30. ····· 284
- 제22회 충청남도 서예대전 / 2015.5.23. ····· 285
- 제1회 광시 한우사랑 축제 / 2015.5.2. ····· 287
- 제17회 고엽제전우회 충남지부 창립기념식 / 2015.5.7. ····· 288
- 어버이의 날 기념행사 / 2015.5.8. ····· 289
-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 2015.5.9. ····· 290
-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 2015.5.13. ····· 291
- 공직자 가족 화합한마당 / 2015.5.16. ····· 292
- 부처님 오신 날 / 2015.5.25. ····· 293
- 제8회 충남예술제 / 2015.5.29. ····· 294
- 내포문화숲길 걷기대회 / 2015.5.30. ····· 296
- 재인천 충남도민 체육대회 / 2015.5.30. ····· 297
- 희망 서해안 한마당 축제 / 2015.5.30. ····· 298
- 예덕상무사 공문제 및 보부상 재현놀이 / 2015.5.31. ····· 299
- 제10회 충청남도 국악제 / 2015.7.12. ····· 300
- 대한민국 서화 문화대전 및 충남서예가협회전 / 2015.6.17. ····· 302
- 제12회 은빛 페스티벌 / 2015.7.22. ····· 304
-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 2015.7.30. ····· 306
- 내포유치원 개원식 / 2015.8.13. ····· 307
-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1주년 전국사진공모전 / 2015.8.15. ····· 308
- 제14회 충남농업경영인대회 / 2015.8.20. ····· 310
- 충남세종지구 JC회원대회 및 취업박람회 / 2015.8.22. ····· 312
- 충남농민 전진대회 / 2015.8.24. ····· 313



-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진대회 / 2015.8.28. ····· 315
- 전국청소년 댄스페스티벌 / 2015.8.29. ····· 317
-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 2015.8.31. ····· 318
-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충남지회전 / 2015.9.1. ····· 319
- 제5회 연안발전포럼 / 2015.9.3. ····· 321
-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 / 2015.9.4. ····· 322
- 청소년 애국정신문화 영어말하기 대회 / 2015.9.5. ····· 323
-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학사 개원식 / 2015.9.7. ····· 324
- 충청남도 사회복지의 날 / 2015.9.9. ····· 325
- 한국쌀전업농 충남도대회 / 2015.9.11. ····· 326
- 충청남도 축산인 한마음대회 / 2015.9.11. ····· 327
- 충남 서각예술 대제전 / 2015.9.12. ····· 328
- 충남 서예전람회 / 2015.9.12. ····· 330
-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 체육대회 / 2015.9.14. ····· 331
-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범도민대책위 발족식 / 2015.9.14. ····· 332
-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 2015.9.15. ····· 333
- 충남정신장애가족 한마당큰잔치 / 2015.9.18. ····· 335
- 2015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 2015.9.19. ····· 336
- 충남도지사기 농악대회 / 2015.9.19. ····· 337
- 무량사 점안식 및 힐링 산사음악회 / 2015.9.19. ····· 338
- 2015년 추석맞이 영상메시지 / 2015.9.21. ····· 339
- 충청남도 사진대전 시상식 / 2015.9.22. ····· 340
- 충남 청소년 활동의 창 / 2015.9.30. ····· 341
-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 2015.9.30. ····· 342
- 내포 수소충전소 준공식 / 2015.10.1. ····· 343
- 제24회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 2015.10.2. ····· 344

목차

- 충남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 2015.10.3. ····· 345
- 월남 참전 51주년 호국안보결의대회 / 2015.10.5. ····· 346
- 예당마당극 페스티벌 / 2015.10.6. ····· 347
-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남지회 작품전 / 2015.10.6. ····· 348
- 어울림 가족 축제 / 2015.10.9. ····· 350
- 내포신도시 꽃과 드론 축제 / 2015.10.9. ····· 351
- 어르신 대축제 / 2015.10.22. ····· 352
- 충남 사랑의 끈 연결운동 / 2015.10.23. ····· 353
- 충남 카운슬링 페스티벌 / 2015.10.23. ····· 354
- 내포 영산대제 / 2015.10.24. ····· 355
-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마당 / 2015.10.28. ····· 356
- 충남 공익단체 통합한마당 / 2015.11.6. ····· 357
- 충남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 2015.11.6. ····· 358
- 매헌 윤봉길의사 국제 심포지엄 / 2015.11.6. ····· 359
- 대한민국 생활음악 경연대회 / 2015.11.6. ····· 360
- 제5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 2015.11.9. ····· 361
-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 2015.11.11. ····· 362
- 창립110주년 기념 대한적십자사 연차대회 / 2015.11.12. ····· 363
-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전진대회 / 2015.11.13. ····· 364
- 충청남도 척수장애인의 날 / 2015.11.13. ····· 365
- 충남 축구클럽리그 최강전 / 2015.11.14. ····· 366
- 민족통일 충남대회 및 문예제전 / 2015.11.16. ····· 367
- 경찰청 통합직원관사 준공식 / 2015.11.20. ····· 368
- 한국난엽예 명품대전 / 2015.11.21. ····· 369
- 풀뿌리 자치대상 시상식 / 2015.11.24. ····· 370
-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 2015.11.25. ····· 371



- 문화가 있는 날 체험전시회 / 2015.11.25. ····· 372
- 공주의 이야기 미술작품 전시회 / 2015.12.1. ····· 373
- 전국장애인체육가족 한마음대회 / 2015.12.2. ····· 374
- 새마을운동 촉진대회 / 2015.12.8. ····· 375
- 충남벤처인대회 / 2015.12.8. ····· 376
- 충남 자원봉사자 대회 / 2015.12.9. ····· 377
- 한국양봉협회 충남도지회 정기총회 / 2015.12.9. ····· 378
- 무역의 날 기념식 / 2015.12.10. ····· 379
- 제1회 아산 전국국악경연대회 / 2015.12.19. ····· 380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소식 / 2015.12.24. ····· 381
- 2015년 송년사 / 2015.12.30. ····· 382

▣ 2016년도

- 신년사 / 2016.1.1. ····· 385
- 충남 여성계 신년교례회 / 2016.1.5. ····· 386
- 대전일보사 신년교례회 / 2016.1.6. ····· 387
- 전국건설기계 충남연합회장 이취임식 / 2016.1.6. ····· 388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신년교례회 / 2016.1.7. ····· 389
- 충남 충효인성교육원 개원식 / 2016.1.26. ····· 390
-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식 / 2016.1.27. ····· 391
- 충남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 / 2016.2.3. ····· 392
- ㈜유아이 헬리콥터 최종호기 출고식 / 2016.2.16. ····· 394
- 홍성고등학교 내포신도시 이전 개교식 / 2016.2.23. ····· 395
- (사)한국양곡가공협회 정기총회 / 2016.3.8. ····· 396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개관식 / 2016.3.14. ····· 397
- 2016 한국 난대전 / 2016.3.19. ····· 398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목차

-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 개소식 / 2016.3.22. ····· 399
- 故 윤규상 선생 추모비 제막식 / 2016.3.23. ····· 400
- 예덕상무사 공문제 및 보부상 재현놀이 축제 / 2016.3.31. ····· 401
- 제18회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 기념식 / 2016.4.3. ····· 402
- 제34회 충남연극제 / 2016.4.5. ····· 403
-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식 / 2016.4.6. ····· 404
-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희망충남 어울림축제 / 2016.4.19. ····· 405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 / 2016.4.21. ····· 406
- 충남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 2016.4.21. ····· 407
- 내포신도시 주민화합의 장 홍예공원 유채꽃 축제 / 2016.4.21. ····· 408
- 구이저우의 날 선포식 / 2016.4.22. ····· 409
-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점등 법회 / 2016.4.25. ····· 410
- 한국권투연맹 프로복싱대회 / 2016.4.29. ····· 411
- 제43회 매헌 윤봉길 평화축제 / 2016.4.29. ····· 412
- 충남 관광객 2천만 도약 환대서비스 다짐 결의대회 / 2016.5.3. ····· 413
- 2016년 내포 연산홍 축제 / 2016.5.4. ····· 414
- 제3회 내포연등문화축제 봉축법요식 / 2016.5.6. ····· 415
- 2016년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 2016.5.13. ····· 416
- 불기256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법회 / 2016.5.14. ····· 417
- 제15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 2016.5.20. ····· 418
- 제10회 시설생활어르신 및 근무자 한마음대회 / 2016.5.25. ····· 419
- 제14회 충남 자활한마당 대회 / 2016.5.27. ····· 420
-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 / 2016.5.27. ····· 421
- 제17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 2016.5.31. ····· 422
- 제22회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 2016.6.3. ····· 423
- 제2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 2016.6.4. 천안 ····· 425



- 제68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 2016.6.9. ····· 426
- 2016년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 2016.6.16. ····· 427
- 제10회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 / 2016.6.19. ····· 428
- 2016년 충남평화통일포럼 / 2016.6.22. ····· 429

Ⅲ. 언론사 등 창간 · 발간 축사

- 천안저널 창간 3주년 / 2014.7.5. ····· 433
- 내포타임즈 창간 2주년 / 2014.8.5. ····· 434
- 충청남도의정회보 제2호 발간 / 2014.8.5. ····· 435
- 제9대 충청남도의회 의정백서 발간 / 2014.8.10. ····· 436
- 예산신문 창간 25주년 / 2014.8.27. ····· 437
- 충청남도 지적사 발간 / 2014.8.30. ····· 438
- 중도일보 창간 63주년 / 2014.9.1. ····· 440
- 충남장애인신문 창간 12주년 / 2014.10.20. ····· 441
- 백제신문 창간 15주년 / 2014.11.11. ····· 442
- 홍성신문 창간 26주년 / 2014.12.1. ····· 443
- 충남교육소식 제100호 특집호 발간 / 2014.12.10. ····· 444
- 중부매일 창간 25주년 / 2015.1.20. ····· 445
- 대전일보 2만호 발간 / 2015.2.12. ····· 446
- 충남시민재단 소식지 창간 / 2015.3.13. ····· 447
- 충남일보 창간 23주년 / 2015.3.13. ····· 448
- 월간 내포저널 창간 / 2015.5.15. ····· 449
- 충청신문 창간 10주년 / 2015.4.25. ····· 450

• 태안신문 창간 25주년 / 2015.5.14. ····· 451
• 대전투데이 창간 9주년 / 2015.5.17. ····· 452
• 뉴스피플아이 창간 5주년 / 2015.5.28. ····· 453
• 월간 시사저널 청풍 창간 25주년 / 2015.7.1. ····· 454
• 천안신문 창간 4주년 / 2015.7.1. ····· 455
• 내포타임즈 창간 3주년 / 2015.8.19. ····· 456
• 예산신문 창간 26주년 / 2015.8.26. ····· 457
• 중도일보 창간 64주년 / 2015.9.1. ····· 458
• 시민매거진 창간 5주년 / 2015.9.1. ····· 460
• 청풍 지령 300호 발간 / 2015.10.30. ····· 461
• 내포시대 창간 9주년 / 2015.10.31. ····· 462
• 충청일보 창간 70주년 / 2016.1.26. ····· 463
• 충남투데이 창간 / 2016.3.14. ····· 464
• 서울일보 창간 15주년 / 2016.3.15. ····· 465
• 충남장애인신문 장애인의 날 특집호 / 2016.4.25. ····· 466
• 충청신문 창간 11주년 / 2016.4.22. ····· 468
• 대전투데이 창간 10주년 / 2016.5.17. ····· 469

Ⅳ. 언론보도 기고문

• 대전MBC 주간소식지 기고문 / 2015.7.5. ····· 473
• 대전MBC 주간소식지 기고문 / 2016.2.2. ····· 475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2014. 7. 1 ~ 2016. 6. 30)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원내외 의정활동
개 회 사

제271회 임시회 〈2014.7.2. 본회의장〉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10대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존경하는 충남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10대 충남도의회의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0대 충남도의회가 21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문을 여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40명의 도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새로이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210만 도민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뜻을 받들어 충청남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4년의 임기동안 온 마음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6기를 시작한 우리 충남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일대 전환기에 있습니다. 도청이전이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우리 충남이 날개를 달고 비상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최고수준의 경제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충남의 밝은 현실이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정부담과, 사회 양극화와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갈등문제의 분출, 그리고 저성장기조의 지속 등 불안요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찾아오고 있는 환황해권시대는 분명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례처럼 과연 기회를 제대로 살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도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지점에 있습니다.

도민의 마음을 헤아려 충청남도란 배가 제대로 항해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하여야할 것입니다.

제10대 충남도의회는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힘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의 하나이지만, 실제 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가치는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의원을 비하하고 지방의회 무용론을 말하는 일부편견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화와 변혁의 자세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대표권, 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조사 · 감사권은 정말 신성하고도 고귀한 권리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이제 23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역량강화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실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제10대 충남도의회가 정말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도록 모든 힘을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중심의 의원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회 존립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둘째, 도민 생활 가까이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지 않고 진행된다면 사문화된 이론밖에 될 수 없습니다. 발로 뛰며 찾아가서 민의를 경청하고 그것을 반영할 때어야 만이 살아있는 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대 도의회는 현장방문과 토론회 등을 강화하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의를 수렴하며 민생을 살피는 일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이슈가 되었던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논의였습니다. 주민자치와 생활정치가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정파를 떠나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답을 찾는 지방의회의 참 모습을 도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비중이 커지는 복지문제와 소외계층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자로서의 역할과 감시자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성장 제일주의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만, 감당하지 못할 복지정책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일장일단이 있지만 성장 속 복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저는 '헌신, 소통, 화합'의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의장의 자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만,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자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후회가 없도록 210만 도민과 충남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40명 의원 모두가 화합하는데 구심체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한 모든 의결사항은 결국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집행되어 도민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기에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상호간에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이 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도청,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의견이 폭넓게 교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희망찬 충청남도의회의 새로운 4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도민의 행복증진과 충남의 발전에 있습니다.

210만 도민의 화합을 이끌고 희망과 꿈을 선사하기 위해 모두 함께 달려갈 것을 제안합니다. 궂은 일은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힘을 모아 의정사에 길이 남을 제10대 충남도의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과 오늘 제10대 충청남도의회의 개원을 축하해 주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여러분과 210만 도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72회 임시회 〈2014.7.15. 본회의장〉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되어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일 제10대 도의회를 개원하고 약 2주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6기 출범과 제10대 도의회 개원행사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0대 도의회의 출발을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원구성 과정에서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심기일전하여 성숙된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 제10대 의회 출범이후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10일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처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민선6기 집행부의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해 세밀히 살피며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은 도청이전 이후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이 시험대에 올랐고, 환황해 경제권 중심 도약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갈등 문제와 같은 사회통합을 위한 쉽지 않은 해결과제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서해안유류사고피해배 · 보상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많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사회는 전반적인 개조요구를 받고 있으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야 하는 과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변화와 혁신 속에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역할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도의원 40명 모두가 합심하여 의회의 역할을 다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제10대 도의회를 만들자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 도정을 시작하신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공정함의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여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고 충남발전은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들, 학생중심'의 교육,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눔교육'을 실천하고, 충남교육청을 최고의 '청렴교육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바람과 의지는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도민만족」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좋은 비전과 청사진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잘 풀어내실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 도의회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것이며 대화와 협력의 노력 또한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분투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성하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방학과 하계휴가가 기다려지는 시기지만, 폭염과 태풍 그리고 장맛비 등

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난과 안전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확인하고 미리미리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국고예산확보를 위해 진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예산 편성에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틈없이 준비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리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회기는 6기 지방선거 이후 실질적인 첫 임시회 활동이 됩니다.

도민에게 생산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여러분의 협조와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0대 도의회가 도민여러분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73회 임시회 〈2014.8.25. 본회의장〉

적극적인 참여로 생산적인 회기를 만들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때 찌는 듯했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비회기 중에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을 누비며 민의를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복무에 임해 주신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14 을지연습」 훈련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군·경, 그리고 유관기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 우리에게 의미 깊었던 일로 프란치스코 교황방문이 있었습니다. 4박 5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 '화해·평화·용서'라는 큰 울림을 우리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방문기간 중 우리지역 천주교 성지인 솔뫼성지와 해미읍성을 방문하였고, 특히 17일 해미읍성에서의 폐막미사는 CNN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전 세계가 주목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황방문 맞이에 수고 하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교황방문

이후의 감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종교를 떠나 성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그동안 많은 우려를 주었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인주지구가 지정 해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가 지난 7년 여간 많은 인력과 재정을 쏟아 부었던 만큼 후유증도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당진 송악과 아산 인주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8년 만에 가장 이른 명절로 차례상 비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건전한 소비유도와 함께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현실성 있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을 끝내고 새학기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방학동안 풀어진 마음을 새로이 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설과 상담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이 2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제273회 임시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도청과 교육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 분야에서 도민들의 관심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재정은 올 바르게 관리되며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잘 못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한 점검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도 도민의 뜻을 헤아리고 적극적인 참여로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74회 정례회 〈2014.9.25. 본회의장〉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74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비회기중에도 민생현장에서 지역현안을 살피며 도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제10대 충남도의회 첫 의정연찬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며, 도민과 함께 하는 충남도의회가 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10만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충남도의회가 되기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하자고 제안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선 6기 출범이후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등에서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 국회 제출 정부예산안에 많은 부분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복한 도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도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열흘간 제60회 백제문화제가 열립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축제이니 만큼,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길 당부 드리며, 수많은 행사와 축제 속에 도민의 안전을 우선 챙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해의 남은 3개월여 간은 그동안의 많은 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파를 초월하여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뜻을 모으고 합심해 나가자고 당부말씀 올립니다.

농가에서는 추수를 앞둔 일 년 중 가장 보람된 시기입니다. 가장 바쁜 농번기이니 만큼 농가의 어려움은 없는 지 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많은 행사와 함께 들뜬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학입시 수험생들에게는 수학능력시험일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긴장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수험생들이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제274회 정례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있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 심사에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잘못 집행된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에서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도 21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만을 생각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를 당부 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다가옴을 시샘하듯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210만 충남도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75회 정례회 〈2014.11.5. 본회의장〉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회기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쌀쌀해져 가는 날씨에도 활기 넘치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0대 도의회가 기대와 축복 속에 도민의 행복증진과 충남발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출범한 것이 얼마 전 같은데,어느덧 금년 한해의 의정을 마무리 하고 2015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과 참 교육 실천을 위해 헌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와 '판교 공연장 환풍구 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들을 불안케 하였으며, 그 여파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내적으로도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물거품이 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적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충남의 지역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청년고용률은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제, 냉철하게 2014년을 각자의 자리에서 뒤돌아보고 활기 넘치는 내년도를 위해 다시 준비해야하는 시기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자기성찰과 변함없는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275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2015년도 예산안 심의 · 의결,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그동안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봐 주시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과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 있어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자료수집 및 정보 분석으로,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이 이루어져 지길 기대합니다.

특히,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충남 道 전체의 관점에서 냉철한 자세를 견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하고 행복한 도민생활에 역점을 두고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제275회 정례회가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조화 속에 갑오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치닫는 달이고, 수능시험일이 있는 달입니다. 오는 13일에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관계 공무원과 도민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점차 다가오는 추위에 건강과 체력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76회 임시회 〈2015.1.27. 본회의장〉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에 중추지역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할 것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의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가 '청양(靑羊)의 해'인만큼, 온순하고 평온한 양의 기운을 받아 210만 도민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는 210만 도민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뜻으로 민선6기 및 제10대 의회를 출범한 의미 깊은 한해였습니다.

올해는 민선6기와 제10대 의회의 2년차 안정기 속에 충남이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에 중추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도청이전특별법' 및 '화력발전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도의 세입이 1,000억원 정도 증가해, 서해안 발전 토대마련 및 내포신도시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 통과와 국비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하자고 제안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8일 천안에서만 발생했던 구제역이 공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돼지

237마리를 살 처분하는 등 도내 확산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AI가 유행할 시기이므로, 그 위험성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비록 가축이라지만 기르던 생명을 살 처분하여 묻는 농민의 마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아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상방역체계의 확대가동으로 도내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아 축산농가의 피해와 도민건강에 위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에 대한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 어떠한 이유에서든 아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빈발하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는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2015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10일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처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민선 6기 2년차 도정을 시작하신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행복 삶터, 늘 새로운 충남'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며, 3농혁신 등 민선 5기 중점 추진해 온 3대 혁신과제를 보완·발전시키고, 3대 행복과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셨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의 교육비전 아래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제시하신 올해의 비전과 청사진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잘 풀어

내실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 도의회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것이며 대화와 협력의 노력 또한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께 당부 드립니다.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3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혼자 사는 어르신과 보육시설아동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새봄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힘차게 의정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77회 임시회 〈2015.3.17. 본회의장〉

축산농가에 신속한 지원대책 마련해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고 새롭게 깨어나는 희망 가득한 이른 봄에 제277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생활현장을 살피며 활발한 지역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행복 삶터, 늘 새로운 충남'과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한 관련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16일 천안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진정되지 않고 도내로 확산되어 홍성 21곳, 천안 16곳, 보령 4곳, 공주 2곳 등 43곳의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돼지 2만 1천 809두가 살 처분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9일 천안과 홍성지역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대책과 방역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처분 이후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는 시급한 현안이 셀 수 없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무산된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요구되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에 우리도 입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맞춰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하며, 내년 전국체전 개최준비 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의 발전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백년대계의 청사진으로 출발한 도청이전 사업은 1단계 공정을 이미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민간투자유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균형적인 정주기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악영향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확보에 다각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EXPO, 평창 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충남도의 특성을 살린 대형 프로젝트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위로 나오려고 꿈틀거리는 경칩을 지나 어느덧 춘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일년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봄 가뭄을 대비해 농업기반시설 및 대형 관정 정비 등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기업유치가 감소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 부족도 심각합니다. 내수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해빙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매년 봄철 산불예방에도 도, 시군 및 관련 기관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요즘 초등 돌봄 교실 확대 계획이 무산되면서 보완적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채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부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집에 홀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이 역량을 키우고 희망찬 비전을 심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준비와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 건은 많은 도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충남도 교육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운 겨울의 긴 터널을 지나, 봄의 온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78회 임시회 〈2015.4.30. 본회의장〉

충남인 모두가 도계사수를 위해 총력 기울여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에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중에도 지역 곳곳의 민생현장을 살피며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행복 삶터, 늘 새로운 충남'과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13일 당진 ·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하여 원칙과 기준이 없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편파적인 결정으로 우리 道는 당진과 아산 땅을 빼앗기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연일 집회와 궐기대회를 하고 있으며, 지난 17일부터 당진시민들은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道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여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불합리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충남인 모두가 도계 사수를 위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편, 도내 임야와 농경지는 극심한 봄 가뭄으로 산불 대비와 영농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이변과 지구 온난화로 20년 뒤 미래세대는 물 기근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물 복지는 곧 돈이며, 생존입니다.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댐이나 저수지 등 수원(水原)을 확보한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처럼 타 자치단체는 갈등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입니다.

도정의 실익을 위해 때로는 경쟁하고 동시에 공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타 지자체와의 관계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를 맞아 우리 道는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농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복지 증진, 민생 안전 확보, 新 산업생태계 구축, 인삼엑스포와 세계군문화축전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비전의 일환으로 안희정 도지사님은 해양 건도와 복지 농촌 건설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과 폴란드를 순방하셨습니다. 서해 바다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고, 우리 농촌이 농업가공산업, 생태 관광 등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道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번 임시회에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교육청 내 실무추진팀이 만들어져서 해당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향평준화 방안을 모색하며, 통학 편의를 위한 버스 노선 변경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내린 결정인 만큼 학생 · 학부모 ·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호남고속철도 KTX 공주역을 개통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산업 육성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산항과 중국 산둥성 룽청시 간 국제여객선이 내년 취항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수요창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청과 유관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주한지 2년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현안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주거 환경 인프라 구축에 세심한 배려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원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원도심 주민까지 행복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내포신도시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포지역이 지속가능한 고품격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투자 못지 않게 내포정체성을 공유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내포를 바로 알고, 사랑하며, 널리 알리는 것은 서해안시대 내포인의 당면 과제입니다. 공직자 모두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내포를 홍보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밀접한 각종 조례 등을 처리하고, 도정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 분야에서 도민을 위한 현안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79회 정례회 〈2015.6.15. 본회의장〉

메르스 피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록이 싱그러워지는 여름 어귀에 제279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달 11일 최초 환자가 발생했던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이 초기 대응 미흡으로 확산되면서 국가적인 재난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 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집행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메르스 발생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대책본부의 확대와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道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 경기도 · 대전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道 차원의 초기 대응과 방역 체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가 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는 한편,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경제 활동이 움츠려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 교육청도 일선 학교에서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건강을 수시로 살피며, 위생용품 긴급 지원과 일시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의 가족들이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입원하여 접촉한 사례가 있으므로 메르스 감염 사태가 아이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관심이 커지면서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한방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산 인삼 및 약초 제품의 효능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고,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에 박차를 가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한편, 도내 농촌 지역은 장기간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 조금씩 흘려보내는 물 주머니까지 등장할 정도로 농경지가 바짝 메말라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가뭄 해소를 위한 응급조치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영농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에는 장마 시기도 늦어지고, 마른 장마가 예상된다고는 하나,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물 관리로 침수피해 안전 대책은 물론, 버려지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없도록 한발 앞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道는 서해안시대 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한 新성장동력발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은 지난 21일 일본을 방문하여 자동차 첨단기업 2개사와 투자협약을 맺어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또한, 22일에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태양광산업 지원과 농수산물 명품화 등 지역 경제의 新 생태계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수소차 개발 등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할 것 입니다.

먹거리는 살아 움직이는 트렌드입니다.

국제적 변화에 발맞춰 변신을 할 수 있는 농업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인구가 17억에 육박하며 전 세계 인구의 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랄 식품 인증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충남 농업 사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첨단 쓰리디(3D) 프린터와 IT기술이 접목되어 식재료가 요리로 완성되는 「신개념 밥상」 시대를 선도할 농업경영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道 의회는 농가부터 기업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힘을 보태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위대한 문화강국이자 원조 한류인 백제는 과거의 역사가 아닌 세계 속 미래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백제는 준비된 세계유산이다'라고 감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과 인프라 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KTX공주역과 서해복선전철 등을 활용하여 공주 · 부여 · 익산을 잇는 백제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 수립에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달 28일부터 열리게 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변 없이 등재가 확정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2012년부터 3년여 세월동안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고마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정과 학교 현장 현안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결산 심사에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80회 임시회 〈2015.7.9. 본회의장〉

위대한 강국, 新백제시대 열어나가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올해의 절반을 남겨놓은 푸르른 여름에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한국의 12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거머쥐었습니다.

우리 道는 2010년 1월에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하였고, 민선 5기에 접어들어 문화재청 ·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오랜 세월동안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제는 일류 문명이자, 인류 문화입니다.

패망국으로 폄하되어온 백제를 위대한 역사 · 문화 · 교류 강국으로서의 재조명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접목하여 新 백제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역 주민들이 손을 잡고 세계유산 등재에 걸맞은 보존 · 관리 대책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급증이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객을 차질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광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백제역사 문화도시 조성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함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국가적 재난으로 번져갔던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이 우리도 대책본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20여일 동안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족보다 환자와 이웃을 먼저 돌보았던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위기 극복 속에서 수많은 사연들로 감동의 꽃을 피웠습니다.

메르스 자가 격리자 관리와 감염 종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풀어야 할 과제는 불경기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전통시장과 농어업인을 위한 소비촉진 운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피서지 및 관광지에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방안과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道와 교육청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여름휴가 기간을 늘리고, 우리 지역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과 이웃에게 외면당한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늘어 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독사 조례를 만들어 예방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충남은 65세이상 인구비율이 16%이며, 이중 독고노인은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道는 공동생활제, 방문요양서비스 등 자살 예방과 응급 상황 대처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초고령화 시대로 성큼 다가서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고독사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민·관 협력 관리와 지역 민간복지 자원발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는 족히 사는 '웰빙'과 편히 죽는 '웰다잉' 충남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한편, 올해는 예년보다 강도 높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설된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장마철 일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복구 체계는 함께 감염병 대처, 식중독 예방, 농산물 수급 안정 등 다각적 재해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놀이 시설과 응급처치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수욕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가 첫 돌이 되었습니다. 21세기 환황해권 아시아 시대를 주도할 서해안 항만물류 교통망 확충과 新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경기부양과 민생 안전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당면 과제인 당진 매립지 도계사수와 안면도관광지개발 사업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맞춰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되고, 한 푼이라도 더 정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 교육청은 미래 핵심 역량 인재 키우기 및 공평한 교육 복지를 실천하면서 다양한 부문의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등극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6년도 천안 고교평준화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통학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도정과 교육 현안 사항들은 잘 반영되었는지, 연초에 제시된 사업별 비전과 청사진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진취적 대안으로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도의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이 주인 되는 충남』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도의회는 공감 · 창조 · 실천 의정의 3대 의정비전 아래 210만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道 및 교육청과 손잡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81회 임시회 〈2015.9.1. 본회의장〉

통일조국을 위한 우리의 역할 고민해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찌는 듯했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어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7월 제28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된 『정책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일부 의원 불참 등 특위 운영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의장불신임안까지 제출되는 과정을 보면서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특위가 당초구성 목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본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우리 道 의회가 정당을 넘어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겨레의 소원은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고와 북한의 무력도발 움직임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은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 지난 25일에 북한의 지뢰

도발 유감표명, 비무장지대 군사적 긴장 해소,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에 전격 합의하며 대화의 정례화와 체계화에 공감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경제협력사업과 통일 조국을 위한 준비를 위해 우리 道 차원에서 할 일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불볕더위 속에서도 '행복한 성장, 희망의 충남'을 위한 안희정 도지사님의 세일즈 외교는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천안시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 분양률을 내년까지 80%이상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충남도와 말레이시아 간 사상 첫 투자협약을 성사시켰고, 연이어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 '경제가 탄탄한 충남'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자유치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등 호재와 맞물리며 '서해안 경제 벨트 다지기'에 고무적인 성과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행복한 성장, 희망의 충남'의 비전이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날까지 집행부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이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합니다.

우리 道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자유학기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道 의회는 지난 24일 道 교육청과 의정아카데미 자유학기제 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역할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하는 어려운 과정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인적자원 개발환경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교육청 · 지자체 · 지역시민단체가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이 뿌리 째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에만 초점을 둔 부익부 빈익빈의 잣대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하나 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충남의 경우는 농어촌의 학교 중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고 자란 고향에서 교육받을 권리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는 배움터를 넘어 지역의 뿌리입니다.

특히, 농어촌의 학교는 늘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을 참 한국인으로 양성하는 제2의 가정입니다.

道 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의 지역 강점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과 차별화 전략 등 작은 학교 살리기의 대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충남도내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보령댐 저수율은 3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해 작물 생육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물론, 발전용수 등 공업용수조차 자발적 절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道에서는 현재 물통합관리 기본방향을 수립중이며 버려지는 물과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물 부족현상이 되풀이되고 심화되는 근본적 걱정거리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도 물 대란의 전조가 뚜렷한 현 상황에서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지혜로운 '국민 물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는 일류 문화이고, 백제인은 으뜸 세계인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백제역사유적지구와 백제문화단지는 수학 여행지와 영화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세계무대를 겨냥한 관광산업의 메카로 떠오르며, 관람객이 올해만 두 배 가량 늘었고, 추후 다섯 배 가까이 관람객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마음에 '준비된 백제 교양인'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백제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걸 맞는 시민의식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메르스 및 가뭄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82회 임시회 〈2015.10.1. 본회의장〉

물부족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황금 들녘이 너울거리는 풍성한 가을에 제282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중에도 지역 곳곳의 민생현장을 살피며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14일 우리 道 의회는 미국 뉴저지주 의회와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경제 · 문화 · 관광 등 상호 이해 증진 및 국제 행사 지원에 대한 폭넓은 실무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남도와 뉴저지주는 이제 먼 나라가 아닌 서로를 응원하는 "세계 속의 의좋은 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지난 달 18일 요우커의 심장부에서 기업유치에 이어 관광충남까지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안면도 등 우리 道의 세계유산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국제적 우호교류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무전여행부터 초호화 크루즈 여행을 총망라하는 관광 대백과 충남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道의회는 충남의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한국적 관광의 대표 눈대목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포는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해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경기침체로 인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거듭 강조 드립니다.

더욱이 홍성, 예산 지역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하는 자족도시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도심 주민까지 행복한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해 의회, 집행부 그리고 도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물은 문명 진보와 인류 생존의 밑뿌리입니다.

올 한해는 가뭄이라는 재난 앞에 속 타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령댐의 저수율은 24퍼센트를 밑돌며, 급기야 광역상수원 고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충남 서북부 지역은 제한급수라는 급박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4일 보령댐 도수로 신설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여 하루 11만여 톤의 금강 물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해안의 경제규모와 인구유입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우리 도민의 목마른 시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바다부터 도랑까지 함부로 버려지는 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전라남도에서 시작된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道는 시군과 연계하여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있는 우리 道에서도 지역별 현장밀착형 점검을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각종 가축 집단전염병과 매몰지에 대한 방역 및 소독 등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道는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형 '돈 잘 버는 농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개발 식량 자원 확보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세계 곤충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에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UN식량농업기구는 2013년 보고서에서 미래 대체 식량으로 곤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식량이 될 곤충 자원은 영양학적 가치와 경제성을 갖춘 친환경 먹거리의 블루오션이라 하겠습니다.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가 우리 道에 정착할 수 있는 新 귀농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학교는 또 하나의 가정이자 사회입니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인권이 생동하고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과 공조하며 학교폭력 사전예방에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유연한 맞춤형 대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도 범죄 행위의 가해자이자 피해당사자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3개월은 연초에 청사진으로 제시했던 여러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내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회기별 개회사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집행부에 힘을 보태고자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 가을걷이가 한참인 지금, 그 동안의 제안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서해안 복선전철과 세계유산 보존 관리 등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축소 또는 미 반영된 사업들이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승인 및 2016년도 정기분 道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정과 교육 행정 각 분야에서 도민을 위한 현안 사항및 철저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드높아진 가을 하늘 만큼이나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해져 건강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계절입니다.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83회 정례회 〈2015.11.5. 본회의장〉

'더' 잘사는 충남을 넘어 '다' 잘사는 충남으로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한 해를 돌아보며 첫 눈을 기다리는 겨울 어귀에 제283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을 마무리 하고 떠오르는 새해를 설계하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민생 현장을 돌보시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과 다사다난했던 도정과 교육 행정을 이끌어 오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14일 우리 道 의회는 중국 헤이룽장성 인대상무위원회와 우호교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경제 · 문화 · 관광 등 상호 이해 증진과 국제 행사 지원에 대한 폭넓은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헤이룽장성은 동양 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세워져 있으며, 지난해 1월 개관이후 현재까지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한 · 중 · 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호교류협력을 통해 충남도와 헤이룽장성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환황해권의 자치 경제를 주도하는 양대 산맥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道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경제성장률 및 무역수지 전국 최고치 달성, 청풍명월 골드 3년 연속 소비자대상, 메르스 사태

조기극복, 천안시 고교평준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가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충남경제비전 2030』, 『지속가능발전 전략』,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교육』 등 분야별 정책 추진으로 미래 변화 대응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道의회에서도 내년 4월에 개최될 동북아시아 지역의회 의장포럼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향토자원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간 협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차별화된 다방면의 정책들이 「더 잘사는 충남」을 넘어 「다 잘사는 충남」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道의회 40명의 의원들은 하나가 되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힘을 보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도내 전역이 말라 가고 있습니다.

보령댐의 저수율이 20%를 밑돌며 제한급수 조치가 내려졌고, 생활용수는 물론 농·공업용수가 부족하여 농작물 수확과 공장 가동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금강 백제보와 보령댐을 잇는 도수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부터 충남 서북부지역에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물과의 전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물 절약 운동'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극심한 한발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과 겨울철 화재에 대한 우려로 시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치의 4배에 달하고 있는 올해의 산불은 자칫 겨울철 대형화재에 무방비 사태로 방치될 수 있으므로 화재 예방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는 일류 문명이자, 인류 문화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람객이 급증하면서 원조 한류인 백제를 세계에 알리

고자 할리우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지금,

충남의 꿈나무들에게 동아시아의 문화 통일을 이루었던 「교류 강국 백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세계 유일의 관광 콘텐츠를 창조하는 밑뿌리가 될 것입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백제 안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역사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내 3만여 명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중단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보육대란이 가시화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일상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일선 공무원들은 365일 내내 비상근무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근로 시간이 두 번째로 길며, OECD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48분으로, 회원국 평균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道에서는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업무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미흡한 점은 없는지 조용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충남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의 마음속에 행복의 꽃씨를 심어주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 道 및 교육청의 2015년도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본 예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도정 및 교육 행정의 각 분야에 대한 현안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미래지향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道와 교육청에서는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2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도민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84회 임시회 〈2016.1.25. 본회의장〉

충남의 미래를 함께 꿈꾸고 열어 나가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오늘 201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되는 의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도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는 도의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으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탄탄한 기틀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은 전 도민을 매우 당혹스럽게 했으며,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 사태와 사상 최악의 가뭄 등도 우리에게 고통과 함께 여러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 문제와 가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민선6기와 제10대 의회의 3년차 안정기 속에 국가적으로는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우리도에서 치러지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뜻깊은 해가 됩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며, 충남이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에 중추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안면도 국제 관광지를 개발하고,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에도 힘쓰는 등 서해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제7회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 포럼을 개최

하는 등 의회의 진정한 역할을 정립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재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편성을 하지 않아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6일에 누리과정 예산의 의회 증액편성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교육감협의회의 결정에 동참하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지만 예산집행은 진행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다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대란만은 꼭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함께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부천의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 일선 학교에서의 장기결석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는 않은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세심하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에 도민 여러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 가로림만의 결빙으로 어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식당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 12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이 고창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며 축산농가의 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전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추위 극복에 적극 노력하시면서, 더욱 철저한 방역 활동을 펼쳐 금년만큼은 우리도에 구제역과 AI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가 희망을 기원하고 남북한의 화해 노력이 필요한 때에,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도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조속한 폐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2016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11일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민선 6기 3년차 도정을 시작하신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3 플러스 3' 전략 목표로, 민선 5기 때부터 중점 추진해 온 행정혁신 · 자치혁신 · 3농혁신의 3대 혁신과제를 보완 · 발전시키고, 행복한 성장 · 행복할 권리 · 행복한 환경의 3대 행복과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특히 해양건도 충남을 이루는데 총력을 다 하면서, 경제비전2030을 실천하고 소수자와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의 교육비전 아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교혁신',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더불어 성장하는 안전한 학교', '교육본질에 충실한 청정 조직문화',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의 5대 교육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시하신 올해의 비전과 청사진에 대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대화와 협력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는 이번 회기가 올 한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최근에는 노인뿐만이 아닌 청장년층의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보듬어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람된 해를 보내시길 바라며, 충남의 미래를 함께 꿈꾸면서 힘차게 의정을 열어갑시다.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85회 임시회 〈2016.3.15. 본회의장〉

도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해 나가야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경칩이 지나 쑥국 한 그릇 앞에 두고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설렘이 있는 계절 봄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도전, 도약, 희망.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안겨주는 활기찬 봄입니다. 금년들어 두 번째로 맞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힘찬 한 해를 시작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사업들을 잘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각종 토론회 및 의정연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이 폐쇄 조치되었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도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불안요인이 지속되면서 한국경제 또한 개선될 기회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道에서는 농업 및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조금 더 살기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농업의 구조혁신에 보다 더 심도있는 고민과 부단한 실천 노력을 하면서, 충남경제의 실핏줄을 이루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이스라엘과 독일을 방문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900만불의 외자유치를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투자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 건설 3단계를 추진함에 있어, 더욱 속도를 붙여나가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서북부의 명문학교인 홍성고가 내포로 이전을 마치고 남녀공학으로 활기찬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만 4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내포 주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소 더디게 진행되었던 기반시설 조성과 교육 및 치안시설 확충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그 진입도로를 만들어가는 데에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올해만큼은 '내포가 진정한 신도시로 거듭났었던 한 해였다.'고 이야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내포를 중심으로 하는 환황해권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산 민항 유치와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등이 차질없이 순항되도록 노력하면서, 서해안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들에도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밀한 계획 하에 사업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도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하에 우리의 환경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빠른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갈등이 생기고 있는 각 지역의 환경문제들에 대해서 도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현명한 해결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달 17일 공주와 천안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논산에서도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곱 농가에서나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논산에서는 오는 30일부터 딸기축제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데, 도민들의 심려가 예상됩니다. 관계 공무원과 축산농가에서는 더욱 더 철저한 방역 활동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2017년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보고회가 열리면서 그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대상사업들은 5월 초순경이면 중앙의 각 부처에서 선정이 마무리 됩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사업들에 대해 정부예산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독서 진흥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이 일곱 달 남짓 남았습니다. 착실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여,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대회로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부터 11일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질문이 이어지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으며 도내 집중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등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진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7회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 포럼」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한국 등 5개국 12개 지방의회 의장단 및 의원 등 150여명이 이 곳 내포신도시를 찾아옵니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시아 지역 의회의 진정한 역할을 정립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고민들을 함께하게 되며, 문화와 관광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번 포럼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충남의 문화와 관광을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새 기운이 움트는 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활기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21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86회 임시회 〈2016.5.10. 본회의장〉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뻗어나가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을 더욱 환하게 만들어주시고,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힘을 얻어 버티며 애써주신 부모님을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들을 보내길 바랍니다.

금년 들어 세 번째 맞는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각종 토론회 및 의정연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제7회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남도가 명실 공히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교류 협력 방안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 노력을 기울이며 각 국 문화와 관광의 상생 발전을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4월 22일과 23일, 중국 구이저우성 당서기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충남 방문도 참으로 뜻깊었습니다. 지난해 해외 관광객 중 70%이상이 범중화권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들을 충남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백제유적을 활용한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13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출되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인 일본 구마모토현의 지진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어서기를 충남도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이번 지진은 한반도와 같은 지각판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국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국가가 아님을 인식하고 지진에 대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4%에 머무르며 내수와 수출, 투자가 모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물동량 감소, 저유가, 그리고 중국 경기 하강이라는 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전 공직자들이 굳건하게 힘을 모아 210만 도민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벌써 금년도 5월 중순에 다다랐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민과 약속했던 시책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고민들을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어 농가에서는 모내기 등 농사준비가 한창입니다. 적극적인 농촌 일손돕기와 내실있는 영농시책들을 추진하셔서 금년에도 모두가 웃는 풍년농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올봄 농업용수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의 저수율과 비교했을 때 5.4%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서산의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수 확보 대책의 다변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물 저장소 확보 노력은 물론 적정한 공업용수 확보 노력도 요구됩니다.

최근 국내 대형마트와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며 도내 고품질 농산물이 전국으로 뻗어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농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우리 농산물의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해 유통혁신에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5월에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것은 교육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정신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실천하며 가르침에 열정을 다하신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말에는 70일 만에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되며 구제역이 종식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축산농가 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지금부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도내 축산농가와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 건설 3단계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려면, 이전대상 기관 및 단체가 조속하게 정착해야만 합니다. 대상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하고 설득 노력을 기울여, 계획된 인구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내포신도시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 달에는 예산군에서 도민체전이 열리고, 오는 10월 7일부터는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기쁨과 열정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부터 10일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질문이 이어지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며, 도청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적정한 예산으로 추가경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1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87회 정례회 〈2016.6.1. 본회의장〉

전반기 의회 유종의 미를 거두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는 6월의 첫날에 제287회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은 '현충일'과 '6.25전쟁일'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며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을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금년 여름에는 비가 다소 적게 오며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는 지난 2014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제10대 전반기 의회는 21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며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17회 253일간의 회기동안 226건의 각종 조례안을 발의 및 심의 · 의결하는 등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32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비회기 중에도 각 지역의 현안들을 청취하는 등 쉼 없는 발걸음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여섯 개 상임위원회와 여섯 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충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하고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제7회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을 개최하며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충남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 등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아쉬움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때 더욱 활발히 논의되며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이처럼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여러 일들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210만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6년도가 어느덧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충남도가 지금까지 노력해 온 지역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대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봄, 산불방지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과 도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산불피해 면적이 전년대비 23% 감소되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많은 도민들이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해 보다도 농촌일손을 돕는 손길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여성에 대한 묻지마식 살인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및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도에서도 인권 의식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서울 국회에서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논의되었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극복을 위해 공조체계를 확고히 다져 나가며 충남의 발전을 소망하는 하나 된 마음으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달 중순,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필수 사전 절차인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도 생략하며 지역 간의 분쟁만 더욱 키우게 될 소지가 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도내 시·군은 물론 타 시·도와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본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모든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남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측정시설을 설치하며 대기오염 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우리도가 정부의 다양한 환경오염 대책에 함께 참여하며 개선해나가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합니다.

지난 달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1.3%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조금은 상승하였지만, 대전과 함께 1%대에 머물러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인프라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추경시 도와 교육청,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정책'과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 등 여러 현안들도 있습니다.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도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 여건 실현에 있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다양한 교육 공동체들과 함께 고민하며, 도민 누구나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도민의 삶에 밀접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정과 학교 현장의 현안들이 잘 반영된 조례안인지,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의회는 마무리가 되지만,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격려와 응원은 물론 다양한 충고에도 귀 기울이면서 새로운 후반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2016.6.30. 본회의장〉

더욱 발전하는 후반기의회 구성하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제10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뜻깊은 회기입니다. 원구성이 내실있게 잘 마무리되어, 앞으로도 의회가 지방자치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1991년 7월,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는 어느덧 25년이라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기면서 많은 성과들도 있었지만,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등 대외적인 악영향은 물론, 청년실업과 고령화가 심화되며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기 계신 사십 분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지난 2년간,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이라는 '제10대 충남도의회 3대 의정비전'을 실천하며 충실하게 노력해 오신 여러분께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도의회와 도민을 대표하고자 충실하게 나름대로는 노력

해왔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큰 과오 없이 소임을 다하게 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여, 저의 부족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불편했던 점이 있으셨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평의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소중한 기관으로 튼튼히 자리 잡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의회는 마무리가 되지만,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격려와 응원은 물론 다양한 충고에도 귀 기울이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제10대 후반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2014. 7. 1 ~ 2016. 6. 30)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원내외 의정활동
그 외 활동

제10대 전반기의장 당선인사

〈2014.7.2. 본회의장〉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의회 만들어 나갈 것

존경하는 21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믿고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 높은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기대가 크고, 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변화요구가 어느 때 보다 큰 중요한 시기에 도의회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안겨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의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기관대립형의 현 지방자치제도 체제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파를 떠나 의원간 화합과 단결을 통해 새로운 발전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210만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며, 모든 것은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합니다.

제10대 도의원 모두는 낮은 곳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도민의 대변자가 되어야겠으며,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을 발로 뛰며 도민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고 분쟁과 갈등을 풀어가는 해결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것이 결국은 우리 도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고 타협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세상을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겸손한 자세로 40명 전체의원님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구심점이 되도록 「소통과 화합」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축하연

〈2014.7.2. 의회동 로비〉

도민의 행복한 삶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해 나가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이렇게 「제10대 충남도의회 개원 축하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제10대 도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도의원 모두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도민들의 여망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오로지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찬 가지로 우리 10대 도의회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4년 뒤의 평가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집착하기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지금부터 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충청남도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제10대 의회를 만들어 갑시다.

특히, 이번 10대 의회는 다선 의원님들의 경륜과 초선 의원님들의 참신함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앞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아울러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리며, 행복 충만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고,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준비한 오찬과 함께 즐겁고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는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2014.7.15. 의원회의실〉

의회의 발전 위해 지혜와 고견 주시길

여러분, 반갑습니다.

훌륭하신 자문위원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제10대 전반기의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주고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해 위촉식 자리이후 처음이기도 하지만, 10대 도의회 개원이후 첫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훌륭한 자문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10대의회를 알차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6회 지방선거로 제10대 충남도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개원식을 가졌고 오늘 27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합니다.

제10대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충남도의회가 되기 위해 「공감의정」, 「실천의정」, 「창조의정」을 3대 의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청득심(以廳得心)이란 말이 있습니다. 10대의회 의정목표의 실현을 위한 시작은 바로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지난 1년간 최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44분의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요소요소에서 좋은 의견들을 저희에게 전달하며 충청남도의회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10대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면서 동료의원님과 도민들께 드린 말씀이 「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힘 있는」 의회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만,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방의원의 식견과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도의회가 여러분들에게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충남도의회를 저와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부의장님 두 분과 상임위원장님 여섯 분 등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자문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을 잘 받들어서 충남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전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위원님들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성과와 미흡함이 공존할 것입니다.

오늘 전제회의와 이어지는 상임위원회별 분과회의를 통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되시고 자문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남도의회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예산 확보 설명회

〈2014.8.13. 의원회의실〉

모두 합심하고 노력하여 국비 확보해야

반갑습니다.

오늘 홍문표 국회 예산 · 결산특별위원장님을 모시고 의미 있는 설명회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휴가도 없이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장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6월에 역대 충청권 출신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 355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심의 · 의결하는 자리인 만큼 솔직히 저희나 예산 · 홍성주민들을 포함하여 도민들의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두해 연속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1,37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시는 등 이미 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노력에 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19대 후반기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더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도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홍문표 위원장님께 보고 · 설명을 드리고 좋은 고견을 구하며, 대화를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역의정활동기간에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도의회 부의장님들과 상임위원장들께도 감사말씀 드리며,

또한,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설명을 위해 함께하신 남궁영 道 기획관리실장님,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소상한 보고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파가 크고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심각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두 합심하고 노력을 배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작은 씨앗이 자라서 그보다 몇 배 큰 열매를 맺듯이, 오늘의 소중한 자리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홍문표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의미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연찬회

〈2014.9.15. 안면도 오션캐슬〉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는 충남도의회가 되어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공직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과 의정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0대의회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연찬회 준비에 정성을 쏟아 준 김용찬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연찬회는 제10대 충남도의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를 맞이하는 연찬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범한지 두 달 보름이 지난 제10대의회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도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알찬 의정활동을 구상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도의회가 도정의 한 축으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동반자적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연찬을 통한 자기계발과 전문성 강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금번 연찬회는 의원님들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의원님간 나누지 못한 정담을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동료의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모범적인 의정연찬회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머무시는 동안 다소 불편함과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혹여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연찬회가 우리가 목표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의정역사에 길이 남는 제10대 충남도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회예결위 예산안심사를 위한 국민 의견청취
〈2014.9.24.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장〉

민주주의 기본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홍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과 우리지역 국회의원님 등을 모시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어르신과 농민단체 관계자, 주부와 장애인, 대학생, 그리고 소상공인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이 함께 모여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가 더욱 뜻 있게 다가옵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문표 예결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며, 모쪼록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수렴이 이루어져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및 시·군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2014.10.30. 덕산 리솜스파캐슬〉

입법기능 강화가 의회의 발전 이끌어

도와 시·군 입법담당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가 아홉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제10대 충남도의회 개원이후 진즉에 마련했어야 할 중요한 자리였는데,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 참 다행이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서로 정보도 나누고 좋은 인연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저와 공개경쟁을 통해 무수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성한 여러분들과의 오늘 만남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연을 잘 이어 나가는 사람들은 삶에 윤기가 나고, 그것이 곧 성공의 지름길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믿음들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저도 4선 도의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지방의회에서 일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 속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안목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바로 곁에서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큰 힘입니다. 연간 8조원이 넘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을 도의원 40명이 일일이 분석할 수 없고, 수천 명의 직원들 업무를 전부 커버할 수 없습니다. 각 시·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의회의 꽃은 입법기능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정책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의회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열심히 해야겠지만, 보좌인력 없이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민원해결 같은 극히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으로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지방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의회에 복무하시는 동안 의원님들과 좋은 소통의 기회를 갖고 소중한 연을 만들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연찬회가 업무지식 습득을 넘어서 도와 시·군 입법담당공무원간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발전방안 세미나
〈2014.10.30. 충남도청 대회의실〉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커가는 토대가 되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립 20주년과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소년상담실로 출발하여 충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진화하여 오늘에 오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나이에 접어든 것인데, 성숙기로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세미나가 더욱 의미 깊게 여겨집니다.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장기수 충남청소년진흥원장님과 이미원 상담복지센터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고, 나라의 기둥이며, 또 희망이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은 약화되어 가고 있고, 입시위주의 교육현실과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등 주변 환경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의 힘만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전부 헤쳐 낼 수는 없습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벗어나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실어 주는 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 가족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우리 도의회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고, 오늘 세미나가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좋은 토대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오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세미나
〈2014.11.10. 충남도청 대회의실〉

시민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신기반

갑오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는 「충남동학농민혁명 학술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신 道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판단의 기준을 잡는데 있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고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고민의 순간에 역사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도, 실패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학술 세미나가 그런 측면에서도 도민들에게 알찬 내용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조선후기인 19세기말은 개방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봉건사회의 부정·부패로 심하게 몸살을 앓았던 시기입니다. 동학은 서학에 맞서는 신앙운동으로 탄생하였지만, 부정한 국가권력과 외세에 대항하여 아래로부터의 혁명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비록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패함으로써 실패한 혁명이 되었지만, 동학농민군의 정신은 이후 계속된 의병운동과 3·1운동, 그리고 항일 무장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역사에 시민민주주의가 태동하는데 중요한 정신기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학농민혁명의 사회개혁과 국권수호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학농민혁명을 다시 되새기고 배워야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농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알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 충남지역에서의 농학농민혁명을 도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학술세미나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권역 외상센터 개소식

〈2014.11.13. 천안 단국대병원〉

국내 외상환자 치료의 훌륭한 롤모델이 되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분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낼 단국대학병원의 「충청남도 권역 외상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남 목포한국병원'과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개소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응급 외상환자치료의 거점센터로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개소하기까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님 등 보건복지부의 노력과 박우성 병원장님과 박희곤 외상센터장님 등 단국대병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평소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며,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이명수 국회의원님께도 반갑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의료행위들이 있지만, 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지키는 의료행위 만큼 고귀하고 공익적인 행위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외상센터의 개소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1분1초가 아쉬운 순간에 마땅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중요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의료현실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권역별 외상센터가 그런 불합리했던 점들을 많이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더욱더 확대되어 나아가길 바랍니다. '충청남도 권역 외상센터'의 개소를 거듭 축하드리며, 도민의 생명지킴이로 국내 외상환자 치료의 훌륭한 '롤'모델로 굳건하게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충남권역 외상센터를 훌륭히 이끌어줄 의료인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사회공헌정보센터 출범식
〈2014.11.19. 국립 공주박물관〉

사회적 기부와 나눔 확산의 초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충청남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우리 옛 말에 십시일반(十匙一飯)이란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아무리 각박하다고들 말하지만, 그래도 과거 보릿고개를 겪어오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인정의 문화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146개국 중 4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규모에 비해 기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큰 아쉬움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나눔 문화와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불완전한 점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남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출범은, 사회적 기부와 나눔 확산의 초석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작고 검소한 규모로 출범하지만, 점차적으로 나눔의 연결고리로 그 역할을 다하며 더욱 발전해 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복지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성공사례로 도민들에게 다가가길 기원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내 '사회공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의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출범이 있기 까지 큰 힘을 쏟으신 박수현 충남사회복지협의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협약을 갖게 되는 '충남도'와 '농협중앙회 충남본부', 그리고 '명학장학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될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과 '충남 사회공헌정보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2014.11.21. 덕산 리솜스파캐슬〉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의회의 한 단계 도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민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충남도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지방의회를 둘러싼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고 발전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의정토론회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흔쾌히 함께 해 주신 한서대 배정환 교수님,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님, 배제대 최호택 교수님, 그리고 우리 도의회 김용필 · 유병국 의원님과 대전일보사 김재철 본부장님,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단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듯,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분명 언급될 것입니다만, 그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현 체제하에서 의회를 운영하는 측면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풀뿌리민주주의 꽃인 우리 지방의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개선할 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모으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초석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출범한지 이제 4개월여 된 우리 제10대 충남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인정받고 가장 모범적인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길 기대 합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조직은 반드시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충남도의회가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알찬 마무리를 위한 의장님 초청 송년오찬
〈2014.12.15. 충남도의회 로비〉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새해를 만들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방금 전, 우리 충남도의회의 2014년도 12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금년 한 해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이 10대 의회가 만들어지고, 민선6기가 출범한 희망과 셀렘을 안겨준 한해였습니다.

우리 10대 충남도의회는 「공감의정」, 「실천의정」, 「창조의정」이라는 3대 의정비전을 정하고, 도민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 속에 6개월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원구성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의회 발전을 위해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10대 도의회의 의정활동이 펼쳐질 2015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삶과 함께하는 도의원 본연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210만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실현하고 희망을 주는 충남도의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남도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의회가 도민의 편에 서서 역할을 다하고,

함께 도정과 교육행정을 펼쳐 갈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충남도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충남도의회 활동사항을 도민들에게 충실하게 보도해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원들의 작은 일부터 어려운 일까지 협력해주신 김용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직원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하나가 되어 우리 충남도의회가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4년도 며칠 남질 않았습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했던 한해가 어느덧 저물고 또 다른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부터 안타까운 사건들로 많은 이들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더 밝은 2015년을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충남도의회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2014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농혁신 2030 비전선포 및 실천다짐대회
〈2015.2.10. 충남도청 문예회관〉

농어업인이 행복한 충청남도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충남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한 「3농혁신 2030 비전선포 및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남 농어업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농어업인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음주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신여러분께 금년 한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는 농어업을 1차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농어업은 생산에서 가공, 유통은 물론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까지 포함된 고부가가치의 다차원 산업입니다. 이렇듯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의 하나로 농어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농어촌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농민은 싼값에 넘기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먹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와 한-중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어촌의 생태가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농어업을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아래 정책적 차원에서 좀 더 과감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어업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오션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떠나던 농촌에서 다시 찾아오는 농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선5기부터 '3농혁신' 이라는 비전아래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농업과 농촌이 살아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대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며, 3농혁신의 2단계로 추진하는

「2030 장기비전」 또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농어업이 산업으로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3농혁신 정책을 기반으로 우리 농어업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도의회에서도 희망을 되찾고 꿈이 이루어지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농혁신 2030 비전선포 및 실천다짐대회」가 있기까지 큰 관심과 힘이 되어준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김호 3농혁신 위원장님 등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농어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3농혁신 2030 비전선포 및 실천다짐대회」를 축하드리며, 농어업인이 행복한 충청남도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 지역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비전
〈2015.2.5. 온양 그랜드호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창의적 지역발전 이끌어가야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더 좋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되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느라 애써주신 권경득, 정순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님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님, 복기왕 아산시장님, 황선조 선문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의 논문으로 참석해주신 학계 등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이제 막 20살 성년이 되었지만, 권한과 재원이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먼 듯합니다. 중앙에 의한 자치권과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과 지방의회의 입법권 제약 등은 우리나라의 불완전한 지방자치를 가져오며, 지역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주민과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정책으로 창의적 지역발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또한,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자치단체와의 상호견제와 균형 속에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분과별로 논의되는 여러 주제들이 충남도의 정책담론을 넘어 우리나라의 참된 지방자치를 이끌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2015.2.25. 의원회의실〉

지방의원의 역량을 높여 힘있는 의회 만들어야

오늘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문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충청남도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자문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청양의 해' 인 만큼 온순하고 평온한 양의 기운을 받아, 우리 도의회도 순탄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자문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52년에 최초로 구성되었지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해산과 구성을 반복하는 등 불완전한 지방자치의 형태를 이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우뚝 서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역량을 높여 「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의회인사권 독립방안'을 중심으로 도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리며, 이어지는 상임위원회별 분과회의를 통해 의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제10대 충남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여섯 분의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들도 자문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구체화하여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가 더 나은 의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하며, 의정자문자문위원회가 충남도의회의 씽크탱크(Think Tank)로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린성 정치협상회 주석 방문

〈2015.3.18. 만섬한정식〉

21세기 동북아시아를 함께 이끌어가는 진정한 동반자

중국의 유교경전인 주역(周易)에 (二人同心 基利斷金 同心之言 基臭如蘭 이인동심 기리단금 동심지언 기취여난)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두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찌르고, 마음을 같이 한 말은 그 냄새가 난초와 같다"는 뜻입니다. 지린성과의 우호교류협력 관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통역)

지난 2005년 9월 지린성과 충청남도 간, 그리고 2014년 10월 지린성 인대와 우리 도의회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21세기 동북아시아를 함께 이끌어가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견고한 우정을 쌓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통역)

지난 10년간 의리를 가지고 우리도의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것을 충남도민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통역)

특히,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와주신 황옌밍(黃燕明) 주석님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통역)

다같이 잔을 높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

지린성과 충남도의회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건배~! (통역)

감사합니다. (통역)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충청권 토론회
〈2015.4.17.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주주의의 밑뿌리이자 귀결점은 민의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 충청권 토론회』에 참석 하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의를 꽃 피우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님,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님과 최승범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신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임상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님,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권선택 대전시장님,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내빈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허심탄회한 소통이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현안의 돋보기가 되어, 살아있는 生 지방자치로 비상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민주주의의 밑뿌리이자 귀결점은 민의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적극적으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디딤돌이며, 주민이 지역 살림의 주인이 되는 참 지방자치의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항아리입니다.

민의를 잘 발효시켜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는 주민 참여의 산실로,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효모 없이는 민주주의를 완성도 높게 빚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지역 살림을 살찌우는 자생력을 키우는 일은 시대적 당면과제입니다. 중앙

정부와 예속이 아닌 대등한 관계로 지역별 맞춤 자치제도를 마련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끌 의정활동의 위상을 제고해야만 합니다.

개방화와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확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번 충청권 토론회에서 논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고견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징검다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지방자치 수호자로서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 · 시군의회 의장 간담회

〈2015.4.27. 부여 롯데리조트〉

지방자치법 개정은 민의 반영의 디딤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의를 꽃 피우기 『지방자치법 개정 도 · 시군의회의장 간담회』에 심우성 시 · 군 의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시군 의회 의장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와주신 뜻 깊은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친교와 화합을 다지는 허심탄회한 소통을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와는 달리, 도와 시군의회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정초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상황과 시군별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 지방자치의 밑뿌리이자 귀결점은 민의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적극적으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디딤돌이며, 주민이 지역 살림의 주인이 되는 참 지방자치의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예속이 아닌 대등한 관계로 지역별 맞춤 자치제도를 마련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끌 의정활동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방의회의 과제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고견이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밑거름이 되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살림을 살찌우는 자생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방자치 수호자로서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입법청원 전달식
〈2015.5.13. 의회 의장실〉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대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 깊은 전달식을 준비하신 김홍열 농경위 위원장님, 김문규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그리고, 조권형 농협충남지역본부 본부장님과 강문규 당진 우강농협 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천안을)국회의원님께서 RPC 농사용 전기료 적용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오늘 전달하신 충남농협(24개소)RPC 조합원 1만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협 RPC는 건조, 저장, 도정시설이 하나의 체계임에도 도정시설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어 농협과 농업인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법 개정은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한미 FTA 보완대책이며, 1개소당 1년에 5천만원 이상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의회는 입법상황을 주시하면서 청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은 물론 향후 초당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 20주년 기념 및 학술행사
〈2015.6.12. 충남공무원교육원〉

20년간 지식의 창, 지혜의 샘

초록이 싱그러워지는 여름 어귀에서 개최되는 충남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및 학술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약관의 세월동안 열악한 여건 가운데 '행복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행사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윤용혁 공주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구원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년전 충남연구원은 道와 시군이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혜와 지식을 모으고 만들어 공유하는 민생 정책의 보루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충남발전의 밑뿌리이자 귀결점은 도민입니다. 그러므로 도민은 정책연구의 수혜자이자 수요자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하여, 소통과 협력, 개방과 공유를 기본 가치로, 도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열정과 긍지를 가지고 정책개발에 힘써왔습니다. 학술행사에서는 민 · 관 · 산 · 학 · 연의 전문지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환황해권시대 중국의 부상과 충남의 대응전략 등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구원 여러분,

정책 연구를 위해 흘린 땀방울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들여다보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분석과 연구 활동을

해 왔으며,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쾌거를 거머쥐었습니다. 충남의 미래를 창조할 연구 행정의 보다 넓은 역량 키우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략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할 융복합 협력연구를 한껏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남연구원『개원 20주년 기념 및 학술행사』를 축하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

〈2015.5.26. 충남도청 대회의실〉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온 참 대변인

충남발전협의회 회원 여러분 !

초록이 싱그러워지는 여름 어귀에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약관이 훌쩍 넘는 세월동안 '충남 사랑'의 순수한 열정으로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임동규 충남발전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620여 지역의견 리더 여러분께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발전협의회는 도민 모두가 화합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충남건설을 위해 1990년 11월에 창립된 충남대표 NGO단체입니다. 협의회는 지난 25년간 정부와 대의 민주주의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참 대변인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전년도에는 150여 시민 · 사회단체의 역량을 결집한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결성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편협하지 않은 균형 잡힌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디딤돌을 마련하였습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며 다각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충남발전협의회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와 각종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역경쟁력 확보, 공공 갈등, 내포문화 재조명, 행정 혁신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발전 리더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밀착형 협

의회를 통해 시군 현장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며 농업과 경제의 성공 밑돌을 다져왔고, 소외계층을 위한 페스티벌과 장학 사업으로 지역복지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충남의 미래를 창조할 시민 사회단체로써 보다 넓은 역량 키우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충남발전협의회가 보다 내실 있고 역동적인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할 으뜸 사회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도 의회는 다양한 여론을 경청하며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뜻 깊은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힐링연수

〈2015.5.26. 예산 봉수산자연휴양림〉

충분한 휴식으로 에너지 충전하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에 『충청남도의회 힐링연수』가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드넓은 야외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있으니 휴양림에 알록달록 사람 꽃이 핀 듯합니다. 평소 민생현장을 살피며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게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좋은 날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같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담소와 휴식의 시간동안 속 시원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맘을 나누는 정겨운 어깨동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맘껏 즐기실 준비 되셨죠?

내가 즐겁고 옆 사람도 즐거우면 그게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당면과제와 현안사업들이 많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만큼은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 1주년 기념 기자회견
〈2015.6.30. 충청남도의회 기자브리핑룸〉

충남도의회 최고의 가치는 도민의 행복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초록이 무성한 여름이 성큼 다가와 올 한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10대 충남도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해 보고 말씀을 올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

총9회 135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점 진단과 대안 제시로 도민의 의정욕구에 부응하고자 쉴 틈 없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5일간 처리한 안건만 무려 131건에 달하며, 사회적 약자와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규칙 85건이 제·개정되었고, 이중 23건은 의원발의 조례로 활발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5분 발언·서면질문을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올바른 지적으로 *징비후환(懲毖後患)을 당부하며, *기리단금(基利斷金)의 자세로 정책 대안에 힘을 보탰습니다.

* 징비후환 : 지난 일을 경계삼아 뒷근심을 막는다.
* 기리단금 : 마음을 같이하면 어떠한 일도 헤쳐 나간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의정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토론회, 의원 연구모임,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 40명의 의원들은 하나가 되어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 현안의 돌파구를 찾는데 선봉장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우리 10대 도의원님들은 급박한 위기 현장에 도민과 함께 있었습니다!

구제역 · 메르스 등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극심한 가뭄현장 곳곳을 살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쌀 산업 대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 및 관계 부처에 결의 ·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생생한 의정활동을 On-Off 라인으로 실시간 도민에게 전달하며 열린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양해를 구하며, 저는 하반기 도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0대 충남도의회는,

공감 · 창조 · 실천 의정이라는 3대 의정비전으로 210만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뛸 각오입니다.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는, 의원보좌관제 등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당진 매립지 도계 사수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내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대규모 국제적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고품격 내포신도시 기틀 다지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 행복입니다. 지난 1년 동안 40명의 도의원 모두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새겨왔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 가능한 역량을 총결집하여 산적한 지역 현안을 도 및 교육청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2015.7.2. 충청남도의회 홍보관 로비〉

도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충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제10대 충남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념식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사십 분의 道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 1년동안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라는 구호 아래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40명의 의원들은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메르스와 가뭄 등 피해 현장을 찾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및 관계 부처에 결의·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 현안의 돌파구를 찾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자 의정토론회, 의원 연구모임,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화를 높이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도의회는 공감·창조·실천 의정이라는 3대 의정비전으로 210만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뛸 각오입니다.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는 의원보좌관제 등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당진 매립지 도계 사수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내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고품격 내포신도시 기틀 다지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의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충남"입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 가능한 역량을 총결집하여 산적한 지역 현안을 도 및 교육청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책자발간

〈2015.7.20.〉

지방자치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길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 입니다.

초록이 무성한 여름을 맞아 『지방자치법개정(안)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발간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동희 협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입니다. 더욱이 불균형한 중앙 통치가 아닌 균형 잡힌 자치 민의야말로 민주주의의 밑뿌리이며, 귀결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방자치법 개정은 적극적으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디딤돌이며, 주민이 지역살림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민의를 잘 발효시켜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는 자치분권의 항아리이자, 주민참여의 산실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효모 없이는 민주주의를 완성도 높게 빚어낼 수 없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반자로서의 신뢰를 쌓지 못하며, 소통 없는 갈등과 협력의 와해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기반이 현저히 취약하다보니,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살림을 살찌우는 자생력을 키우는 일은 시대적 당면

과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예속이 아닌 대등한 관계를 위한 지역별 맞춤 자치제도를 마련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끌 의정활동의 위상을 제고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법개정(안) 책자』 발간을 축하하며,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징검다리이자, 지방자치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영상위원회 출범식

〈2015.7.27. 천안 갤러리아시티〉

충남이라는 밑그림에 영상이라는 예술 채색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록이 무성한 여름에 『충남영상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과의 문화소통으로 초일류 충남이 되는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전성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과 김인수 충남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오배근 문복위 위원장님 그리고, 미디어 제작과 영화감독 등 영상 분야 최고의 전문가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패러다임은 산업에서 지식과 창조로 변화되어 왔으며, 21세기 경제의 승부수는 문화이며, 문화는 복지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과학에 힘입어 영상으로 진화하였고, 영상은 사회의 거울이 되어 세상과 사람을 연결해 주며 초일류 품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남은 준비된 촬영지입니다. 영상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남이라는 밑그림에 영상이라는 예술을 채색하여 도민과 관객 모두가 행복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영상 속에 우리 道를 담는 숭고한 창작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 활동의 첫 단추는 도민의 자긍심입니다. 모쪼록 『충남영상위원회』 출범을 통해 대중은 충남의 중심이 되고, 충남은 세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정초가 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름다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충남영상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혁신 대토론회

〈2015.7.29. 충남도청 대회의실〉

지역살림의 참 그루터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재정 효율화를 위한 『충청남도 민선 6기 예산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의를 꽃 피우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진경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허심탄회한 소통은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현안의 돋보기가 될 것이며, 논의된 합리적 고견들은 도민의 실생활에 부합하는 건강한 자치재정 정립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궁극적인 가치는 도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충남" 입니다. 이 자리의 열띤 토론은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지역살림의 참 그루터기로 거듭날 것입니다. 도-시군 재정운영체계 개편은 물론, 지방재정 악화라는 실상을 올곧게 알려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성숙한 재정지도를 설계하는 정초가 될 것이며, 도민 스스로 지역살림을 살찌울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혁신 대토론회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혁신적 시도로 건전 재정 운영을 평가하는 시금석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치재정의 수호자로서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아카데미 자유학기제 운영협약 체결
〈2015.8.24. 충남교육청 정책협의실〉

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 되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의정아카데미 자유학기제 운영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홍성현 道 교육위 위원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역할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며, 충남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각양각색 꿈 화분을 정성껏 가꾸도록 돕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이런 까닭에 학교 밖의 다양한 인적자원 개발 환경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합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와 열린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정아카데미와의 협약은 행복 교육 · 행복 충남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역 살림의 미래주역들이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하고 민주적 토론 문화와 리더십을 학습하는 동안 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아카데미 자유학기제 운영 협약』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저지주 의회간 우호교류 방문
〈2015.9.14. 충남도의회 의장집무실〉

미래 100년 공동번영을 향한 계기되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사를 위해 멀리 미국에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주신 고던 엠 존슨 하원의원님, 이종철 팰팍시 부시장님, 그리고 크리스토퍼 제이 정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뉴저지주에는 세계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었고, 지난 7월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자 애쓰시는 고던 엠 존슨 하원의원님을 비롯한 뉴저지주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이종철 팰팍시 부시장님은 태권도 국외 선양은 물론, 한국어가 팰팍시 제2 외국어로 선정되는데 일조하였으며, 교민 및 유학생에게 멘토링과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랑스러운 충남인이자 예산인이십니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우호교류를 향한 열망을 시작으로 2년 여만에 결실을 맺게 된 의회 간 우호교류합의서 체결은 한국과 미국을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로서 견고한 신뢰를 맺는 정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뉴저지주 의회와 우리 도의회는 국제행사 지원과 민·관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것은 물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좋은 형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래 100년" 공동번영을 향한 굳건한 결연을 다짐하며 이 자리를 빛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3.0 충남지역 성과보고회
〈2015.9.11. 충남도청 문예회관〉

충남형 행정혁신의 풀무가 되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과 함께하는 충남을 위한 『정부 3.0 충남지역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의를 꽃피우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백낙구 행자위 위원장, 황명선 논산시장님, 황선봉 예산군수님, 이석화 청양군수님, 박권식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도정과 도민이 한걸음 더 다가서는"충남형 행정혁신"의 풀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시대 기조에 다소 더디게 적응해 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발표될 우수사례는 도민들이 직접 체험한 문제점에 대해 귀 기울여 실생활을 더 편리하고 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든 알찬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토론은 도정에 대한 속 깊은 이해와 따뜻한 소통을 통해 참 전문행정인인 도민에게서 행정을 한수 배우는 생생한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충남도정은 도민의 해바라기가 되어, 수준 높은 공감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성숙한 행정지도의 으뜸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충남도정의 수호자로서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이전 결의행사
〈2015.9.22. 세종시의회〉

세종시 안에 행정한국이 온전하게 있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하게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이전 촉구를 위한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 결의행사』에 울력을 다짐하는 오늘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임상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김인식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님과 이언구 충청북도 의회 의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시 안에 행정 한국이 온전하게 있어야 합니다.

중앙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국가 혁신의 톱니바퀴이자, 상생 발전의 가치척도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청권만의 실익을 위해 결의를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올바르게 지켜지고,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희망찬 미래의 정도(正道)로 가기 위해 함께 하는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충남도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조속이전 촉구를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증진 업무협약식

〈2015.10.7. 도청 대회의실〉

모든 도민이 존엄한 권리 누리는 정의로운 충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약자의 행복에 귀 기울이기 위한 『道 단위 유관기관 인권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업무협약을 위해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이정기 32보병사단 사단장님, 최해영 경찰청 1부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인권은 "공평하게 부여된 인간다울 권리"이며, 그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문득, 학창시절에 배웠던 맹자의 가르침 중에서 측은지심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뜻을 되새겨 봅니다. 약자의 불행을 가슴으로 느끼며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야말로 어질 仁의 본질이며, 인간다움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道의 인권 가로등이 될 5개 기관의 이번 협약은 모든 도민이 존귀한 존재로 존엄한 권리를 누리는 "정의로운 충남"을 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약자의 자유와 권리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道 단위 유관기관 인권증진 업무협약』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 인권선언 선포 1주년 기념식
〈2015.10.13. 도청 대회의실〉

약자의 자유와 권리 수호의 첫걸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민인권선언 선포 1주년 기념식』을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송석두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기념식을 위해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유병국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인권은 모든 정책의 밑뿌리이자 귀결점입니다. 사람을 중히 여기는 가치는 오랜 세월동안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 편견과 맞서며, 함께 누리는 '희망의 약속'으로 세상을 밝혀 왔습니다.

우리 道는 인간답게 사는 충남을 열어가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하겠습니다. 충남의 인권 가로등이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골고루 비추고 있는지 걸음마를 뗀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도민이 존귀한 존재로 존엄한 권리를 누리는 "정의로운 충남"은 지금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약자의 자유와 권리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첫돌을 맞이한 우리 道 도민인권선언 선포』를 축하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환황해포럼

〈2015.11.20.〉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설계하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시아의 21세기를 열어가는 『2015 환황해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뜻 깊은 포럼을 마련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멀리 해외에서 우리 道를 방문해주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님, 쉬지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님, 장샤오밍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님, 추이순지 저장대 정치학과 교수님,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 정치경제대 교수, 그리고 기조발제를 해주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환황해는 해양 실크로드의 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한 · 중 · 일 3국은 동아시아 역사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국가 간 정치 ·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엉켜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은 커다란 진전이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우호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활시위를 잡아 당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는 아시아의 역동적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권 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떠오르며, 금융 · 기술 · 인프라 등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국가로 전락하느냐, 강대

국으로 뻗어나가는 국가로 비상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道는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의 생존전략으로 경쟁이 아닌 공조에 무게를 두고자 합니다. 각국의 지방정부는 분야별로 강점과 보완점이 공존하므로 서로 협력을 공고히 다져나간다면 新 파워 동아시아로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는 아시아 지방정부간 공동 번영을 위한 발돋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동아시아 번영의 불쏘시개가 될 이번 행사를 축하드리며,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강원 · 충청권 토론회 〈2015.11.20.〉

균형발전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국민이 다 함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강원 · 충청권 토론회』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김광수 · 김영길 공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과 내빈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행복의 밑뿌리는 공정한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이라 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복지제도와 경제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 세계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단순히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간적 문제의 해결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혹은 도시 간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건강한 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국가 간의 대결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역사 · 문화 · 환경의 제반 인프라를 고루 갖춘 도시와 지역사회만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자치단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쟁력 확보는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는 비수도권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돋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전국균형발전의 풀무가 될 이번 행사를 축하드리며,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의정대토론회

〈2015.11.20. 충남도청 대회의실〉

어떤 재난에도 끄떡없는 충남 만들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민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행복한 안전 충남을 위한 2015 의정대토론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아주신 김윤호 목원대 교수님과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실 이종화 안건소위 위원장님, 유대준 충남도립대 교수님, 김영택 충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님,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공자(孔子)가 지은 춘추좌전(春秋左傳)에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위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과하지 않은 재난 대응에 관한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안전 관리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의로운 일입니다. 재난안전 대비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고견들이 모여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의 열띤 토론은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어떠한 재난에도 "끄떡없는 충남"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행복한 안전 충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2015.12.1. 부여 롯데리조트〉

범정부 차원 정보 교류의 자리 되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최길영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시·도 운영위원장님!

세계문화유산의 본고장 부여군 방문을 환영하며, 『제11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충남도정과 의정 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들께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 여러분!

지방의회가 부활한 사반세기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연초부터 국민들의 근심거리로 자리 잡았던 극심한 한발과 관련하여 더 이상 국민의 목마른 시름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마련한 뜻 깊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근본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간 정보 교류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머무시는 동안 충남의 멋과 맛에 흠뻑 빠지는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

〈2015.12.7. 온양그랜드호텔〉

지금은 지역발전에 투자할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을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님, 시장·군수님들과 시군 의장님들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발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정한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은 국민이 다 함께 행복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약식에서 '국민의 미래는 성장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데 있다.'라는 지역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일구어 냈지만,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나라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의 자화상(自畵像)이 되지 않도록 균형과 분배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만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확보는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을 돌보고, 살림을 챙기는 참 자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는 것이 道 의회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열 다섯 빛깔 꽃봉오리로 피어나는 충남의 무궁한 번영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 수산비전 보고회

〈2015.12.15. 충남도청 문예회관〉

21세기 해양시대의 리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바다의 번영을 위한 『해양수산비전 보고 및 공동추진 협약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7개 시군 시장 · 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는 개발하기 위한 인간의 자원이 아니고, 보존해야 하는 인류의 유산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피부로 느껴지며 가속화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무게중심은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상 전체 생물의 80%가 살고 있으며, 전 세계 교역량의 90% 넘게 운송되는 광활한 실크로드입니다. 근래 들어, 바다 목장과 바다 숲 조성 등 바다를 살리고 어촌을 풍요롭게 하려는 新 해양자원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수산 · 관광 · 레저 등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충남의 토양 다지기에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어업인 한분 한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무한 경쟁의 바다에서 거센 풍랑과 맞서고 있는 도내 어업인 모두가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210만 도민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도와 시군의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
〈2015.12.28. 충남도청 대회의실〉

농어촌은 인류의 과거 · 현재 · 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아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희망찬 계절에 「스물세 번째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을 시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내 농어업분야 최고의 달인을 발굴하는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은 건강한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서는 충남의 살림을 더 넉넉하게 하고 도민의 행복을 더 넓혀가기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생명 산업의 장인(匠人)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어촌은 인류의 과거 · 현재 · 미래이며, 농어업은 인류의 역사를 성장시켜온 가장 오래된 산업이라 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는 우리 道가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할 현안인 동시에,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블루오션이라 할 것입니다. 사반세기동안 도민과 함께 해온 농어촌발전상은 충남을 깨어있는 농어민 · 도전하는 농어업 · 함께 사는 농어촌으로 발돋움시켜온 복지농촌의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농어업인 여러분들의 든든한 어깨동무가 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충남 농어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경제비전 2030 발표 및 토론회
〈2015.12.30. 충남도청 대회의실〉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계기 되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를 위한 『충남경제비전 2030 발표 및 비전실행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명수 국회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위해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 경제의 강점과 잠재 요인은 물론 취약 부문까지 각 분야별 경제 주체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道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주는 행사라 하겠습니다.

돈은 시대의 흐름이자, 건강한 나눔이어야만 합니다. 경제 주역의 허심탄회한 소통은 직면한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안의 돋보기가 되어 우리 지역 경제를 살찌우고 알토란 충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道는 올해 경제성장률 및 무역수지 전국 최고치를 달성하며 눈부신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잘사는 충남』을 넘어 『다 잘사는 충남』을 고민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道는 이번 토론회의 고견을 바탕으로 충남 안의 미래 경제를, 미래 경제 속의 충남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어떠한 경기 불황에도 끄떡없는 충남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우리 지역의 숨겨진 황금알을 발굴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모쪼록 우리 道 경제인들의 눈부신 발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2015.12.30. 아산 온양관광호텔〉

건강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쉬운 한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기에 『충청남도 생활체육 한마당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충남생활체육회 윤정남, 박완규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시군 선수단 및 道 종목별 연합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시는 허승욱 정무부지사님과 복기왕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오래갑니다. 우리 생활체육회는 20여 년간 충남의 건강 길잡이로서 도민 화합의 사랑방이자,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운동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번 한마당대회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값진 땀방울을 흘리신 체육인들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의 활화산일 뿐 만 아니라, 행복의 품격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풀무라 하겠습니다.

건강은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도민 모두가 건강한 파워 충남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충청남도생활체육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

〈2016.1.14. 충남도청 대회의실〉

도민행복을 함께 만드는 든든한 파트너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심우성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시·군 의장님!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도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군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충남 도정과 의정 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들께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군의회 의장님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한 사반세기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는 유난히 대내외 사건사고가 많았으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의 활시위를 잡아 당겨야 한다는 사례들을 여실히 보여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발판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도민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道 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자리를 함께 하신 시·군의회 의장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한국인권회의

〈2016.3.24. 예산 리솜스파캐슬〉

인권은 사람이기에 갖는 천부적인 권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제2회 한국인권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온 충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권에 대해 앞장서서 고민하며 바람직한 인권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님, 박경서 고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사람답게 살 권리를 타고나게 됩니다. 즉, 인권은 사람이기에 갖는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당연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인류의 역사는 많은 시련을 겪으며 현재까지 걸어왔습니다.

현대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달되고 있지만,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멉니다. 올바른 길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의 인권문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 큽니다. 다행히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등이 '지방정부와 인권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권재단 등의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다양한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 또한 도민 개개인의 인권 의식이 향상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이 해소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활기찬 봄을 맞으며 개최하는 『제2회 한국인권회의』를 축하하며,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회사
〈2016.4.19. 예산 리솜스파캐슬〉

5개국 지방정부의 우정이 활짝 꽃피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소중한 행사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일본 아키타현의회 시부야 마사토시 의장님,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룽씨 부주임님, 일본 니가타시의회 타카하시 미쯔요시 의장님, 러시아 연해주의회 고르차코브 빅토르 의장님, 몽골 중앙도의회 체 뎁 멘드사이항 의장님,중국 옌벤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차광티에 주임님과,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하시며 포럼을 빛내주신, 중국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첸수타오 부주임님, 중국 허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왕전핑 위원님, 일본 나라현의회 나카무라 아키라 의장님을 비롯한 5개국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또한 뜻 깊은 자리에 참석 해 주신 천쥔지에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님, 무라타 켄타로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부일등서기관님,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홍문표 국회의원님, 김지철 충남교육감님, 정묵 수덕사 주지스님, 황선봉 예산군수님과 김영호 예산군의장님, 김석환 홍성군수님, 유찬형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님, 김인배 충남관광협회 회장님,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을 대표하시며 본 포럼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 충남 도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동북아시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환황해권의 발전과 교류의 중심을 꿈꾸는 도시, 이곳 내포신도시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82년간 대전광역시에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21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2013년도에 내포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충남은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백제' 왕도의 후손으로, 1400년 전부터 동아시아 평화와 문화교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충남의 새로운 전진기지인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5개국 지방정부의 우정이

활짝 꽃피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동북아시아 각 지역은 그동안 친밀한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경제협력과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최근에는 유럽, 북미 지역과 대등한 세계 3대 경제축을 형성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동북아시아 5개국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은, 2009년 '중국 옌벤자치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후 5개국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을 함께 모색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해 왔습니다.

1952년 제1대 의회를 시작으로, 현재 10대 의회를 운영하며 도민을 위해 뛰고 있는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해 충남에서 열리게 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습니다. 지역 경제성장률 1위, 청년고용률 1위 등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어느 지방정부보다 높은 '선진 자치도'로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곳이며, 특히, 작년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충남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환황해 중심지역으로서의 비전을 마련하여 서산공항 민항기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고속전철 건설 등 하늘길, 뱃길, 땅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국의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관광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경제적 번영을 함께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후부터는 '동북아시아 지역간 문화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됩니다. 주제에 대한 각 국 지방의회의 정책방향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유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합의사항 발표와 차기 개최지 선정에도 좋은 결실들이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에 참가해 주신 5개국 지방의회 의장단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비록 짧지만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환영 리셉션
〈2016.4.19. 예산 리솜스파캐슬〉

우리는 모두 이웃사촌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바다 건너 대한민국 충청남도를 방문해주신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많은 분들께서 '수덕사' 등을 방문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의 정취를 물씬 느끼는 좋은 시간 되셨는지요. 아울러 개회식을 비롯해, 각 의회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면서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 발전과, 문화 및 관광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누는 보람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대한민국의 전통 음식과 함께 국악도 감상하는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내일 또는 모레까지 대한민국 충청남도가 자랑하는 '백제문화단지'와 '공주 무령왕릉', '세계 꽃 식물원'과 '현대제철 공장'등을 둘러보시며 알찬 시간들을 보내실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단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예로부터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은 혈육을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번 방문은, 5개국 지방의회가 '이웃사촌'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화합과 교류를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머무시는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며 편안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배사) 그럼 반가운 마음들을 잔에 담아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소망하시는 것들이 많겠지만, 이 자리에서의 공통된 마음은 한가지 일 것입니다. 제가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의 영원한 발전과 우정을 위하여'라고 외치면, '위하여'라고 크게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의 영원한 발전과 우정을 위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식

〈2016.6.10. 충남연구원〉

충남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시기에, 충남연구원이 개원 2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남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어느덧 듬직한 성년의 모습이 되었음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님과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며 함께 공유하는 민생 정책의 '아이디어 뱅크'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그동안 흘리신 땀방울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환황해권의 중심을 꿈꾸는 충청남도의 활기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 충남연구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도의회도 210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언제나 도민의 마음을 최우선에 두며 충남연구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남연구원 개원 2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창의적인 도정 정책을 선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전반기 충청남도의회 결산 기자회견
〈2016.6.13. 충청남도의회 기자실〉

앞으로도 의원으로서 역할 다해 나갈 것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장 김기영입니다.

지난 2년간,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이라는 '제10대 충남도의회 3대 의정비전'을 실천하고자 도의회를 대표하여 충실하게 노력해왔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큰 과오 없이 소임을 다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와 우리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21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돌이켜보면 의장으로 선출될 당시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도 무엇이든 다할 수 있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움도 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소중한 기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총 17회, 255일 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34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91건을 포함하여 각종 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의·의결했던 사항이 234건으로 활발한 입법활동 노력이 특히 돋보인 시기였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및 5분 정책발언을 총 342건 실시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874건의 시정 및

처리, 제안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모임도 다양하게 운영하여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갔으며,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 17건의 결의안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등 3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여론을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의 상임위원회와 여섯 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들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는 차별성이 부족한 '3농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장기표류 했던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의 불씨를 재점화하는 등 도정 주요정책들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끄는 데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방의회와의 우호 교류를 활성화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와 관광, 체육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와 중국 '지린성', '윈난성', '헤이룽장성' 등 4개 의회와 새롭게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4개국 10개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2016년 4월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제7회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을 개최하여 동북아지역 공동번영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제헌헌법과 함께 시작된 지방자치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이를 재건하는 시기에 유보되었다가 1991년 7월, 30년 만에 부활하였고 어느덧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중앙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음에 가슴 뿌듯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중앙에 집중되어있는 세수구조는 지방재정의 열악성을 더해나가고 있으며,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문제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의회가 의회답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제10대 의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며 지방 발전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19대 국회에서 지난 해 말에 무산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전국 의회에서는 그 열정이 여전히 뜨겁기만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한편 우리 도의회에서도 '제10대 하반기 원구성'을 내실있게 꾸려서 의회가 최고의 정책 결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우리 도의회와 함께 충남의 미래를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2014. 7. 1 ~ 2016. 6. 30)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도민과 함께
(2014년도)

생활개선회장단 수련대회

〈2014.7.10. 리솜스파캐슬〉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농촌만들기의 주역

충남여성농업인 여러분!

「생활개선회장단 수련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농촌을 이끌고 계신 여성농업인 지도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숙하 회장님을 비롯해 행사준비를 위해 수고 하신 생활개선충남연합회 관계자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생활개선회장단 여러분!

1958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피폐했던 시기에 농촌의 생활개선을 위해 우리의 어머니 세대에 출발했던 「생활개선구락부」가 농촌을 대표하는 여성단체로 자리매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릿고개를 넘기며 어려운 시기를 감내하였고 농촌생활 개선과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 그리고 농업발전을 이끌며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 오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펼치시는 전통향토음식 발굴운동과 로컬푸드 확산, 도농교류 활성화 등 많은 노력과 봉사활동은 분명 살기 좋은 우리농촌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가는데 여성농업인의 편에 서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도 생활개선회의 활약을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만들기' 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1박 2일간의 이번 행사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고 회원간 결속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수련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2014.7.28. 천안 유관순체육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란 없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오늘 전국 최대 규모로 우리도에서 열리는 「제8회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를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원식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회장님, 이은영 충남연맹회장님, 그리고 박노철 충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등 대회관계자 여러분들!, 대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갑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패럴올림픽 보치아 종목에서 7연패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보치아의 위상이 실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수한 두뇌와 손재주를 지닌 민족의 기질 때문일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보치아선수단 여러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란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올림픽 선수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 끔찍한 사고나 죽음의 질병에서 살아남은 많은 생존자들은 거의 전부가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이미 그런 밝은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겠지만, '할 수 없다' '실패했다' 보다 '할 수 있다' '해 냈어'의 비중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장애를 뛰어넘어 만족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선수단

여러분,

스포츠대회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이며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더해주는 화합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열심히 연마하신 실력 맘껏 발휘하시며, 나흘간의 일정 속에 동료들과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8회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선수단 여러분 모두의 선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2014.8.7. 서산 농어민체육센터〉

지방행정의 주역, 소금 같은 존재

이·통장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회 충청남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사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과 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헌태 이통장협의회 충남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이 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읍·면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통장님들의 손에 의해 전달되어 이루어집니다. 또한 마을에서의 어려움과 민생의 목소리가 이·통장님들을 통해 일선행정에 바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통장님들의 역할은 지방행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정말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천4백 충남 이·통장님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내 고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어진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항상 이·통장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통장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즐거운 날입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하신 자리일 테지만, 일상의 노고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는 날려 버리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4년도 이통장 체육대회」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이·통장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통장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대항전
〈2014.8.8. 홍주종합경기장〉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 유지하시길

탁구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예산'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탁구 애호가 여러분의 경쟁과 화합의 장이 될 「제5회 충청남도 생활체육 탁구동호인 대항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러져 즐길 수 있게 의미 있는 대회를 준비하신 신현달 충남장애인탁구협회장님을 비롯한 협회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道와 예산군장애인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탁구동호인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 탁구만한 운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으로 하는 스포츠지만, 어떤 운동보다 힘 있고 재미를 주는 종목이 탁구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날씨와 상관없이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창출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우들에게는 단순한 스포츠 활동이 아닌 재활치료와 사회활동을 겸할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경기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탁구와 함께 꾸준히 운동하며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많은 도민들이 탁구를 비롯한 생활체육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관심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동호인 여러분 모두, 모쪼록 그동안 갈고 닦으신 기량 유감없이 발휘하며 오늘의 대회가 승패를 떠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자리로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대회에 참가하신 탁구동호인 여러분께 거듭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충남탁구애호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선수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집짓기 20호점 준공식

〈2014.8.11. 예산군 대흥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기적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기분 좋은 장소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마음이 상쾌합니다.

흔히들 이야기 하듯이 꿈, 믿음, 희망, 사랑! 이런 좋은 것들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꿈은 꿈을 부르고, 믿음은 믿음을 더하고 희망은 희망을 낳으며, 사랑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와 대전MBC가 함께하는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바로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기적'을 우리사회에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년 여간 훌륭한 일을 해 오신 김택환 회장님을 비롯한 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 여러분과, 김창옥 사장님을 비롯한 대전MBC 관계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사랑의 집짓기 20호점 준공을 축하드리며, 오늘 예쁜 집을 선사 받으신 이대근 님의 가족에게도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좋은 보금자리와 함께 다섯 식구가,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뱃속의 아기까지 온 식구가 더욱 알콩달콩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집' 20호점 준공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농민 전진대회

〈2014.8.21. 아산시 신정호〉

농업에 과감한 체질개선 이루어져야

농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농민회 여러분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는 충남농민 전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장명진 충남도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에 대한 애정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많은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농업 가족 여러분!

우리가 농업을 중시해야하는 이유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국가발전의 기초산업이자 생명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농업현실은 주지하다시피 급속한 고령화와 농업인구의 감소, 그리고 지속되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WTO의 쌀 관세화 유예종료를 앞두고 20년간 닫아두었던 쌀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정부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쌀은 우리 농업 소득의 40%을 차지하는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협상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또한 충남농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 우리의 농업은 산업화시대를 맞이한 이후 침체일로에 있었

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큰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흔히들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위기와 기회의 차이는 대처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과 적극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생산과 유통혁신, 그리고 소비자 운동 등 더욱 많은 노력들이 시도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 농민회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큰 결속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14년 충남농민 전진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쪼록 오늘의 전진대회가 보다 발전적인 지혜를 모으고 우리 농업에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계기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충남농업과 농민회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회장 취임식
〈2014.8.22. 청양 아리랑예식장〉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회장님 취임식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대규 제11대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힘찬 격려와 성원의 박수로 회장님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축하의 자리를 함께해주신 각급 기관장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김명환 총재님을 비롯한 자유총연맹 가족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이 취임하시는 최대규 회장님께서는 누구보다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자유총연맹 발전에 헌신해 왔음은 물론, 지역의 대소사에 늘 앞장서 오셨습니다.

앞으로 최대규 회장님이 중심이 되어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더욱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자유총연맹은 54년도에 출범하여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격랑기를 헤쳐온 유일한 이념단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자유총연맹의 노력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최대규 회장님을 구심점으로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의 새로운 닻이 올랐습니다. 다 같이 밝은 앞날을 성원해 주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 드립니다.

자유총연맹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사회 결속과 자유수호의지 함양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여러분과 노력을 같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로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 새농민 전진대회

〈2014.8.27. 공주 백제체육관〉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현실 극복해야

존경하는 김백수 道회장님을 비롯한 충청남도의 새농민 회원 여러분, 이렇게 함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새농민회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2014년도 충남 새농민 전진대회」가 백제의 고도 공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자리를 같이 해주신 안희정 지사님, 박수현 의원님, 우리도의회의 윤석우, 조길행 동료의원님과, 오시덕 공주시장님, 이해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공주시의원님들, 그리고 김병문 농협지역본부장님과 여러 조합장님들을 비롯한 충남농업지도자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새농민회원 여러분!

우리의 먹거리 시장이 나날이 개방화되고 정말로 어려운 농업환경이지만 선진농업을 이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문제를 힘들게만 보지 말고 헤쳐 나가는 적극적인 도전정신에 있고 생각합니다.

바로 새농민회에서 자립, 과학, 협동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농의 과학화와 농가소득 증진노력 등 많은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충남의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필요한 예산이든 지원 대책이든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행사가 회원 서로간의 화합과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고, 충남농업의 발전을 이루는 다짐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2014.8.29. 공주산업대 체육관〉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려온 원조한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2회 도지사기 시·군 대항 태권도 대회가 개막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절의 고장 예산에서 이렇게 훌륭한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나동식 도협회장님과 김인성 예산군 협회장님을 비롯한 충남태권도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관람객 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를 바탕으로 창시되어 전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한류문화가 주목 받기 훨씬 이전에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려온 원조한류가 바로 태권도입니다.

특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우리말로 경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때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존경하는 충남 태권가족 여러분!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태권도를 수련하고 알리는 데 더욱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흘 동안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서 평소 연마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태권도의 매력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道대표선수선발을 겸한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선수가 발굴되고 육성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 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군 선수와 임원 등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2014.9.2. 충남도청 별관로비〉

따뜻한 관심이 자살예방의 첫걸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사랑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사준비에 수고하신 안병은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허승욱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영문 정신보건지원단장님과 도내 9개 보건의료기관장님 등 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세모녀 자살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들 말합니다만, 우리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무관심보다 무서운 병이 없다'는 말의 의미처럼, 큰 물질적 도움이 아니더라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서로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 함께 이루어낼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민과 관이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루어질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간 업무협약'이 바로 그런 좋은 협력사례입니다. 업무협력을 위한 노력에 도내의료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명존중 · 생명사랑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공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14.9.4. 천안 종합운동장〉

희망에너지가 퍼져나가는 자리 되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가을의 신선함이 더해 오는 계절에 충남 시각장애인들의 화합과 선전이 기대되는 「제8회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어둠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 도전과 의지를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신 각 시·군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참가선수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신 자원봉사자와 진행요원 등 복지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대회를 훌륭하게 준비하신 김병환 회장님을 비롯한 道시각장애인스포연맹과 복지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참가 선수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는 가장 기본조건은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에 찬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장애에 좌절하지 않고 생활스포츠를 통해 활력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체육대회가 여러분의 희망에너지를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기 위해 늘 헌신하시는 장애인단체와 기관 종사원 여러분에게도 보람을 안겨 주는 대회로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의회도 사회적 약자를 늘 우선시 여기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8회 충남시각장애인 체육대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풋살대회
〈2014.9.4. 보령 아주자동차대학교 운동장〉

행복은 조건이 아닌 노력의 산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충청남도장애인 풋살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신체적 어려움을 스포츠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대회에 참가하신 각 시·군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하신 가족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성심을 다해 대회 준비에 수고하신 김상석 道장애인축구협회장님과 권광선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애우 풋살 선수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닌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풋살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생활에 활기를 더해 가시길 기대합니다.

선수여러분, 오늘 대회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며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이기도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사가 그렇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참가 선수단 여러분께 파이팅을 주문하며, 한명의 부상선수도 없이 알찬 대회 마무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한 가을 초입에 이르렀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맞이 영상메시지

〈2014.9.5. 의장 집무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명절 되길

존경하는 충남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 입니다.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여러분,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가위는 여름과 가을의 중간에 맞이하는 어느 해보다 때 이른 명절입니다. 농가에 부담을 주는 시기입니다만, 고향 농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주변에는 명절이면 더욱 쓸쓸한 분들이 많습니다. 관심과 애정의 작은 손길이 큰 위로가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충남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우리도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노력하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210만 도민여러분!

한가위 둥근달 보시면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옛이야기축제 개막식

〈2014.9.18. 예산 무한천둔치공원〉

문화와 예술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

예산군민 여러분, 찾아주신 내빈과 방문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군의 넉넉한 자연과 이야기로 채워지는 '일곱 번째 예산옛이야기 축제'의 개막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물질은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문화와 예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펼쳐지는 축제의 장이 예산의 넉넉한 인심과 함께, 우수한 우리지역문화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며 풍성해 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정성스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권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예산군 관계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옛이야기 축제가 충청남도최우수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지역축제로 거듭 발전해나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맘껏 즐기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2014.9.19. 홍주종합경기장〉

참가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승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코스모스가 반가운 손짓을 하는 계절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시기에 열리는 「제20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1995년 소박하게 시작했던 대회가 어느덧 성년을 맞이했고, 장애인체육대회는 그동안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나누는 장으로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먼저, 이처럼 의미 깊은 대회를 준비하며 애써주신 김석환 홍성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 관계자와 군민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하여 박노철 사무처장님 등 道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참가선수단 여러분!

스포츠의 매력은 도전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희와 진한 감동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승리자일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며, 함께하신 가족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수단 여러분!, 장애인 체육은 건강증진 뿐 아니라 여가선용과 사회참여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1석3조의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체육활동과 함께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도의회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20회 대회가 장애라는 벽을 뛰어 넘어 도민 모두가 함께 화합하는 소중한 자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선수단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2014.9.19. 서천 국민체육센터〉

어르신 건강이 우리 사회의 건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들녘이 황금빛으로 변해 가는 풍요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기에 아름다운 서천에서 존경하는 어르신들의 잔치인 「2014 충청남도 어르신체육대회」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며 정성껏 대회를 준비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생활체육회 여러분, 그리고 김정철 서천군생활체육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가 선수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신 노박래 서천군수님을 비롯한 서천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신 많은 내빈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요즈음은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100세시대로 성큼 다가가고 있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어르신 여러분들의 비중은 그 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우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어르신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야 우리사회가 더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도 "운동은 밥이다"라는 슬로건 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겠습니다. 우리도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가 선수여러분,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연마하신 기량을 맘껏 펼치시고 성취의 기쁨도 만끽하시며 오늘 하루 즐겁고 유쾌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4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수석인연합회 수석대전

〈2014.9.19. 예산 무한천둔치〉

경이로운 대자연의 축소판

수석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낭만과 어우러지는 '2014년 수석대전'이 의좋은 형제가 살았던 아름다운 고장 예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예산 옛이야기 축제'를 기념하며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축제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석대전 준비를 위해 정성을 다하신 충청남도수석인연합회 강석주 회장님, 윤동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수고로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수석애호가 여러분! '수석은 자연의 오묘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산수의 온갖 풍경을 닮아 아름다운 빛과 형상의 다양함을 담고 있는 수석을 보노라면 경이로운 대자연의 축소판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자연의 아름다운 미를 찾아내는 일은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노력과 미적 안목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을 누비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작품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많은 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많은 관람객이 수석작품들을 감상하며 여유로움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으로써 수석문화의 저변이 확대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스물한 번째 충청남도수석인연합회의 수석대전 개최를 축하드리며,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수석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통일 충남도대회 및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
〈2014.9.19. 금산 다락원〉

통일은 우리 민족의 큰 축복

여러분, 반갑습니다.

맑은 하늘이 높아져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처절했던 육백고지 전투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있는 충절의 고장 금산에서 「2014년도 민족통일충청남도대회」와 「제45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족상생과 공영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광석 회장님을 비롯한 민족통일 충남도협의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많은 내빈여러분과 금산 군민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족통일 회원여러분! 조국 근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은 남북분단입니다. 1945년 그어졌던 38°선이 민족전쟁을 거쳐 고착화되어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족평화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확고하지만 세월의 깊이만큼 고민의 심도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민족에게 큰 축복일 될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올바른 통일관의 확립과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통일운동단체의 선도자로서 통일세력 육성과 국민화합 노력, 각종 홍보사업 등 민족통일협의회의 많은 사업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민족통일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우리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통일염원이 바람직하게 도민들 사이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2014년 민족통일충청남도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조국의 안녕과 올바른 통일관 확립을 위한 민족통일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노력이 희망찬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한민족통일문예제전에 참가하시어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민족통일충남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관광의 날 기념행사

〈2014.9.19. 온양 관광호텔〉

우리 충남만의 경쟁력 마련해나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충남관광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광종사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적으로 하늘이 청명해지고 산으로 들로 놀러가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충남관광산업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제41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가 이곳 관광휴양도시 아산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선균 충청남도 관광협회장님과 관광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빈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광가족 여러분!

'굴뚝 없는 산업', '황금알을 낳은 거위'이자 '창조경제'의 중요한 핵심 블루오션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관광객 한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은 중형차 한 대 수출한 것보다 많고, 외화가득률은 반도체의 2.5배, TV의 1.4배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관광객 26명이 늘어나면 일자리 한 개가 늘어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관광수지는

아직까지 적자인 것이 현실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관광 종사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지만, 아직은 열악한 것이 우리의 관광산업입니다.

그렇지만 고무적인 것은 관광수지도 급속히 개선되고 있고, 한류열풍이 꺼질 줄 모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온 서해안 시대에 우리 충남에게도 관광산업이 정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찬란한 고대백제문화의 유산이 있고, 수려한 바다와 강산 등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문화와 이야기를 합쳐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도의회에서도 더욱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마흔 한 번째를 맞이하는 관광의 날을 맞이하여 관광산업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는 오늘의 자리를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영예로운 유공표창을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거듭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충남관광산업과 충남관광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관광종사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저의 인사를 갈음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2014.9.21. 천안 독립기념관〉

젊은 끼와 에너지 맘껏 발산하길

인간을 정의하는 말로 '호모 루덴스'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생존본능 외에도 유희하고자 하는 본능이 존재합니다. 유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삶에 대해 더 강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으며, 지루한 일상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청소년 댄스페스티벌에 참가하신 청소년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그 의미를 몸소 체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춤을 통해 젊은 끼와 에너지를 발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멋지고 부럽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대한민국 흥과 춤의 메카인 이곳 천안에서 펼쳐지는 「제3회 전국청소년 댄스페스티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치열한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오르신 전국 29개 참가 팀원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시며 매순간을 최선을 다해 헤쳐 나가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의 축제를 즐기시는 마음으로 대회에 임하며 그동안 연습하신 실력을 맘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윤광희 충남신문사 대표님과 임상구 대회장님, 그리고 충남도의회 동료의원님이신 홍성현 추진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이 계절에 청소년 여러분의 댄스축제가 흥겹게 마무리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서각예술 대제전

〈2014.9.21. 태안 문예회관〉

정성으로 아로새긴 각자장의 영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낭만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을의 정취와 딱 맞는 것이 서각작품의 깊이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작품들로 다시 찾아온 열한 번째 「충남 서각예술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멋진 서각예술의 세계를 도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좋은 작품들을 모으고 순회전시회 자리를 마련하신 채태선 한국서각협회 충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마다 기품과 멋스러움으로 무장한 작품들을 출품하시어 전시회를 빛내주신 서각예술인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각은 혼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스레 나무를 고르고 다듬어 작가의 마음을 글과 문양으로 새기는 과정은 각자장(刻字匠)의 영혼을 담는 과정일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고도 깊이 간직되어 마땅한 소중한 글귀가 입체감 있게 각인되어져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서각작품입니다. 그리고 수 만 마디의 장문보다 단 한 글자의 힘으로 돈오점수(頓悟漸修)의 경지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서각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각예술인 여러분! 모쪼록 정성으로 아로새긴 여러분들의 작품들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성취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더욱 정진하시어 훌륭한 작가로 거듭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1회 충남 서각예술대전」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충남 서각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한 베트남인 위문공연 축하영상메시지
〈2014.9.23. 홍성군청 여하정〉

재한 베트남인은 소중한 우리 가족

베트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딛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3만 재한 베트남인들는 한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배트남인들에게 큰 힘이 될 위문공연단의 우리 충청남도 방문을 환영하며, 서로 간에 관심과 애정으로 한국과 베트남간의 동반자적 관계자 더욱 강화되길 기원합니다.

충남여성농업인 농산물 홍보한마당
〈2014.9.23. 논산 연무체육공원〉

새로운 시작 단결의 힘으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충남여성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열리는 「2014 충남여성농업인 농산물 홍보한마당」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이길성 道연합회장님과 김희숙 논산시연합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여성농업인 충남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많은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여성농업인 여러분! 그동안 바쁜 농사일에 땀 흘리시고, 가정에서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어머니이며, 우리농업의 주인이십니다.

농업인구의 감소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농업종사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농업이 가공과 유통은 물론 체험교육,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6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기여에 비해 그 처우와 평가는 아직도 기대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고 그에 걸맞은 대우와 권익향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의회 또한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 단결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행사가 서로 간에 화합과 끈끈한 결속을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여농 회원여러분께서 기울인 노력들이 알찬 수확으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2014 충남여성농업인 농산물 홍보한마당」 행사를 축하드리며, 우리 농업의 발전과 여성농업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2014.9.23. 예산 리솜스파캐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더욱 기울여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감사의 계절에 훌륭하신 분들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의 보다 큰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박수현 회장님을 비롯한 충남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념식 자리를 빛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복지유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자리는 사회복지라는 커다란 시대적 소명을 받들며 최선을 다하는 분들의 고마움을 다시금 조명해 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이 함께 하며, 충남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나누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가족 여러분!

사람은 본래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고 계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의회 또한 여러 사회복지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사회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은 부족한 분야가 복지영역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분들을 위한 배려의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도우며 모두가 합심하여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사회 행복지킴이가 되어주시고 계신 충남사회복지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남사회복지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생활 어르신 및 근무자 한마음대회
〈2014.9.23. 서천 국민체육센터〉

'정'이 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지가득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가을날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흥겨운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를 맞이하게 되는 「시설생활어르신 및 근로자 한마음대회」 개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오늘의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용 충남노인복지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축하와 격려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정"이라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다양한 사정에 의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게 되었지만 서로 간에 따뜻한 "정"을 느끼시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시설 근무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근무자 여러분들이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아들, 딸, 며느리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시설면이나 근무여건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을 보살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내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의회도 시설생활 어르신들의 복지와 종사자분들의 애로사항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원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과 복지시설 근무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날

입니다.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의 정을 확인하며 화합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어르신 여러분께서 평소 갈고 닦으신 장기자랑도 맘껏 뽐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삶의 동기를 늘 간직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기 바라며, 충청남도노인복지협회와 도내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복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만수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계룡 軍문화축제 축하영상메시지

〈2014.9.23. 의장 집무실〉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전세계인의 축제

대한민국 국방의 메카 계룡시에서 육·해·공의 군과 국민이 하나 되어 수놓는 「2014 계룡軍문화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키는 힘, 누리는 평화」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국군의 당찬 기상과 참 모습이 국민들에게 굳센 믿음으로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보고, 듣고, 체험하며 평화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계룡軍문화축제가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전세계인의 군문화축제로 거듭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백제문화제 축하영상메시지

〈2014.9.23. 의장 집무실〉

대백제인의 기상이여, 일어나라

아름다운 가을, 대백제로 떠나는 여흘간의 축제의 여정이 시작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년, 찬란한 고대백제문화의 얼과 조상님들의 발자취를 뒤돌아보았던 백제문화제가 6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백제인의 기상과 문화의 우수성을 전승하기 위한 문화축제가 도민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찾아오신 관람객들에게는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 명품축제로 지속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2014.9.25. 공주 금강둔치공원〉

충남의 안전과 도민 행복의 파수꾼

충남의용소방대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풍요와 인정이 넘치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의용소방대원의 기술경연과 화합을 위한 「2014년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이호명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우리 도의회의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오시덕 공주시장님과 각 시·군의원님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1만여 충남의소대원 여러분들이 있기에 210만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 생업에 종사하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재난·재해의 현장에서, 또한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인명구조 등에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만,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위험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충남의 안전과 도민의 행복을 지킨다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도의회에서도 선진 재난안전시스템 구축과 대원여러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과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각 시·군 대원들이 모여 겨루는 기술경연의 자리를 통해 평소에 틈틈이 훈련해 오신 각종 소방기술을 점검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동안 많은 봉사활동으로 지치고 고단했던 일상들은 접어두고 재충전하는 즐거운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원 여러분의 건승과 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

〈2014.9.27. 공주 백제체육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선진한국 건설의 주역

한국자유총연맹 회원과 지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찬란했던 대백제의 고도 공주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창립60주년을 기념하며 성대하게 열리는 「제6회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 대회」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최대규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우리도의회 윤석우, 조길행 의원님 등 많은 내빈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자유총연맹 회원여러분!

60여 년 전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오며 열심히 뛰어온 결과일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앞장서 온 자유총연맹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사랑과 통일안보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신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분단의 역사도 어느새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평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삐걱거리는 남북협력사업, 그리고 대북문제를 매개로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이념갈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자리에 모이신 자유수호 지도자 여러분께서 더욱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많은 노력들에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자유총연맹 회원님들과 북한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오신 이주민들이 하나 되는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며 화합과 우정을 도모하는 어울림의 축제가 되는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국자유총연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장애학생 체육대회

〈2014.9.27. 홍주종합경기장〉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의 것

아름다움이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에 장애인 체육 꿈나무들의 축제인 「2014년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안희정 충남장애인체육회장님을 비롯한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여러분과 변현수 회장님을 비롯한 충남장애인육상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특히 충남장애인학생체육에 든든한 힘이 되어준 삼성SDI 천안사업장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여러분과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학생들에게 체육은 건강증진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물론 경쟁의 속성을 담고 있지만, 협력과 소통, 교감의 정신이 그 바탕에 있기에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활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학생선수 여러분!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힘찬 격려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장애란 불가능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참가 선수여러분,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충남도의회도 장애학생선수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학생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모쪼록, 선수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이번 대회가 더 큰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회준비를 위해 수고 하신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2014.9.27. 계룡 시민체육관〉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해 나갈 것

보육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보육현장에서 고사리손의 어린 아이들과 하루를 함께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제12회 충청남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 깊은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이상수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는 등 보육정책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평가인증제 요구 등 요청사항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육에 대한 공공성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육교직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근무시간과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보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소명의식으로 묵묵히 근무해 오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우리도의회에서도 보육교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육교직원 여러분!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집니다.

행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며,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더욱 힘을 내시라고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모쪼록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는 마음껏 푸시고 서로 간에 친목과 재충전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애국정신문화 영어말하기대회
〈2014.9.27. 천안시 교육지원청〉

청소년의 가치관이 우리의 미래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민족관을 심어주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기 위한 「2014 청소년 애국정신문화 영어말하기 대회」가 유관순 열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천안에서 개최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대회를 준비하신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의 박인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독도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제대로 알리고 힘을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국정신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영어말하기 대회가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미래의 주역이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동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관이나 민족관은 퇴색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역사인식에 있어서도 많은 왜곡된 인식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같은 어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큽니다만, 청소년 여러분께도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회 참가 학생 여러분! 미래의 지도자로 커나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말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구촌 시대에 영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대회에 참가하신 학생 여러분의 훌륭한 애국정신이 그동안 열심히 학습하신 영어로 충실하게 발표되어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2014.9.30. 부여 종합운동장〉

깨워라 백제의 꿈, 펼쳐라 충남의 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참가 시·군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내빈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가을의 정취와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계절에 대백제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 부여에서, 210만 도민화합의 제전인 「제66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대한 대회를 마련하고 환영해 주신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부여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흔히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일컬어집니다. 그것은 스포츠가 지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함께, 경기를 임하는 사람이나 보는 이들에게 환희와 좌절, 감동과 희열을 선사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해 타계한 평화의 상징이신 넬슨 만델라는 "스포츠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6년 동안 매년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자리를 함께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깨워라! 백제의 꿈, 펼쳐라! 충남의 힘"이라는 구호아래 펼쳐지는 이번 도민체전도 강인한 기상을 가진 대백제인의 후손인 충남도민에게 굳센 의지를 심어 주고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60회를 맞이한 백제문화제와 함께하는 이번 대회가 문화체전으로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모쪼록, 대회에 참가하신 7천 참가 선수와 임원여러분 모두 4일간 펼쳐지는 일정 속에 건강하게 후회 없는 실력 펼치시고, 아름다운 우정 나누시길 바랍니다. 대회 준비에 애쓰신 부여군민 여러분과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 온통박람회
〈2014.10.3. 덕산 대한민국온천대축제장〉

같이 배우고 나누고 공유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군의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온천대축제와 함께하는 「2014년도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평생학습 온통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남은 배움으로 온통(溫通)"이라는 슬로건이 온천의 이미지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은 배움과 나눔, 그리고 따뜻함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열어 주고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식을 공유하고 나눔을 통해 온정을 더해가는 우리사회를 만들자 것이 온통박람회의 취지라고 이해됩니다.

이렇게 뜻 있는 박람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김광식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민의 평생교육에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평생학습도시 선포를 하게 되는 예산군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문맹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교정하고 재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배우기를 멈추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만, '때때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역설한 공자님 말씀처럼, 늘 즐거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온통 박람회의 취지처럼 평생학습이 개인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배움공동체, 나눔공동체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도의회 또한 도민들의 평생학습기반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평생학습 박람회가 온천대축제를 찾아오는 많은 관람객들에게도 열기를 더해주는 공간으로 성황리에 치러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남지구 JC특우회 우정의 날
〈2014.10.3. 덕산 리솜스파캐슬〉

인류에 대한 봉사 실천해 온 진정한 리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가을날, 대한민국온천대축제가 열리는 예산 덕산에서 「제24차 충남지구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역사적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예산을 방문하신 JC특우회 회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며 오늘 행사를 정성껏 준비하여 주신 신성철 충남지구회장님과 박종민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JC특우회 회원여러분! 젊음을 지역사회와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인류에 대한 봉사'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JC의 신조는 각박해져 가는 우리사회를 지탱하게 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JC의 신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도 많은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한 조직이 '청년회의소'였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조국애와 참 봉사정신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JC의 참 정신을 사랑하는 저도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4차 우정의 날」 행사를 축하드리며, 회원님 간 우정과 친목이 더욱 돈독해지는 가운데 충남지구JC특우회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온천축제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간직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2014.10.8. 논산 공설운동장〉

불편함은 있어도 외로움은 없어야

황산벌의 기백이 살아있는 논산에서 「제12회 충남농아인체육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말하며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며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농아인 선수여러분과, 사랑과 헌신으로 뒷바라지 해 오신 가족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회준비에 수고하신 충남농아인체육연맹 한영희 협회장님과 이효순 논산시지부장님, 그리고 박노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등 대회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신 많은 내빈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농아인 여러분들이 충남도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배려하며 온정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농아인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함께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외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농아인 선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멋있는 것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가 됩시다.

오늘 대회 준비에 정성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농아인 가족과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 대회
〈2014.10.8. 충남도청 문예회관〉

말과 글이 그 나라의 국격과 국력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듯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인정하는 가장 단순하고 쉬우며 과학적인 문자가 한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우리말에 대해 겨루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가 쉬운 우리말을 어렵고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던 주시경 선생께서도 언급했듯이, 말과 글이 거칠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도 거칠어지게 되고 그것이 국격과 국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568돌 한글날을 기념하며 열리는 「우리말 겨루기 대회」가 우리말의 참맛을 전달하며, 우리말을 좀 더 아름답게 사용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대회를 준비해 주신 상명대학교 김미경 국어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회에 참가하신 학생과 결혼이민자 여러분 등 도민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

〈2014.10.10. 홍주종합경기장〉

생활체육은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

충남생활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과 의병의 고장 홍성에서 열리는 「제23회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활체전이 도민 대화합을 이끄는 축제의 장으로 210만 도민들에게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훌륭한 대회를 준비해 주신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충남생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

건강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관점을 넘어 사회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활체육활성화는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가 됩니다. 체육활동은 건강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체력은 국가발전의 큰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건강한 생활문화 조성과 체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며 지원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전 참가 선수단여러분!

스포츠가 매력적인 이유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과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3일간의 열전을 통해 그동안 연습하신 기량 맘껏 발휘하시고, 승패를 떠나 세대를 초월하여 단합하며 따뜻한 우정을 함께 나누는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23회 충남도민생활체전」 개최를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대축제

〈2014.10.10. 대전 농수산물 도매시장〉

아줌마가 우리 농업살리기의 주역

영국속담에 "남자는 집을 만들고 여자는 가정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편안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데는 여성, 즉 아줌마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여자라고 하면 약한 존재지만, 어머니라고 하면 왠지 강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줌마라면 그 뉘앙스는 또 달라지 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아줌마라는 유머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충청투데이가 2003년도에 시작하여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아줌마 대축제'는 그런 아줌마의 힘을 인정하고 그 노고를 위로 · 격려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또한,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는 아줌마의 힘을 빌려 지역의 농수산물의 판로를 활성화 시켜 보자는 지역농촌 · 농업 살리기 운동이기도 합니다.

우리 농촌의 위기는 우리 밥상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정에서 밥상을 책임지는 어머님들은 안전한 먹거리가 큰 걱정이고, 산지의 농가에서는 높아지는 생산비와 개방화의 파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밥상에 올리고 가정의 건강을 챙기며, 지역 농가와 농업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펼치는 운동이 '로컬푸드 운동'입니다.

'아줌마 대축제'는 그런 로컬푸드 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며 아줌마의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모으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리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데 500만 충청인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축제의 기분으로 즐기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줌마 대축제'를 통해 우리의 뿌리인 농촌과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커지고 지역경제의 분위기도 되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뜻 깊고 성대한 축제를 마련해 주신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후원이 되어주신 많은 기업과 기관 · 단체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좁아지면 밥상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해 주실 것을 500만 충청인과 충청투데이 독자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며, '2014년도 아줌마대축제'의 성공과 이 땅에 아줌마와 모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사진대전

〈2014.10.10. 당진 문예의 전당〉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만나다

가을의 낭만이 물들어 가는 계절에 성대하게 열리는 「제44회 충청남도 사진대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시어 입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사진대전 준비에 수고하신 최영근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그리고 공정한 심사로 권위를 드높여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44회째를 맞은 충청남도 사진대전은 해가 거듭될수록 사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폭되면서 충남을 대표하는 품격 높은 대회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진하면 떠오르는 한마디는 '순간 포착'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은 찰나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진도 똑같은 사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진의 매력이며 단 하나뿐인 우리 인생과도 닮은 점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독특한 시각이 사진에 투영되어 있어 세상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접하며 삶의 여유를 느껴 볼 수 있는 것도 사진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사진작가 여러분, 이번 사진대전에서도 특색 있고 아름다운 다양한 작품을 출품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폭을 넓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출사와 함께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그 속에서 보람도 만끽하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함께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합동이장 영현봉송식
〈2014.10.10. 예산 충의사〉

호국영령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존경하는 무공수훈자회 회원여러분!

보훈가족과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여러분!

오늘 6.25 참전유공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오시다 이 땅에 묻혔던 영웅들을 새로이 편히 모시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64년의 세월이 흘렸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장의 포화 속에서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하나뿐인 조국을 지켜내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바치셨던 호국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마지막 안식처를 책임지는 일은 우리 후손들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만, 우리가 그 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었지만 6.25 참전 무공수훈자 등 13위의 영현을 좀 더 편안한 곳으로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합동이장 영현 봉송식 자리를 통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무훈 유공자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전쟁의 기억 또한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폐허가 되었던 아픔을 기억할 때 여야만이, 되풀이 되지 않고 민족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6.25 전쟁영웅의 영현 합동이장을 추진해 주신 무공수훈자회 박종길 회장님과 장기일 도지부장님 등 무공수훈자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공수훈자회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양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오늘의 6.25 참전영웅 영현 봉송식이 유가족에게도 큰 힘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호국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기원합니다. 부디,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편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지사기 농악대회

〈2014.10.11. 서산 해미읍성〉

신명과 흥으로 모두가 하나되는 체험

청명한 가을날에 600년 역사의 숨결이 간직된 서산 해미읍성에서 열리는 「제13회 충남도지사기 남·녀 농악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전통예술인 국악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대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강주형 지회장님을 비롯한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었던 시절, 농악은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던 공동체 농촌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농촌에서 신명과 흥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소중한 도구가 농악이었습니다.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살이와 함께 마을마다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풍악소리가 사라져 가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따금 듣게 되는 풍물소리에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게 되는 것은 농촌에 뿌리를 둔 한국인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해미읍성축제와 함께하는 이번 농악대회 또한 신명나는 한판이 펼쳐져 찾아온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농악의 진수를 전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15개 시·군의 경연 참가 농악인 여러분! 그동안 땀 흘려 연습하신 실력들 맘껏 발휘하시고 따뜻한 정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우리의 농악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더욱 개별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가치 있고 전수해야할 전통예술인 것입니다.

농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국악예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의회도 전통예술문화의 보존과 보급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열세 번째 맞이하게 되는 「충남도지사기 농악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국악협회 충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농악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
〈2014.10.12. 예산 추사고택〉

추사의 열정과 의지를 되새기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예산의 자랑이자 조선후기 대표 인물이신 추사 김정희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저 또한 예산인으로서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더없이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2009년 말 추사 동상건립을 위해 추진위가 결성되고 근 5년의 시간이 흘러 이 자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뜻을 모으고 성과를 내기까지 큰 힘이 되어준 강창희 추사동상건립 추진위원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추사 김정희선생 선양사업회 김승규 회장님, 기념사업회 박철원 이사장님, 그리고 최종수 회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추사 선생을 기념하는 휘호대회를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김시운 예사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조선후기 최고의 학자이자 예술가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우리 예산 출신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실사구시 학풍의 혁신가이며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이겨내고 불굴의 예술혼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추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사 선생의 유명한 세한도에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유명한 글귀가 나옵니다. 모진 역경에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추사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사의 열정과 의지를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아울러 휘호대회에 참가하신 서예가 여러분의 선전을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도민인권선언 선포식

〈2014.10.13. 충남도청 문예회관〉

도민 누구나 소중한 존재

「충남 도민인권선언」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210만 도민의 당연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권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권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말합니다. 마땅히 누구나 다 누려야할 권리를 다시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2차대전 이후인 1948년에 UN의 '세계인권선언'이 있었고 대한민국도 제헌헌법과 함께 탄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당연한 인권이 희생되었던 고난의 역사가 있었고, 민주주의가 제 모습을 찾으면서야 인권의 신장도 점차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과 경제논리로 여전히 시정되지 못한 많은 차별과 침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시민의 힘으로 찾아온 것처럼, 주민 스스로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대변화에 걸맞은 인권을 선언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충남 도민인권선언'은 이제 '세계인권선언'이 수많은 국제조약과 선언의 모델로 큰 영향을 주었듯이,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많은 사무와 행위들에 중요한 준거로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도민인권선언'이 있기까지 큰 관심과 힘이 되어준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우주형 도민인권증진 위원장님과 도민참여단 105인 여러분 등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도민인권선언문을 선포하게 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로 '역지사지'란 네 글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차별과 침해를 받아 어려움을 소호하는이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오늘 선언하게 되는 총21개 조항의 의미가 좀 더 마음깊이 와 닿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충남 도민인권선언」의 선포를 누구보다 축하드리며, 도민 모두가 차별 없고 행복한 충청남도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 출범식
〈2014.10.13. 충남도청 대회의실〉

지속가능한 충남 미래발전의 주역

존경하는 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지방정치의 협력과 상생모델이 될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가 출범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방자치가 새로이 부활하여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십 수년간 지방의회에 몸 담아 오면서 지방자치가 그래도 좀 더 투명해 지고 발전되어 왔다고 느낍니다만, 유권자의 다양한 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듭니다.

여기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40명의 우리 도의원이 도민의 선택으로 선출되어 충남의 양대축으로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분명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데 여기계신 지도자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가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감시의 역할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참여와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와 공공부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갈등과제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가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의 출범을 반기며,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에도 오늘의 출범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18명의 준비위원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튼튼한 공공성을 추구하며, 요즈음 들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주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앞으로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오늘 상임대표로 선출되신 임동규 충남발전협의회장님 등 일곱 분의 공동대표님을 구심점으로 나날이 발전해 가는 회의체가 되길 기원합니다.아울러, 소속 150개 충남 시민·사회단체의 활기찬 활동과 지도자 여러분의 건승을 마음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남대전지회 전시회
〈2014.10.13. 충남도청 로비〉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계승해야

문화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생겨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오늘까지 지켜 전해져 오고 있는 귀중한 재산'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살아있는 것이든 아니든 시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늙거나 퇴색하고 결국 소멸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고 소중한 일입니다.

문화재 복원을 위해 종사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 충청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령왕릉나 정림사지 5층석탑, 미륵사지 석탑과 같은 대백제의 유산도 풍화되어 살아져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수리를 위해 이름을 들어내 놓지 않고 애쓰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인 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창립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남·대전지회의 노력과 결실로 이렇게 '첫'전시회 자리가 마련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들을 도민들에게 선보이고 문화재에 대한 의미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김성규 지회장님을 비롯한 기능인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충남·대전지회의 왕성한 활동으로 작품전시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기품과 명성을 더해 가며 명품전시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도의회 또한 문화재기능인의 노력에 더욱 관심을 갖고,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을 위한 지원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찰스다윈의 말은 문화와 문화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남·대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변함없는 보존과 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업 경영인 충청남도대회

〈2014.10.16. 보령 대천항〉

서해안시대, 충남 성장의 동력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미래의 보고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나 석학들은 수산업을 미래 블루오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자원의 감소, 원자재비용 상승, 자연재해와 함께 시장개방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등으로 현실 여건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수산업의 현실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현실을 냉정히 파악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 수산 어업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충남 수산업의 미래를 짊어 질 수산경영인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가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도내 수산업경영인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제6회 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충남 수산업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며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평소 지역 수산업발전과 어민들의 권익향상에 앞장서 오시며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준비하신 문승국 한국수산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장님, 전성기 보령시 연합회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산업 경영인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다가온 서해안 시대에 우리의 바다는 충남 성장의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비록 FTA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마주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어업인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수산업과 어촌경제를 이끌어 가는 리더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수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6회 수산업경영인 충남도대회'가 수산업 경영인 여러분이 하나 되는 즐거운 자리가 되며 내일을 준비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예술제

〈2014.10.17. 서산 해미읍성〉

문화는 찾고 즐기는 사람만의 특권

가을이 오면 왠지 모를 설렘이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많은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을이면 찾아오는 대표 축제 중 하나가 바로 충남예술제입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충남예술제'가 역사의 깊은 운치를 간직한 서산 해미읍성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충남은 높은 지역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지방이 그러하듯이 문화적 혜택과 향유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문화와 예술은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시대에 문화와 예술은 경쟁력의 원천인 창의성을 만드는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수준에 맞추어 늘어나는 문화적 혜택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예술제'가 지역 문화 · 예술의 폭을 넓히고 우리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충남 예술문화 발전을 고민하며 이번 예술제에도 훌륭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정성스레 해미읍성에 담아내신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 윤성희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예총 도 산하단체 회원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과 서산 시민을 비롯한 충남 도민과 관람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문화는 찾고 즐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여야만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해미읍성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7회 충남예술제」가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 마무리되길 바라며 충남 문화예술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충남예술제의 발전과 충남예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포 영산대제

〈2014.10.18. 예당저수지 야외무대〉

모두가 사랑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이 되길

가을의 정취가 더해가는 아름다운 예당수변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2014년도 내포영산대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우리의 무형문화 유산을 보전하시며 오늘의 시연행사를 통해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해 주시는 법륜사 보명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옛 것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이유는 그 속에 아름다운 정신과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 1,700년 역사 속에서 소리와 춤과 굿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 불교예술로서 영산대재는 망자에게는 해탈과 극락왕생을, 살아있는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마음의 안식을 심어 주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내포영산대재」는 충청남도만의 독특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예산지역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무형문화유산을 보전·계승해 오고 계신 법륜사 보명 스님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며, 많은 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전통예술로 발전되어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범국민 대통합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2014년도 내포영산대재」의 바램처럼, 모두가 사랑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더 밝은 사회가 만들어 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가어르신 실버축제 한마당
〈2014.10.20. 충남도청 문예회관〉

어르신 덕에 오늘의 번영된 삶이 있는 것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어르신 여러분들과 재가 복지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제7회 실버축제 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감하시겠지만, 어릴 적에 늘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선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말을 귀에 따갑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요즈음엔 그 말이 많이 퇴색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은 이제 우리사회의 책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어르신들께서 지난날 험난한 고난의 시기를 땀과 눈물로 견뎌내고 오늘의 번영된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고통, 건강문제, 그리고 외로움. 이 세 가지가 어르신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합의와 과제들이 있지만, 보다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아랫세대와 윗세대가 서로 공경하는 따뜻한 문화를 되살리는 데 우리 충남도의회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모시고 뜻 깊고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남재가노인복지협회 오복경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가족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 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표창을 받으신 분들에게 큰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함께 즐기는 날입니다. 일상의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날려 버리시고 모두 함께 흥겨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만수무강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남 문화융성비전 선포식

〈2014.10.22. 충남도청 대회의실〉

문화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충남 문화예술의 발전과 내일을 위한 「충남 문화융성 비전」 선포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現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문화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에게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론'이 아닐까 합니다. 문화융성을 강조하는 요즈음, 일제의 억압 속에서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문화의 힘이라고 역설하셨던 김구 선생의 글을 떠올리면 일종의 전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융성은 문화를 통해 부강한 국가와 사회의 내일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키워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충남 문화융성 비전' 선포를 통해 210만 도민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과 저변이 넓혀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분명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실천하는 실행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오늘의 '충남 문화융성 비전' 선포가 앞으로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모든 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우리도의회에서도 충남문화융성의 비전과 추진전략이 도민의 풍부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충남 문화융성 비전' 선포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비전을 준비하고 선포식을 정성스레 마련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문화재단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하신 문화예술인과 도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충남의 참된 문화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결단식
〈2014.10.23. 충남도청 문예회관〉

여러분 모두가 충남의 대표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소 쌀쌀해진 날씨입니다만, 늠름하고 멋진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여러분의 열기가 느껴져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먼저, 그동안 고된 훈련을 이기고 장도에 오르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여러분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의 출정식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안희정 충남체육회 회장님과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선수들을 뒷바라지해 주신 임원들과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성공이란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일은 마음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선수단 여러분! 그동안 흘린 땀의 결실에 대해 두려움 따윈 던져 버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51명의 선수와 445명의 임원 모두가 충남의 대표선수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210만 도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주도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힘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대회 기간 동안 안전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개선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선수단 여러분의 필승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축제
〈2014.10.23. 충남도청 문예회관〉

어르신이 행복해야 살기 좋은 사회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도내 13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대축제가 이곳 내포신청사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훌륭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최연임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충남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5세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평균적으로 80세를 넘게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세 시대인데,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 이것이 문제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수는 축복이지만, 노후가 길어진 만큼 건강,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우리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어르신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보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좀 더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좀 더 연구하고 복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장수가 보편화 되고 있는 오늘날 노년기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여전히 인생의 활동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인복지관과 함께 활기차고 보람된 참여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그동안 복지관을 다니시면서 갈고 닦은 실력들 맘껏 뽐내시고 동료 어르신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늘 웃으시는 일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결단식
〈2014.10.27. 충남도청 문예회관〉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런 장애인체전 참가선수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은 긴장된 순간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부담감은 떨쳐 버리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가족과 동료, 코치님들과 함께, 210만 도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투지와 집념으로 편견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선수 여러분의 값진 삶과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충남장애인체육발전의 주역으로서,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준 경기단체장님과 지도자님들, 그리고 가족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스포츠는 도전정신의 상징입니다. 장애인 체육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선수단 여러분! 전국장애인체전의 슬로건처럼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값진 땀의 결실과 환희의 순간을 맛보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선수단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2014.10.30. 의회 본회의장〉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덕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청소년 의회교실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을 훌륭하게 가르치시면서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오늘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선생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곳은 210만 도민들에 의해 선출된 40명의 도의회 의원들이 모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토론하고 의결하는 민의의 전당,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도와 교육청의 살림살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을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을 대표하여 도청과 교육청에서 사무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견제·감시하는 등 도민의 의견이 충남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일일 청소년의원이 되어 도의원들의 의사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의장선출, 조례제정, 건의문 채택, 2분 발언 등을 진행 하면서 투표도 해보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학교공부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큰 자산이 됩니다.오늘의 청소년 의회교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2014.10.30.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장애는 우리사회가 안고 해결해야 할 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9회 전국지적장애인 복지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오신 지적장애인과 복지가족 여러분들의 우리 충청남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적장애인들에게 큰 용기를 심어줄 이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김성조 협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힘찬 박수를 보내며, 축하와 격려를 위해 함께 하신 내외 귀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러한 '천부인권 사상'은 역사적으로도 인류를 발전시킨 가장 존귀한 사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엔 여전히 많은 차별과 편견으로 불합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처우와 인권의식은 상대적으로 더욱 미약한 현실입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분발해야할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우리사회가 안고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조하는 일, 재활과 자립을 위한 교육환경기반을 만드는 일 등 모든 일들에 대하여 뜻을 모으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편견을 버리고 우리사회의 동료로서 인식하고 보듬어 주는 따스한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장애인 복지대회는 그런 마음들이 만든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이틀 동안 우리 충남 천안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가 참가하신 지적장애인들의 당찬 생각들을 풀어내고 자립의지를 북돋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여러분! 비록 어려운 난관들이 있겠지만 분명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세상을 당당히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2014.10.31. 천안 종합운동장〉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4회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충청남도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를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어렵고 힘들 때 돕고 의지하면 그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마음대회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며 마음을 함께 나누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道 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 회장님과 유제원 천안시지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헌신과 열정으로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큰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체장애인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픔과 소외를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힘차게 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와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장에 장애인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차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됩니다.

우리 충남의 예를 들자면, 등록장애인 약 12만5,000명 중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질병들로 인한 후천적 장애등록자은 11만8,500여명으로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우리 도의회는 여러분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남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덕성 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연수
〈2014.11.3. 아산 경찰교육원〉

환골탈태를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 되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덕성 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연수'에 참석하면서, "무반성적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올 한해 세월호 사고에서부터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곰곰이 파고들어 따지다 보면 결국 오늘의 연수 주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할 것들을 무시하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동규 회장님을 비롯한 예의생활실천운동 충남본부 회원여러분께 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연수 개최를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어느 순간엔가 과정 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하는 조급증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시급히 도덕성을 회복하고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연수가 지도급 인사들에게 반성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자손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환골탈태를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우리사회 도덕성을 회복하고 법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의 훌륭한 취지의 활동들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농업인학습단체 활동성과 보고회
〈2014.11.4. 충남농업기술원〉

수확의 알찬 결실이 소득으로 이어져야

농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농업인 학습단체의 '2014년도 활동성과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좀 쌀쌀해진 감도 있지만 참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날에 좋은 행사준비에 수고하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좋은 말씀해 주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역농업을 훌륭하게 이끌며 이번 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하신 김재일 농촌지도자 회장님, 이숙하 생활개선 회장님, 박종진 4-H 연합회장님,김태훈 품목연구회장님, 그리고 유영철 4-H 본부회장님 등 농업단체장님들과 회원여러분께 반갑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우리 충남도의회의 동료의원님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농업가족 여러분! 올 한해도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땀의 결실로 올해도 풍년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수확의 알찬 결실이 소득증가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농업현실이기도 합니다.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어렵습니다. 농업인력구조, 농업기반시설, 유통구조 등 모든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지도자분들과 농업인 단체회원여러분께서도 앞장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좀 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뿌리이자 우리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지원은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의회는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농업인 학습단체의 활동성과 보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쪼록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서로 아낌없이 격려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면서 충남농업과 농민단체의 기상을 드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더욱 힘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업인 한마당행사

〈2014.11.5. 산림환경연구소 잔디광장〉

산과 숲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임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른 하늘과 산이 아름다운 계절에 5만 4천여 충남 임업가족들의 진한 우정과 화합을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임업발전과 산림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성인경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산'입니다. 그 만큼 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런 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산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하시는 임업인들을 위한 날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유익한 정보를 나누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임업은 1년 단위로 순환하는 농업과 달리 30년을 넘게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하는 분야입니다. 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임업환경과 지원들이 충분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늘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하고 좋은 소득원을 발굴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의 산림과 임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늘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업인 여러분!

행운은 원하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붙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과 숲에 내일의 미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내일을 적극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카운슬링 페스티벌
〈2014.11.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회관〉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제9회 충청남도 여성폭력예방 카운슬링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토론회와 공연 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엄소일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카운슬링 페스티벌'이 여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공감대를 만들고 사회적 관심의 폭을 넓히는 뜻 깊은 행사로 지속 발전되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폭력은 정도가 크던 작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특히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이며, 성폭력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신상공개제도나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남성위주의 사회문화적인 모습들이 바뀌어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남성과 기성세대가 인식을 바꾸고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행사의 취지와 같이 피해자의 치유를 돕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폭력은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를 남기며, 치유하지 못하면 가족이 병들고 결국 우리사회마저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들을 보듬고 힘이 되어주고 있는 충남여성복지시설 가족여러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 되어 관심이 쌓이고, 또 노력들이 더해져 폭력 없는 세상이 오길 기원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홉 번째를 맞은 '여성폭력예방 카운슬링 페스티벌'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전진대회
〈2014.11.6. 서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작지만 가치 있는 행동이 사회를 바꾼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회원전진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입동을 앞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문인규 회장님을 비롯하여 1만4천여 충남 바르게살기운동 가족여러분께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항상 헌신과 봉사로 지역과 사회발전을 이끌고 계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씨앗 하나에서 커다란 숲이 형성되듯이 한 사람의 작지만 가치 있는 행동들이 사회에 큰 파장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여러분 한분 한분이 우리사회의 모범이 되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이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며 도덕적 행동규범이 되어 늘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밝고 희망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여러분! 우리사회의 많은 부조리한 면들을 접할 때면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우리사회 품격을 높이는 많은 운동과 캠페인을 지지하고 늘 응원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건축 · 공공디자인 문화제
〈2014.11.6.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배려와 나눔, 소통과 신뢰의 문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서천에서 열리는 「2014 충남 건축 · 공공디자인 문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로 훌륭한 자리를 마련하신 최종욱, 박인숙 공동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충남건축사회'와 '공공디자인협회' 두 단체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송석두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道 관계자와 여러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 노력에도 감사말씀을 드리며, 환영인사를 해 주신 노박래 서천군수님과 군의원님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 조이환 의원님, 서형달 의원님, 그리고 김석곤의원님. 세 분 의원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서천을 사랑하고, 또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으로 도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세 분 의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공공디자인이란 말은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건축문화제'로 시작했던 이 행사에 '공공디자인'이란 이름이 들어간 것이 최근 몇 년 전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시대의 변화고, 시각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성과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빨리 빨리"모든 것을 이루어 내려고 했던 우리사회의 모습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자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공 디자인은 배려와 나눔, 소통과 신뢰가 살아 숨 쉬는 문화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하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건축에서 공공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30년 이상, 길게는 백년을 넘게 우리 삶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건축 · 공공디자인 문화제'가 그런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도민들에게 심어주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과 함께 행사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출품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학생들과 건축가 여러분들께도 큰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펼쳐지는 이번 행사가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기원하며, 저의 축하인사를 갈음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방의 날 기념식

〈2014.11.7. 예산 문예회관〉

성숙한 안전의식이 행복한 충남 만들어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제52주년 소방의 날」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념식의 주인공들이신 김경호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고 있지만, 사실 소방가족 여러분의 마음은 1년 내내 똑 같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날들일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올해는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판교에서 공연장 환풍구가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재난안전 사고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참으로 불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1년 365일 언제나 119를 통해 불러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공직자로서 그리고 사회를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소방의 길을 걷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화마와 싸우고 생사의 갈림길인 재난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자기희생이 없으면 결코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소방가족 여러분의 우리사회를 위한 희생과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거듭 축하드리며, 모쪼록 성숙된 재난안전의식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지역 '예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소방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매순간 신의 보살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삽교 섶다리 곱창축제

〈2014.11.8. 태안 청소년수련관〉

모두가 즐거움을 '곱' 하는 자리 되길

두 번째 삽다리 축제인 「2014 삽교 섶다리 곱창축제」를 삽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삽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건너 이웃과 왕래하던 시절의 기억은 삽교읍민을 이어주는 아련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삽다리 축제가 읍민이 하나 되는 지역의 대표축제로 더욱 발전되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의 축제들이 우후죽순 만들어 지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할 때, 경쟁력 있는 축제, 성공하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삽다리 축제는 바로 그런 축제가 되어야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산 오미(五味) 중 하나인 삽다리 곱창구이를 메인 테마로 삼은 이번 축제도 그러한 노력의 흔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삽다리 곱창구이의 고소한 향기와 삽다리 재현을 통한 진한 향수가 전해서 늦가을의 정취를 한껏 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삽교읍민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 주며 읍민화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풍성한 내용으로 삽교읍민에 의한, 삽교읍민을 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신 이상원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축제추진위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삽교읍민 여러분! 혼자서 꾸는 꿈은 꿈에 그칠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행복한 고장, 삽교를 만드는 것은 지역주민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삽다리 축제가 주민 화합의 공감대와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번 축제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즐거움을 '곱'하는 흥겨운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2014.11.8. 태안 청소년수련관〉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우리 사회의 주역

충남자율방범대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의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정성을 다해 행사를 준비해 오신 정만교 연합회장님과 김정진 태안군연합대장님, 그리고 각 지역대장님과 대원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범활동, 치안활동, 그리고 많은 봉사활동들이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우리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생활에 바쁘고 어려운데, 지역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보수와 대가도 바라지 않고 활동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봉사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큰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마음대회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면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 한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소속된 방범대와 활동하는 지역은 다르지만, 하나 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여럿이 함께 가면 괴로움과 고통은 반감되고 피로는 즐거운 보람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길에 우리도의회도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여러분, 한 마음 한뜻으로 오늘 하루 즐겁고 활기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플컵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2014.11.8. 예산 예화여고〉

인생을 즐겁고 행복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큼한 사과향기 가득한 계절에 열리는 「제3회 애플컵 댄스스포츠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회를 주최하신 예산군 댄스스포츠연합회 조순자 회장님, 그리고 댄스 스포츠를 사랑하는 동호인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댄스 스포츠하면 '열정'과 '화려함' 같은 단어가 우선 떠오릅니다. 활력 넘치고 보기에도 참 시원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1960년대 이후 한동안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댄스교습이 금지되었던 조금은 암울했던 역사와 관계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서적 · 신체적 · 사회적 ·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당당한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댄스스포츠 애호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당당한 댄스스포츠의 매력을 선보이는 날입니다.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운 좋은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야말로 하시는 분도 즐겁고 보는 분도 즐겁고 모든 분이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대회가 경연의 승부를 넘어서 마음껏 즐기는 행복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댄스스포츠의 저변이 나날이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09주년 연차대회
〈2014.11.13. 충남도청 문예회관〉

받는 이보다 주는 이가 더 행복한 봉사

충남 적십자 가족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적십자사 창립 109주년을 기념하는 충남 적십자사 가족의 연차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표창을 받으신 분들에게 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적십자사의 상은 벼락치기 상이 아니라 한 시간 한 시간, 한 땀 한 땀 봉사를 통해 누적된 가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는 정직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시다시피, 적십자사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간중심 봉사단체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펼치고 있는 헌혈운동, 불우이웃돕기, 이산가족 찾기와 대북협력사업, 그리고 다양한 봉사활동과 구호사업 등 모든 것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사회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봉사정신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이 바로 봉사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러나 실지로 봉사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꾸준히 봉사의 길을 걸어오고 계시는 적십자사와 회원 여러분은 우리사회에서 박수와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대한적십자사 창립 109주년과 연차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개소식

〈2014.11.19. 천안 충남타워〉

여성에 대한 지원이 최고의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여성경제인들의 희망의 동반자가 될 '여성기업종합지원 충남센터'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남은 자원이 여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정말 여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여성을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꼽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될 여성들에게 눈을 돌려야한다고들 모두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여성들이 능력만으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각종 정보제공과 많은 서비스 활동 노력들이 우리사회에 참으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에게 이로운 것이 기업에도 이롭다'는 인식이 커, 여성이 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 우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충남센터의 개소식이 있기까지 큰 노력을 해주신 최옥분 회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충남의 여성과 미래경제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성기업종합지원 충남센터'의 개소를 축하드리며, 여성경제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2015 나눔캠페인 출범식
〈2014.11.20. 충남도청 로비〉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따뜻한 정 베풀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희망 2015나눔캠페인의 출범'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하고, '고령화와 양극화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세상이 각박해져만 간다.'고들 흔희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참으로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큰 힘을 발휘했고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는 마음가짐을 우리 모두 가슴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이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몸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우리사회가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에도 사랑의 온도탑을 뜨겁게 달궈줄 '희망나눔 캠페인'이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촉매체가 될 것입니다. 이관형 회장님 등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고귀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따뜻한 결실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뜻 깊은 한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 세종 · 충남지역신문협회 풀뿌리 자치대상
〈2014.11.25. 세종시 수정웨딩홀〉

지방자치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

「2014 풀뿌리자치대상 충청인상 시상식」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한 단계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석을 다진 데에는 1988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지역신문의 역할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언론에만 집중되어 있던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켰고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여론형성을 통해 지역민주주의 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신문은 지방자치민주주의와 그 생사고락의 궤적을 같이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풀뿌리자치대상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지역신문 탄생 26주년을 기념하며 수여되는 이번 「2014년도 풀뿌리자치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그간 각 분야에서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또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펼쳐 오신 공로에 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 확립과 바람직한 자치민주주의 발달을 위해 뜻 깊은 시상을 기획하고 추진하신 대전 · 세종 · 충남지역신문협회 이평선 회장님 등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공감하시듯이 우리의 현실은 정치 · 행정적 측면이나 재정적 측면 등 많은

부분에서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더 나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많은 조언과 역할을 하실 지역신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2014년 풀뿌리자치대상」 수상자여러분께 큰 축하를 드리며, 풀뿌리자치대상과 대전 · 세종 · 충남지역신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우의 날 기념식

〈2014.11.25. 충남지방경찰청〉

정의가 살아있는 선진 충남의 선봉장

존경하는 경우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51주년 경우의 날」 기념행사를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5대 범죄는 1분에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4시간 내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잠자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찰의 힘이라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해외를 나가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치안수준이 대단한 것이구나!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피와 땀으로 청춘을 바쳤던 선배경찰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후배 경찰공무원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날 열악했던 환경 속에서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헌신하였고, 퇴직이후에도 몸에 베인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경우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경우회원님의 경륜과 지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정의가 살아있는 선진 충청남도를 만드는 길에 경우회원님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껏 법과 질서를 지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다면, 그 희생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일에 우리사회가 더 큰 배려를 하여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활동하는 길에 우리 충남도의회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51주년 경우의 날'을 축하드리며, 경우회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존경과 사랑 받은 경우회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통 충남지역 여성한마당 행사
〈2014.11.29. 예산 문예회관〉

북한이탈주민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2014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충남여성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민주평화통일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북한이탈주민여러분!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나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기까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기까지, 여러분들이 겪었을 고통은 이루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을 우리 모두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역경 속에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새 식구가 된 여러분의 적응과 인권에 대해 우리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분명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가 현실이 되기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첫 단추는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70%를 훨씬 넘게 차지하는 북한 이탈 여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당연히 겪게 될 문화적 이질감뿐만 아니라 성차별을 비롯한 여러 인권 문제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도민들 사이의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 1천여 충남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보듬고,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고군분투(孤軍奮鬪)에 다시 한 번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의 앞날에 큰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

〈2014.12.4. 온양관광호텔〉

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기다릴 것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남의 높은 기상을 떨치신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열정과 투혼을 보여주신 선수단 여러분들이 참으로 대견스럽습니다. 특히 상위의 성적을 거두시고 오늘 포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땀 흘리고 고생해 주신 충남체육회와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단체와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선수단 격려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선수단 여러분! 체전은 끝이 났지만, 여러분에게는 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기다릴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체전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단련하시어 발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도 충남체육 발전을 위해, 그리고 2016년 아산에서 열릴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준 선수와 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해단식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선수단 여러분과 충남 체육계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자대회

〈2014.12.9. 충남도청 대회의실〉

더불어 사는 삶, 참사랑의 가치

충남자원봉사자 가족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자원봉사를 통해 누구보다 보람된 1년을 보내신 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충청남도 자원봉사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3사랑나눔봉사단」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지순관 충남자원봉사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한 해 동안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오늘 상을 받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우리사회를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함께 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순수한 봉사와 헌신으로 참사랑의 가치를 일깨우고 계신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역할이 실로 자랑스럽고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할 길을 추구하고 찾아낸 분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미처 눈길이 닿지 못한 곳들을 살피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미래를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기 위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에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벤처인대회

〈2014.12.9. 천안 갤러리아센터시티〉

벤처정신으로 충남경제 일으키자

존경하는 벤처인 여러분! 경제 ·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2014년도 충남벤처인 대회'를 축하드립니다. 한 해 동안 산업 전선에서 땀 흘려주신 벤처인과 경제인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충남 벤처산업 발전과 건전한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하시어,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기업인과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요즘 우리 경제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변화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충남벤처인대회'에 함께하며 벤처기업인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성공의 자산으로 여기는 것이 '실리콘 밸리'의 진정한 경쟁원천입니다. 바로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벤처 정신이라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악조건 속에서도 연구개발과 기업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벤처인 모두에게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불굴의 자세로 경제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우리 지역이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살고 고용이 창출되며 소비가 활성화되고, 또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의 지역경제가 창출되기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충남벤처인 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벤처인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문인화협회 특별기획전

〈2014.12.27. 아산 민속박물관〉

선비의 고결함과 꿋꿋함을 만나는 즐거움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기에 '충남문인화협회'의 여덟 번째 특별기획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은은한 묵향의 향기로 우리문화의 뿌리를 이어가며 지역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충남문인화협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茶香에 소리와 춤이 어우러진 시 · 서 · 화 퍼포먼스 한마당' 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를 어느 해보다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이형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과 국악예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인화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선비의 고결함과 꿋꿋한 정신을 바탕으로 '여백의 미'를 선사하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작품을 보는 이가 사색과 사유를 통해 여백을 채워나가는 독특한 우리 전통미술의 진수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쁜 일상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더없이 유익한 예술분야라고 여겨집니다. 그간 충남문인화협회의 작가 분들께서 한 점 한 점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작품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전시회가 도민들에게 문인화의 진수를 선사하며,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견문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추운 겨울 차가운 빈 공간을 진한 감동의 온기로 채워줄 「제8회 충남문인화협회 특별기획전」 개최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문인화협회 충남지회'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2014.12.30. 예산 예화여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확실한 미래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2014년을 시작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선 뜻 깊은 시기에 타의 귀감이 되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신 학생 여러분께 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매년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장학금 전달과 큰 용기와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시는 서산장학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난 91년 재단 설립이후, 많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건실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이끌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만큼 가치가 크고, 미래가 확실한 투자가 없다'는 것을 서산장학회를 통해 항상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더 큰 활동과 노력을 기대하며, 서산장학재단의 많은 사회공헌 활동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관심과 응원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수령하게 되시는 학생여러분들도 지역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서산장학재단과 장학생 여러분모두에게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다가오는 대망의 을미년 새해에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송년사

〈2014.12.31.〉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작한 한 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갑오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며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격랑 속에서도 충청남도와 우리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은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고 제10대 도의회가 구성되고, 민선6기가 출범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작한 한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제10대 충남도의회의 의정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을 3대 의정비전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210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제10대 충남도의회 의정활동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우리사회에 던져진 큰 화두는 「안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도민의 안전한 삶의 보장과 행복을 위해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 더욱 활기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을 도청이전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도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시고, 새해에도 우리 충남도의회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민여러분, 2014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10만 도민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2014. 7. 1 ~ 2016. 6. 30)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도민과 함께
(2015년도)

신년사

〈2015.1.1〉

도민에게 희망을 안기는 한 해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희망찬 2015년 을미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청양띠의 해, 푸른 양처럼 평온하면서도 진취적인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는 유난히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불투명한 경제여건 속에 도민들의 마음도 다소 무거운 한해였습니다.

비록 한해의 시작이 묵은해의 끝과 맞닿아 있지만, 금년 한해는 희망에 찬 각오와 실천들로 무난하게 역경들을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2015년 우리 충남도의회는 "도민에게 희망을 안기는 활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시대 3년차에 돌입하는 도청이전신도시가 정상 궤도에 올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 「복지」, 「보육」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의 폭을 넓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늘 도민의 곁에서 지역의 문제와 시급한 민생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 모두는 더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비판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올 한해도 충남도의회는 도민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합니다.

210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영광의 한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전일보사 주최 신년교례회

〈2015.1.2. 충남도청 대회의실〉

도민 화합과 발전을 이룩해내는 한 해

반갑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도자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대전일보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무대에서 큰 힘이 되어 주신 홍문표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등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양제 충남지방경찰청장님을 비롯한 우리지역의 지도자 여러분께 큰 감사와 더불어 새해에도 변함없는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희망과 기대로 대망의 을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더 나은 발전과 성취를 이룩하시길 바랍니다.

금년은 푸른 양띠의 해입니다. 성질이 온순하고 무리지어 사는 순한 양은 '화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푸른색은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색깔입니다.

우리시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화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도민 화합과 더 나은 발전을 이룩해 내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가 충만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위기와 기회', '긍정과 부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청인들이 힘을 모았던 것처럼, 올 한해도 하나 된 마음으로 많은 난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로 새로이 출범한 민선 6기 도정과 제10대

충남도의회도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충남이 경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도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2015년 을미년 새해 도민 모두가 건승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여성계 신년교례회

〈2015.1.7. 예산 더센트럴웨딩홀〉

지금은 여성들이 주역인 시대

충남여성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을미년 새해를 맞아 도내 여성 리더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오늘 여성계 신년교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청남도 여성의 역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성단체 회원들께 반갑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해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사회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변화 속에 여성들이 주역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여성분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복지, 보육, 교육문제 등 많은 부분들이 여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도 여성들의 사회 참여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등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여성들의 활발한 자기발전과 사회참여를 높이고 '여성들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드는 일에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발전의 든든한 조력자인 충남 여성지도자 여러분들의 오늘 힘찬 새해 첫 다짐들과 각오들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식
〈2015.1.7.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답은 교육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기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간 농업마이스터를 향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배움의 길을 걸어오신 215명의 졸업생 모두에게 큰 축하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을 훌륭히 이끌고 계신 이종신 학장님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앞으로 졸업생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습득하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2,제3의 농업마이스터가 배출되고 더 좋은 충남농업을 이끄는 데 큰 힘을 보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농업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땀의 결실로 수확을 얻는 농업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그리고 그 답은 농업에 있어서도 '교육'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곡식을 심으면 1년 후에 수확하고,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에 결실을 맺지만, 사람을 가르치면 100년 후가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여러분들이, 우리 충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농업의 내일을 이끌어갈 든든한 버팀 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도 여러분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3기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졸업을 축하하며,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과 기쁨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 충청투데이 주관 신년교례회
〈2015.1.8.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다

경제인,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오늘 여러분을 뵙고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 더욱 건승하시고 모두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신년 벽두에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이희평 회장님, 충청투데이 이원용 사장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도 교육감님, 김양제 도 지방경찰청장님, 양승조, 박완주 국회의원님, 그리고 구본영 천안시장님, 복기왕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과 경제 · 기업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사회가 대형 사건사고들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충남의 지역경제는 멈추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수지흑자 291억불로 전국2위와, 지역내총생산 전국4위와 1인당 GRDP 전국2위에 해당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2014년도에도 견인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함께하신 경제 · 기업인들이 밤낮없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올 한해 더 많은 발전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은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과 저금리로 유리한 점도 있지만,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로 대외경제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남도와 우리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해서 우리의 지역경제가 더욱 안정적

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충남도의회도 우리 경제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경제활동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을미년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정본청원(正本淸源)'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처럼, 2015년 을미년 새해 우리사회가 토대를 바르게 세우고 더욱 정진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하며 제 인사말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201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
〈2015.2.2. 충남도청 로비〉

도움의 손길이 사회를 훈훈하게 만든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달여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했던 '희망2015나눔캠페인 - 사랑의 온도탑'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초 목표였던 사랑의 온도 100℃를 훌쩍 넘긴 102.2℃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아직 우리사회가 서로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특히, 세계적 경기 불황 속에서도 충남지역 기업의 나눔의 손길로 예년보다 빨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충남 기업 경영인들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십시일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개인기부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나눔의 마음이 우리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되며, 나아가 우리 사회를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온도탑을 뜨껍게 달궈주신 많은 도민들과 이관형 회장님 등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며, 사랑의 온도탑 폐막 이후에도 나눔이 열기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설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정기총회
〈2015.2.9. 덕산 리솜스파캐슬〉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성장의 중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지회 정기총회에 충남 건설인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업계의 권익보호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택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상을 수상하시는 유공자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설산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우리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으며, 건설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기술력은 미래 건설산업을 밝히는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불황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국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건설인 여러분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성실한 시공,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건설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지역 전문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 건설인 여러분 각자가 우리 도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의 토대를 창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학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입학식
〈2015.2.26. 충남도립대 해오름관〉

항상 갈망하고 항상 무모하라

충남도립대학교 신입생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충남의 명문대학교인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입학식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입학식이 있기까지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올곧게 길러주신 부모님과 가족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충남도립대학을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충남도립대학에 대한 애정으로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574명의 인재들이 지난 12년간의 긴 학업시간을 거쳐 대학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입학에 대한 큰 기쁨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입학식의 자리에 함께하며, 여러분에게 충남도립대학교를 먼저 졸업한 선배로서, 충남도의회 의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은, 대학기간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만 한다.' 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일이 됐든, 여행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살거나 타인들의 신조라는 덫에 걸려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여러분이 진정으로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혈기왕성할 시기인 대학시절,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는데 쏟길 바라며, 항상 갈망하고,

항상 무모하십시오.

우리 충남도의회도 여러분들이 충남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영광스런 입학을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양소방서 개서식

〈2015.3.3. 청양문화예술회관〉

도민 행복실현의 출발점은 '안전'

존경하는 청양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은 청양군의 새로운 소방역사가 시작되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청양군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책임질 청양소방서의 개서를 축하드리며, 청양소방서를 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하여, 청양소방서 이광성 서장님과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신 이종화 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장님과 이석화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3만여 청양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청양소방서를 열고, 또한 201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착공에 들어갔다고 하니, 우리 청양군민의 안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마련된 것 같아 충남도의회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빈여러분 그리고 소방가족여러분!

도민 행복실현의 출발점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의 기반이 없는 발전은 무의미하며,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인재(人災)에 의한 사건사고를 비롯하여 더욱 다양화 · 대형화된 재난재해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속에 지역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안전과 재난에 대처하는 조직이 바로 소방서이며, 그 역할과 수요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곳 청양군은 칠갑산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으로,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관광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청양소방서의 개서는 더욱 뜻 깊고, 지역민들과 함께 환영에 마지않습니다.

청양소방서의 개서를 계기로 재난 없는 청양,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남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읍시다. 모쪼록 청양소방서가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품격 있는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공간으로 우뚝 서길 기대하며, 청양소방서의 무한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충남연합회 제14·15대 임원 이·취임식
〈2015.3.4. 충남도청 대회의실〉

농업은 인류문명을 꽃피우는 원동력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 연합회 제15대 집행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제14대 연합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오늘 제15대 회장에 연임하시는 이두영 회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15대 새로운 임원진과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다들 아시다시피,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먹고 사는 문제'의안정은 인류문명을 꽃피우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농업은 인류 역사 발전에 눈부신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화 이후, 성장을 위해, 더 잘살기 위해 '농업의 피해, 농민의 희생, 농촌의 붕괴'를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중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의 기형적인 시장구조 등으로 우리의 농업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농업의 쇠락, 농업인구의 급감, 농촌사회의 공동화를 '원래 그런'안타까운 현실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생태가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을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아래 더욱 육성해 나가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직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한길을 매진해 온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 연합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1만 2천여명의 연합회 가족 여러분, 더 큰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듯,

지역의 농업 멘토로서 우리의 농업을 책임지고 나갈 의식 있는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남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충청남도 의회도 늘 여러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충남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15대 임원여러분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충남 풀뿌리 여성대회

〈2015.3.9.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이 행복한 충남 만들자

제1회 충남 풀뿌리여성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의미 있는 자리를 준비하시고, 평소 여성의 역량강화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정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여성들이 삶의 터전에서 변화를 주도했던 활동들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행사의 주제가 '여성, 마을을 구하다!'라고 합니다.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성이 마을을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여성의 지위가 급부상한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석학들이 21세기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성만이 가진 섬세함과 강인함, 사려 깊음은 각 가정을, 마을을, 나아가 국가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역에서 여성의 힘으로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일궈온 풀뿌리여성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문화, 경제, 농업 등 여러 부문에서 여성이 어떻게 지역을 바꾸어 왔는지 공유하고 전파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지역의 많은 선진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풀뿌리여성 리더들을 육성하는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여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충남 풀뿌리여성대회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우회 주관 만찬의 밤

〈2015.3.10. 예산 더센트럴웨딩홀〉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충우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어느덧 긴 겨울의 끝자락에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봄날의 기대와 함께 충우회 주관으로 오늘 우리지역 기관·단체 간부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충남도의 주요기관이 이전한 이곳 예산에서 기관단체 간부님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더욱 뜻 깊게 생각하며, 행사를 준비하신 임동규 충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청 등 충남의 중추 행정기관이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내포신도시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충우회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충남 발전의 백년대계를 펼친다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건설하고 지역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각 기관단체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또한 홍성·예산 등 주변도시와의 동반성장 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 개발의 온기가 충남전역에 확산되도록 교육·안전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210만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을 약속드리며, 충우회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충남 재도약을 위한 지역 소통과 화합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우회에 감사드리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2015.3.17. 홍성 홍주문화체육센터〉

도민이 편안한 '안전한 충남'

충남의용소방대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가족 여러분!

봄기운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 활기찬 계절을 맞아 도민의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양성을 위한 『충남 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이호명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1만여 충남의소대원 여러분들이 있기에 210만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 생업에 종사하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재난 · 재해의 현장에서, 또한 분 · 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인명구조 등에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불의의 사고로부터 고귀한 생명을 구하여 모든 도민이 편안한 삶을 보장받는 '안전한 충남'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환경이지만 충남의 안전과 도민의 행복을 지킨다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대원여러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과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각 시 · 군 대원들이 모여 겨루는 경연의 자리를 통해 평소에 틈틈이 훈련해 오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을 겨루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동안 많은 봉사활동으로 지치고 고단했던 일상들은 접어두고 재충전하는 즐거운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원 여러분의 건승과 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축구연합회 제7대 회장 취임식
〈2015.3.19. 아산 온양관광호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

축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켜는 이른 봄에 충청남도축구연합회 제7대 회장 취임식을 갖고 힘찬 도약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양춘기 회장님을 비롯한 제7대 임원여러분의 힘찬 약진을 기대합니다. 양춘기 회장님은 평소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오신 분으로, 오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충청남도 축구연합회가 더욱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복기왕 아산시장님, 이명수 국회의원, 김 휘 전국축구연합회장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축구만큼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게 하는 스포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는 비록 작은 공이지만, 그 안에 꿈과 신념이 있고, 애국심이 있으며, 세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 국가대표선수 박지성은 "그라운드에 내가 있다면, 내 안에 그라운드가 있다"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축구 그라운드 안에서는 절대 약자, 절대 강자도 존재하진 않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축구를 즐긴다는 것은 무엇보다 승부를 떠나 자신이 갈고 닦은 최상의 실력을 뽐내며, 선수들과 서로 화합하는 행복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충청남도 축구연합회 제7대 회장 취임식을 축하드리며, 끝으로 충청남도 축구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축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충남연합회 제10대 회장 취임식
〈2015.3.23. 공주 농업기술센터〉

역사와 문화의 뿌리, 미래 생명산업

여성농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봄기운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 화사한 이른 봄에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도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헌신하신 이길성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새롭게 구성된 박종숙 회장님을 비롯한 제10대 임원 여러분의 힘찬 첫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박종숙 회장님은 그동안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오신 분으로, 오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가 더욱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 여성농업인의 위상 정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안희정 지사님, 박수현 국회의원님, 오시덕 공주시장님,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여성농업인 여러분 !

농업은 우리 모두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이며, 미래의 생명산업이고, 농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터·쉼터·삶터인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유엔(UN)이 정한 '2015 세계 흙의 해' 입니다.

농업을 단지 생산적 가치가 아닌 공동체의 정신적 가치로 새롭게 조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공익적 농업실현에 합심하여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은 농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유무역체제 속에서 최첨단 농업기술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가공 산업부터 문화·역사적 테마를 접목시키는 관광 산업까지 향토와 고부가가치가 만나는 미래 성장산업입니다.

세계화·개방화라는 국제사회의 흐름 앞에서 지속가능한 복지농촌 구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더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또한 충남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값진 활동에 자부심과 보람이 보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장 이·취임식을 축하드리며, 끝으로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새마을회 제18대 회장 취임식
〈2015.3.23. 공주 농업기술센터〉

생활혁명, 경제혁명, 역사혁명

새마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켜는 새 봄에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힘찬 도약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마을운동의 민관협력체계를 확립하고, 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애써 주신 전영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새롭게 구성된 임동규 회장님을 비롯한 제18대 임원 여러분의 힘찬 첫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임동규 회장님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오신 분으로, 2013년도에는 충남 우수기업인상을 수상하신 역량 있는 기업인이십니다.

이번 취임식을 계기로 충청남도 새마을회의 눈부신 비약적 발전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공동체 '으뜸충남' 만들기에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 구본영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표 정신혁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새마을 운동입니다. 생활혁명이며, 경제혁명이고, 역사혁명인 것입니다.

1970년 4월에 335포대의 시멘트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농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꾸었습니다.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을 이룬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 교수는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든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최근 뉴새마을운동은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덕목이 더해져 국민통합을 이끄는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제2한류이자 글로벌 혁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새마을회에서는 지구촌 공동체 운동으로 민 · 학 · 관 해외봉사단 운영과 개도국 새마을 지원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만1천여명의 지도자 여러분들과 15만 6천여명의 회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 또한 충남도 의회 의장이며, 민심의 대변자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도민'을 위해 문화 · 이웃 · 경제 · 지구촌 공동체운동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 이 · 취임식을 축하드리며, 끝으로 충청남도 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축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기공식
〈2015.3.25. 내포신도시 행정타운내〉

지구는 미래세대의 주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충남형 웰빙'의 전진 기지가 될 道 보건환경연구원 기공식을 갖고 힘찬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남인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살기' 위한 주춧돌에 정초를 새기는 고무적 순간입니다.

먼저, 오늘 기공식을 갖기까지 애써주신 송석두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내포를 위해 힘쓰시는 유익환 부의장님, 김홍열농업경제환경위원장님,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장님,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용필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장님, 김문규, 김명선, 홍재표 도의원님과 이상근 홍성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여러분 !

2002년에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인류의 건전한 삶터로 가꾸기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지구는 현 세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의 주권입니다.

우리 도는 환경 보전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2012년 6월 1일 충청남도 환경보건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단초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훼손된 생태계를 치유하기 위한 웰빙 충남의 실천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건강한 충남을 지켜내는 것은 공약을 넘어 시대적 숙명입니다.

중국발 황사 등 국경 없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손잡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다변화된 환경오염 사고로부터 쾌적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은 바로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이 곧 보건이라는 미래지향적 마인드로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물, 공기, 먹거리 등 건강한 일상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보건환경 연구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내년 6월 완공 후에는 도민 가까이에서 감염병 발생 을 예방하고, 먹거리 안전성 확보하여 쾌적한 청풍명월을 조성하는데 한발 앞서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도 보건환경연구원 기공식」을 축하드리고, 자리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충남회관 개관식
〈2015.3.26. 예산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삶의 공간을 만드는 예술

건축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자연이 기재개를 켜는 새봄에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회관 개관식에 충남 건축인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녹록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지역 건축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종옥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 건축인 여러분!

60년대부터 산업화, 도시화의 거센 물결 속에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집을 많이 짓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대는 건축물이 단순한 자본과 부동산이 아닌 삶의 공간을 만드는 예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랜드 마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수준과 품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오늘 개관식을 계기로 내포신도시가 이웃과 '숨' 과 '정'을 나누며 조화로운 도시, 함께 사는 도시, 자연 닮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세계 경제 불황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역 건축 산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포의 美가 담긴 고품격 건축 창조의 저력을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지역 전문건축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개소식

〈2015.3.27.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듭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새 봄에 환황해권 기후변화 정보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개소하기까지 애써주신 최진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노력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구는 지난 100년간 기온이 1℃가 상승했으며, 많은 생물종이 멸종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섬들이 사라지는 환경재앙에 부딪혔습니다.

국제사회는 1979년 2월 세계기상회의를 시작으로 범지구적 재앙을 해결하고자 머리를 맞대 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환경피해 최소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구를 사랑하는 녹색생활의 실천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개소식」을 축하드리고, 자리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5회 장애인의 날 어울림축제
〈2015.4.17. 당진종합운동장〉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장애인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기운찬 봄에, 서른 다섯번째 『장애인의 날』기념 행사를 맞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고무적인 날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 회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향상과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관님, 김양제 경찰청장님, 김홍장 당진시장님, 이용호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13만 충남 장애인 여러분 !

일상생활에 만족 하십니까? 많이 불편하시죠.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긍지를 가지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199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 제정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7%에서 현재 3% 로 증가했고, 2019년까지 3.4%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OECD회원국 평균대비 장애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달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장애인 가구 소득

수준은 54%에 불과합니다.

도민 여러분 !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장애등록자이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모두의 시련인 것입니다. 21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장애가 불행이 아닌 불편 이어야 하며,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여러분, 일상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예, 만족합니다."라고 흔쾌히 답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는 항상 여러분 가까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어울림축제」를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119 소방정 취항식
〈2015.4.8. 당진항 고대관리 부두〉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바다의 파수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동하는 새 기운이 활짝 나래를 펴는 봄에 충청남도 119소방정을 취항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발 앞선 체계적인 현장 대응으로 바다의 안전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용기와 열정을 북돋아 주는 날입니다.

취항식 준비에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권주태 119광역기동단장과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신 김동완 국회의원님, 유익환 부의장님, 이진환 부의장님, 이종화 건소위 위원장님, 김응규 건소위 부위원장님, 신재원 의원님, 오인철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이용호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그리고 김홍장 당진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수난 사고는 복잡화, 대형화 되고 있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과 맞물려 더욱 변화무쌍해지고 있습니다. 다변화 시대에 119 소방정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바다의 파수꾼입니다. 서해안 도서지역 주민과 어민들은 한층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해상 사고 시 조기출동으로 응급환자를 보다 빠르게 수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방인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소방 활동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의로운 일입니다. 내년에 전북에서도 119소방정을 취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타시도와의 공조를 통해 서북부해안의 수난 사고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은 물론, 소방인까지 안전해야 진정한 안심 충남입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소방인을 충청남도의회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19광역기동단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3회 충청남도 연극제

〈2015.4.20.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연극은 삶과 사랑을 담은 문화의 생화

봄기운이 가득 넘치는 싱그러운 새 봄에 향토 연극인의 예술 무대인

제33회 충청남도 연극제 개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극단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문화공연으로 발돋움하는 이번 행사를 마련하신 전인섭 한국연극협회 충청남도 지회장님을 비롯한 연극 예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인은 왜 문화예술에 열광할까요? 사람에 대한 발견이자 이해이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장 큰 자산으로 아름다운 정서를 심는 토양입니다. 돈이 아닌 것에 대한 열정,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환희는 국민의 안목이며, 국가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첫사랑과 끝사랑이 되어 생생하게 호흡하는 순간 예술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연극은 지역 주민의 가치관이자 애향을 표출하는 소중한 가치로 우리 고장 향토문화예술의 밑뿌리이자 귀결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연극인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보다는 하루 세끼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에서 어느 덧 33년의 세월동안 지역 무대를 지켜왔지만, 아직도 지방에서 연극을 접하기란 흔하지 않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다소 저조한 3개의 극단이 공연할 예정이라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극단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축제를 완성하는 것은 관객의 몫입니다. 제33회 충청남도 연극제의 멋진 한마당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감동과 재미를 누려보는 뜻 깊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찬회

〈2015.4.13. 온양관광호텔〉

미래 보석의 세공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 세상이 활짝 기지개를 펴는 화사한 새 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찬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뜻 깊은 연찬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인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친교와 화합을 다지는 허심탄회한 소통을 기대해 봅니다.

아이들은 현재의 거울이며, 미래의 운명입니다.

충남의 200여 지역아동센터는 40여년의 세월동안 아이들에게 건강한 놀이와 배움을 나눠준 행복 그루터기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생활복지사 여러분! 아이들에게 적합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아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열어주는 세상,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바르게 하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없다면 반쪽 난 지구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맘껏 놀고 배울 수 있어야 살맛나는 충남입니다. 올망졸망 작은 꿈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정성껏 가꾸는 것은 어른들의 몫 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인 아이들을 소중히 돌보고 계신 복지사 여러분들 이야말로 미래 보석의 세공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봄 환경과 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복지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아동센터의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충남지역아동센터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 기공식
〈2015.4.16. 예당저수지 물넘이광장〉

물은 돈이며, 복지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생명이 새롭게 깨어나는 희망 가득한 봄에 물 자족 道 충남으로 자리매김하는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공식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신 홍문표 국회 예결위 위원장님,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님, 허승욱 정무부지사님, 황선봉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제7회 세계 물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이 물 정보 분석 보고서를 통해 물 관리 체계가 곧 재무회계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물은 돈이며, 복지이고, 생명입니다.

물 공급은 기업의 수익 창출이며, 생명의 존립이고, 전 세계의 핵심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 예당저수지는 예당평야의 젖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로 50여년 동안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키우며, 주민들이 맘 놓고 물을 마셔온 도민의 생명 샘이었습니다.

물넘이 확장공사는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하게 물을 관리하고, 수려한 수변 관광자원으로 건강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예당의 탯줄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자요수(知者樂水) 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당호는 시설노후와 홍수로부터 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물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20년, 30년뒤 미래 세대가 물 기근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남도의회는 물의 수호자로서 수자원 확보대책을 위한 다각적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당저수지 물넘이확장공사』기공식을 축하드리고, 자리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 유채청보리 축제

〈2015.4.23. 내포신도시 홍보관〉

노랑, 파랑, 알록달록한 세상

내포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 활기찬 봄을 맞아 『내포신도시 유채 청보리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포사랑의 순수한 열정으로 행사를 준비하신 장영석 도청이전주민 생계조합장님과 전선희 청심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내포 주민과 직원은 같은 그루터기를 함께 나누는 어깨동무입니다.여기 와보니 노랑, 파랑, 알록달록 세상입니다. 오늘만큼은 일상을 접고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환한 웃음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여러분! 마주보며 유채비빔밥을 비벼보세요. 마음에 노란 미소가 곱게 새겨질 것입니다. 맘껏 웃고 즐기며, 끼를 뽐내 보세요. 가슴에 파란 하늘이 금세 담겨질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오래갑니다. 내포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포의 밑뿌리이자, 열매입니다. 좋은 날에 좋은 사람과 좋은 곳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봄 처녀, 봄 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내포신도시 유채 청보리 축제』를 축하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0회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2015.4.29. 예산 충의사〉

전통보존은 민족의 밑뿌리이자 귀결점

시조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기운이 가득 넘치는 싱그러운 새 봄에 매헌 윤봉길 의사의 고귀한 업적과 민족혼이 서려있는 윤봉길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제20회 전국 남녀 내포제 시조경창대회』를 열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산군 충의사 저한당에서 전통예악을 되새길 수 있는 이번 대회를 위해 애써 주신 주영길 예산군 내포제 시조 보존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조는 우리 선조의 철학과 풍류가 담겨져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시조와 음률이 만나 독창적이고 서정적인 가락을 만들어 주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시조 동호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랜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국가, 고유문화를 계승하는 민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통보존은 민족의 밑뿌리이자 귀결점입니다.

시조 동호인 여러분 !

세계화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전통 문화의 벌거숭이가 된다면 미래는 사라질 것 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깃든 시조가 점차 일반인들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 조상의 혼이 담긴 아름다운 소리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시조 동호인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변에서 우리의 소리인 "창"을 접하기란 흔하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를 참석하는 동호인이 줄어들고 있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동호인과 도민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대회를 완성하는 것은 관객의 몫입니다. 제20회 전국남여내포제시조경창대회의 멋진 한마당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벅찬 감동을 누려보는 뜻 깊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황 방문기념비 축성미사

〈2015.4.26. 예산 삽교역〉

문화와 문물 유통의 교부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작년 8월 온누리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문기념비 축성미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섬김과 화합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허병도 신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황선봉 예산군수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교황방문을 계기로 삽교역은 명실상부한 치유와 희망의 쉼터이자, 평화와 사랑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해안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문화와 문물 유통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작년 여름, 아이들을 잃은 비통함에 빠진 온 국민에게 교황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오롯이 전하는 전령사를 자처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문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며, 사랑과 위안을 가슴에 새기며 기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미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농장 개장

〈2015.4.30. 내포신도시 주말농장〉

소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길

안녕하십니까?

따스한 봄 햇살이 완연한 날에 『행복한 주말농장 · 가족꽃밭』개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포사랑의 순수한 열정으로 행사를 준비하신 장영석 도청이전주민 생계조합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도청와 유관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주한지 2년여 세월이 흘렀고, 자연친화적 삶을 누리면서 내포는 건강한 일터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내포인 여러분! 주말 농부 재미있으세요?

어떤 분은 농기구도 처음 만져보고, 모종과 나무심기도 처음이실 겁니다. 가족들과 오붓하게 여가를 즐기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도 수확하며 농심을 맛보게 될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은 작물의 씨앗만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주말의 농부가 되어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워보세요. 소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날에 좋은 사람과 좋은 곳에서 예쁜 씨앗도 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포인입니다. 다시 한 번, 『행복한 주말농장 · 가족꽃밭』개장을 축하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광부장관기 전국체고 체육대회 개회식
〈2015.4.30. 홍성오페라웨딩홀〉

건강은 행복의 전제 조건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 활기찬 봄을 맞아 『제2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송강경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 최성식 전국체육고등학교 교장회 회장님과 강병갑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허승욱 정무부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님과 김석환 홍성군수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세기 전보다 평균수명은 2배가 연장되어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며, 이제는 '나이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이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행복한 일상의 전제 조건이고, 의식주와 함께 운동은 생활의 기본요건으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하며 아름다운 경쟁 속에서 타오르는 환희와 감동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선수 여러분! 스포츠는 열정입니다. 승리와 화합을 향해 선수들이 흘린 소중한 땀방울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열정과 투혼을 보여준 선수단은 모두가 메달리스트이며, 박수갈채를 보낸 응원단은 든든한 감독이자 코치인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은 맘껏 웃고, 즐기며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2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2회 충청남도 서예대전

〈2015.5.23. 충남 학생교육문화원〉

내면의 색채가 살아 숨쉬는 한국의 미

초록이 싱그러워지는 여름 어귀에 『제22회 충청남도 서예대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약관이 훌쩍 넘는 세월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동양 전통예술 계승을 위해 줄기차게 힘쓰고 계신 이일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여년 전부터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충청남도지회는 서예의 대가와 기초가 잘 닦여진 동호인과의 교류를 통해 서예의 흥취를 높이고, 서예대전을 통해 일반 대중이 명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목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왔습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컴퓨터가 손 글씨를 대신하여 만든 각종 인쇄물과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방사우(文房四友)란 말이 낯설어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서예는 결코 폄하 될 수 없는 심신단련의 동양예술입니다. 종이와 붓이, 먹의 조화 속에 정신세계가 담겨져 3천년의 예술로 계승되어 왔으며, 글씨에 담긴 뜻은 긴 역사와 함께 민족혼을 담아 왔습니다.

서예는 단순하게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명산대천과 각지에 흩어진 비석과 묵적을 감상하며 자연과 혼연일체(渾然一體)의 경지를 도달했습니다. 점과 선에 필순과 시간의 흐름을 더하여 운필의 강약과 율동미가 전개되는 영묘함의 극치 미술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예인 여러분,

시대적 변화속에서 우리 지역 서예인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 층의 참여가 저조해 지고 있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예술을 완성하는 것은 관람객의 몫입니다. 제22회 충청남도 서예대전을 통해 내면의 색채가 살아 숨쉬는 한국의 미를 감상하시는 뜻 깊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광시 한우사랑 축제

〈2015.5.2. 광시한우 테마공원〉

한우는 신뢰의 마크, 안전의 브랜드

한우 지킴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 활기찬 봄을 맞아 『제1회 광시한우사랑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김만식 광시한우사랑 축제추진위원장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국회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홍문표 국회 예결위 위원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상의 행복은 먹거리에서 출발합니다.

광우병이 범람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외국에서 수입해온 고기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직접 기르고 자란 한우는 그 자체가 신뢰의 마크이며, 안전의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몸짱 · 얼짱 되고 싶은 분들 있으십니까?

그럼, 한우 맘껏 드십시오. 고단백질 고기는 근육을 늘려주고, 체력을 보강하며,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특히, 한우의 영양성분은 우울한 기분을 날려주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적정하게 유지해주어 성인병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모두 미남, 미녀 이신거 보면 세끼를 전부 계속 한우만 드시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밥상을 위해 충남도의회는 우리 소 지키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7회 고엽제전우회 충남지부 창립기념식
〈2015.5.7. 홍주문화회관〉

국가경제발전의 초석, 세계평화의 수호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 활기찬 봄을 맞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청남도지부 제17차 창립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강인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장님과 이명종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청남도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베트남 참전 전우들의 권익 향상과 국가안보를 위해 공헌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32만 베트남참전 용사들이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 빈곤국가가 세계역사상 가장 빨리 세계무역수출 8위의 경제강국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분 한분이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며, 세계평화의 수호자입니다. 참전 용사들의 피와 눈물은 위대한 금자탑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엽제 전우분들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 역경에 놓여 있습니다. 1993년 3월 10일 고엽제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미국의 외면 속에 난치병과 맞서며,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참전용사분들께 물려받은 애국애족의 호국의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고엽제 회원 및 유족 여러분들의 복리증진과 보훈정신을 길이기 위하여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청남도지부 제17차 창립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날 기념행사

〈2015.5.8. 삽교 체육공원〉

부모 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화창한 봄을 맞아 『제4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최종관 회장님과 박희자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이 계셔서 지금의 삽교읍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과 민족전쟁이라는 질곡 속에서 나라와 자식을 위한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효 사상을 정립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역할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4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015.5.9. 천안 태조산청소년수련관〉

꿈과 열정으로 날아 오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 활기찬 봄에 『2015년 충청남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장기수 충남청소년진흥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절과 협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타의모범이 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은 청소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과 유병국 의원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 드높이 날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먼저 날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꿈과 열정만이 여러분들을 날게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록밴드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은 "행복이 인생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조차 그의 숙제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나의 인생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당당히 대답하였습니다. 존 레논이 자신감 있게 행동했던 원동력은 열정을 다한 행복한 노력이었으며, 그것은 행복한 꿈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꿈과 열정에 행복을 담았던 존 레논은 우리에게 영원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힘찬 날개짓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때로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힘차게 날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펭귄처럼 바다를 멋지게 헤엄치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2015년 충청남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2015.5.13. 공주 백제체육관〉

결혼은 기적의 밑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 활기찬 봄에 『제16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생의 새 출발을 기약하는 마흔 일곱 쌍의 신혼부부 여러분께 21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이건휘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과 임대혁 도립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랑 신부 여러분! 좋은 반려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갈 평생의 길동무를 만나셨습니다. 행복하시죠! 미국 소설가 루이스 맥마스터는 "나의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기적이며, 가정은 사랑의 화수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기적의 밑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에게 가장 훌륭한 복지는 자신의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는 차등이 아닌 다양함을 이해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올바른 이해를 통해 공정한 자립을 도모하고, 진정한 통합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의회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열여섯 번째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 가족 화합한마당

〈2015.5.16. 충남도청 잔디광장〉

모두가 즐거운 화합의 시간 보내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창한 봄에 『봄철 공직자 · 가족 화합 한마당』이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포 사랑의 순수한 열정으로 행사를 준비하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넓은 잔디밭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온천지가 알록달록 사람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같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봄 처녀, 봄 총각이고 봄 가족입니다.

오늘 하루 맘껏 즐기실 준비 되셨죠?

평소의 나를 잊고 끼와 흥에 몸을 맡겨 보십시오,

내가 즐겁고 옆 사람도 즐거우면 그게 화합 한마당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2015.5.25. 예산 수덕사〉

자비와 지혜의 빛을 새기는 소중한 시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활기찬 봄에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뜻을 받들어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정 묵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시는 홍문표 국회 예결위 위원장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2천 5백년전 왕자의 자리를 버리시고 출가하신 후 민생의 고난을 자처하시며 얻은 깨달음으로 비탄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셨습니다. 백제시대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의 보고였던 수덕사는 1308년 대웅전 건립을 계기로 700여년을 부처님이 오신 참뜻을 새기고 동체대비의 사회적 실천과 자비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위해 매진하여 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뜻 깊은 행사를 통해 불자들의 마음 속에 자비와 지혜의 빛을 널리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과 뜻을 받들어 상생하고 화합하는 기도의 도량이자 교화의 도량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충남예술제

〈2015.5.29.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문화가 살아있는 국가만이 생존한다

초록이 싱그러워지는 여름 어귀에 『제8회 충남예술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십년 가까운 세월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충남예술제에 순수한 열정을 기울이시는 오태근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과 예술가 정신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여 영애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술인 여러분

선진 각국의 패러다임은 산업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창조로 변화하여 왔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일부 계층이 누리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영위하고 즐길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접근성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은 창조적 문화융성사업에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찬란한 백제문화의 유산과 전통을 기반으로 여러 장르 간 다양한 공연 · 전시 · 부대 · 체험 행사 등으로 종합예술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오감의 한마당입니다. 더욱이 이번 축제는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기며,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고 문화의식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나팔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충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 문화예술 대중화의 여건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 지역 예술인의 현실 또한 녹록

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먹거리보다 즐길 거리의 가치가 더욱 소중한 일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충남인의 가슴에 예술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면면히 흐를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예술을 완성하는 것은 관람객의 몫입니다. 『여덟 번째 충남예술제』가 문화예술의 이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정초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름다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포문화숲길 걷기대회

〈2015.5.30. 충남도청 잔디광장〉

숲길을 걸으며 백제인의 깨달음을 느끼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햇살이 화창한 여름 어귀에 『내포문화숲길 걷기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포사랑의 순수한 열정으로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지 운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시는 수덕사 설정 스님, 홍문표 국회 예결위 위원장님, 허승욱 정무부지사님과 김지철 충남 교육감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내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도청 이전을 시작으로 내포는 명실상부한 충남의 심장으로 웅비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수덕사는 백제시대부터 부처님의 참뜻을 전파하고,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세상을 위해 정진하여 왔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길동무와 담소를 나누는 동안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비우고자 하는 가치를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백제인의 깨달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과 내포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내포를 배우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내포인이며, 내포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모쪼록, 내포 사랑 행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천 충남도민 체육대회
〈2015.5.30. 인천대학교 제물포운동장〉

고향은 인생의 그루터기

재인천충남도민회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햇살이 뜨거워지는 여름 어귀에 『제10회 재인천충남도민체육대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향은 인생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충남"이라는 단어를 듣기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이곤 합니다. 내 고향 충남은 언제라도 찾아오면 반가이 맞아주는 따스한 어머니의 품속이며, 어린 시절 속의 옛 추억으로 떠나는 타임머신입니다. 도민회는 130만명의 재인천 출향인들이 70년 전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온 애향 불패의 선봉장입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충남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출향인사 여러분께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인천충남도민회는 오랜 시간 동안 충남 농특산물 판매, 향우자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불우이웃돕기, 사랑 나눔 캠페인 등 고향 사랑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도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고향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화합하는 충남인의 마음으로 우리 고장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남도의회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가 그 동안 못다한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고, 오순도순 정담을 나누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열 번째 재인천충남도민체육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서해안 한마당 축제

〈2015.5.30.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교두보로 자리매김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록이 싱그러워지는 여름 어귀에 『희망 서해안 한마당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정 태안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국응복 충남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 회장님과 이양호 만리포 관광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

매섭게 춥던 8년전 겨울, 태안에는 작은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실의에 젖어 살 길을 막막해 하던 어민들을 보듬어주며, 칠흑 같은 검은 바다를 청정 서해로 꽃 피운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태안은 더 이상 충남인만의 바다가 아닙니다.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때 와주셨던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와 5천만 대한인이 일구어낸 아름다운 기적의 바다입니다. 다시 태어난 청정 서해에서 해양 레저와 예술 공연을 만끽하며 오감이 즐거워지는 색다른 경험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태안이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는 정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피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덕상무사 공문제 및 보부상 재현놀이
〈2015.5.31. 예산 덕산시장〉

근대 경제의 유통망, 자본의 중심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록이 싱그러워지는 여름 어귀에 『예덕상무사 공문제 및 보부상 재현놀이』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부상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김영주 예덕상무사 접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시는 홍문표 국회 예결위 위원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예덕상무사 사원 여러분 !

30년 만에 완간된 김주영의 대하소설 『객주』는 19세기 보부상들의 유랑을 통해 민중의 삶과 활약을 담은 장편소설입니다. 소설에서 보부상은 근대 경제의 유통망이자, 자본의 중심체이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해외 상품도 택배로 받는 세상이지만, 조선 후기에는 마을을 돌며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방문했던 봇짐장수들이 물자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국적인 시장망을 형성하고 지역별 특산품을 운반 판매하여 근대의 토착 자본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보부상의 맥을 이어가고자 추진하고 있는 내포 보부상촌 조성과 보부상 놀이의 충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예덕상무사 공문제 및 보부상 재현놀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충청남도 국악제

〈2015.7.12. 서산 문예회관〉

민족혼의 정서이자 자긍심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록이 만발한 정열의 계절에 『제10회 충청남도 국악제』가 성대하게 열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흥겨운 우리 가락의 정취를 되새길 수 있는 대회를 준비하신 강주형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회 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바다와 어우러진 청정 서산시에서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여 주실 참가자 여러분들을 17만 서산시민과 더불어 열렬히 환영합니다.

국악은 민족혼의 정서이자 자긍심이며, 수많은 침략과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온 대한민국표 정신 유산입니다. 그런 까닭에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변함없이 역사와 전통이 깃든 한국의 가락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충남 국악인 여러분!

창(唱)은 이제 한국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소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판소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고, 사물놀이는 세계 타악기 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은 문화의 밑뿌리이며, 문화는 미래의 종결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道 국악인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변에서 전통 음악을 접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 일로 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인원이 다소 저조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앞으로 젊은 세대가 우리의 소리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경연을 완성하는 것은 관객의 몫입니다. 『제10회 충청남도 국악제』의 멋진 한마당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벅찬 감동을 누려보는 뜻 깊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서화 문화대전 및 충남서예가협회전
〈2015.6.17. 예산 공설운동장〉

전통과 현대가 융합하는 문화컨텐츠

초록이 싱그러워지는 여름 어귀에 충남도민체전 성공개최 기원을 위한 『대한민국 書·畵 문화대전 및 제42회 충남서예가협회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불혹이 훌쩍 넘는 세월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동양 전통예술 계승을 위해 줄기차게 힘쓰고 계신 심응섭 충남서에가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여년 전부터 충남서예가협회는 서예의 대가와 기초가 잘 닦여진 동호인과의 교류를 통해 서예의 흥취를 높이고, 서·화대전에서 전시와 퍼포먼스 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일반 대중이 명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목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왔습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컴퓨터가 손 글씨를 대신하여 만든 각종 인쇄물과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방사우(文房四友)란 말이 낯설어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서예는 결코 폄하 될 수 없는 심신단련의 동양예술입니다. 종이와 붓이, 먹의 조화 속에 정신세계가 담겨져 3천년의 예술로 계승되어 왔으며, 문장의 함축적 의미는 긴 역사와 함께 민족혼을 담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서예인 여러분,

서예가는 단순하게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예술인이 아닙니다. 옛 서예가들은 명산대천과 각지에 흩어진 비석과 묵적을 감상하며 자연과 혼연일체(渾然一體)의 경지를 도달했습니다. 서예는 점과 선에 필순과 시간의 흐름을 더하여 운필의 강약과 율동미가 전개되는 영묘함의 극치 미술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지금

까지도 흑백의 미학은 색채가 담긴 예술 철학인 동시에 전통과 현대가 융합하는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속에서 우리 지역 서예인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 층의 참여가 저조해 지고 있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예술을 완성하는 것은 관람객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書·畵 문화대전 및 마흔 두 번째 충남서예가협회전을 통해 내면의 색채가 살아 숨쉬는 한국의 미를 감상하시는 뜻 깊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은빛 페스티벌

〈2015.7.22. 천안시청〉

어르신 행복지수는 선진 복지사회 시금석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록이 무성한 여름을 맞아 홍타령의 고장 천안시에서 『제12회 은빛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축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임동규 협회장님을 비롯한 「사단법인 한국레크리에이션연구협회」임직원분들의 무한한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페스티벌에 참여하신 1,500여명의 어르신 및 관계자 여러분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오래갑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은빛 노년의 어르신들이며, 어르신의 행복지수는 선진 복지사회의 시금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십 수년 동안 어르신들에게 건전하고 활기찬 여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온 은빛페스티벌은 지역과 세대를 넘는 도민 화합의 향연이자, 여가 활동 지도자를 양성하여 수준 높은 레크리에이션을 보급해온 보루였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현재의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역경과 고난을 꿋꿋하게 헤쳐 나갔던 기성세대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가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고민할 차례입니다.

백세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장수가 축복이기 위해서는 즐겁고 희망찬 삶이어야 가능합니다. 매일 30분간 흥겹게 몸을 움직이면 몸과 맘을 편안하게

하는 엔돌핀이 생성되어 우울한 기분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보약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즐기시는 노래와 춤, 악기 연주와 동료들과의 어울림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신 기량을 맘껏 뽐내시고, 다함께 웃고 즐기며 신명나는 은빛 한마당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 『열두 번째 은빛페스티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 함께 하신 어르신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2015.7.30. 천안삼거리공원〉

생산적 가치에서 공동체 가치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록이 무성한 여름에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과학 영농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재일 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을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

우리 모두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갑니다. 더욱이 올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흙의 해』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삶터이자 쉼터가 되는 농촌을 생산적 가치에서 공동체 가치로 새롭게 조명하는데 한걸음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동안 농촌 지도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실천하는 농심이자, 미래 농업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생명 산업으로 성장한 농업 6차 산업은 다양해진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면서 농촌 지도자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은 건강한 밥상에서 출발합니다.앞으로 충남도의회는 일상에서 힐링까지 함께 하는 농업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기찬 1박2일의 하계수련대회가 회원 간의 공감대와 결속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단초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모쪼록,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유치원 개원식

〈2015.8.13. 내포유치원〉

새싹들이 꿈의 나래를 펼치는 내포꿈동산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린이들의 내포둥지가 될 『내포유치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포 어린이의 보금자리를 위한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지철 교육감님과 지경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시는 홍문표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님, 오배근 도 문복위 위원장님, 이종화 도 건소위 위원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사회는 "어린이에게 적합한 세상"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적합한 세상이란 저마다의 꿈이 간직되고 실현되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포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각양각색 꿈 화분을 정성껏 가꾸도록 돕는 것은 어른들의 소임일 것입니다. 내포 유치원은 내포 새싹들이 꿈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는 내포 꿈동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대한인, 세계인으로 성장할 우리 어린이들은 때로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힘차게 날기도 하고 때로는 돌고래처럼 바다를 멋지게 누비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내포유치원 개원식』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1주년 전국사진공모전 〈2015.8.15.〉

일어나 비추라! 교황님과 함께 하는 빛의 예술

아름다운 창조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 회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이 무성한 정열의 계절에 『2015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1주년 기념 전국사진 공모전』이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세상 속의 한줄기 빛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국사진전을 준비해 주신 최영근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 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탁월한 창작기법과 남다른 작가정신으로 공모전에 입상하신 수상자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는 강산이 두 번 변한 성년의 세월 가까이 무수히 많은 사진대전과 회원전을 통해 충남 속의 한국, 한국속의 충남을 재발견하는 순수 예술의 나팔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회원들은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그늘진 구석구석을 필름에 담아 온정과 봉사의 손길을 제공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추억을 담은 아름다운 세상과 더불어 사는 참 세상을 열어주고 계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 회원 여러분들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

교황방문 1주년 기념 사진전은 하느님이 빛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 가운데 자비로이 부르시는 생생한 영광을 전하는 위대한 예술의 전당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불꽃처럼 화합하고 어우러져 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지적의 땅으로 거듭 나길 염원해 보겠습니다. 더욱이 이곳 솔뫼성지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느님의 부름과 사명을 다한 위대한 순교자의 고향이며, 자랑스러운 내포 신앙의 못자리이므로 교황방문을 기념하는 영광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사진공모전을 완성하는 것은 관람객의 몫입니다. 다시 한 번, 『2015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1주년기념 전국사진공모전』를 축하드리며,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4회 충남농업경영인대회

〈2015.8.20.〉

일상에서 힐링까지 전 방위적 산업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이 무성한 계절에 천혜 바다 '서산시'에서 『제14회 충남농업경영인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람 · 희망 · 미래에 대한 남다른 소신으로 농업의 신기술 개발 및 신가치 창조의 기틀을 다지며, 농업경영 선진화에 앞장서고 계신 이두영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탁월한 애향과 남다른 애농 정신으로 지역사회 농업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더욱이 올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흙의 해』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삶터이자 쉼터가 되는 농촌을 생산적 가치에서 공동체 가치로 새롭게 조명하는데 한걸음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산업으로 성장한 농업은 다양해진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면서 일상에서 힐링까지 영역을 넓히는 전 방위적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회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은 건강한 밥상에서 출발합니다. 35년의 오랜 세월동안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는 현대 농업사에서 깨어있는 농심 · 도전하는 농업 · 함께 하는 농촌의 산실로 성장하며, 실천 부농의 화수분이 되어 왔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종사자가 아닌 미래성장산업의 경영인으로 거듭나며, 이번 한마당을 통해 충남 속 농촌은 복지 · 과학 영농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게 되었

습니다. 하지만, 개방화 · 세계화의 거대한 파고 앞에 농촌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앞으로 농업경영인의 든든한 어깨동무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이번 대회에서 얻는 가장 큰 결실은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열네번째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축하드리며,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세종지구 JC회원대회 및 취업박람회

〈2015.8.22.〉

깨어라, 도전하라, 함께하라! 참된 청춘

존경하는 충남세종 JC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이 무성한 정열의 계절에 『제46차 충남세종지구 JC 회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람, 희망, 미래에 대한 남다른 소신으로 "함께 가꾸는 희망 ! 함께 소통하는 세상 !"이라는 참여와 소통의 공간 속에 창조의 미래를 이끌며 참다운 봉사와 나눔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계신 한상옥 충남세종지구 JCI-KOREA 성환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탁월한 애향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환갑을 훌쩍 넘긴 오랜 세월동안 한국 JC는 한국 현대사에서 깨어있는 청년 · 도전하는 젊음 · 함께 하는 번영의 산실로 성장하며, 참된 청춘의 모범답안이 되어 왔습니다.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그늘진 구석구석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봉사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있는 한국청년회의소 회원 분들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남세종 JC회원 가족 여러분,

충남세종지구 JC회원들은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독거노인 · 장애우 · 다문화 가정 등을 보살펴 왔으며, 하나 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일에도 솔선수범하여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은 지치고 힘든 일상을 견뎌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불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JC회원대회와 취업박람회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 번, 『마흔 여섯 번째 충남세종지구 JC 회원대회 및 취업박람회』를 축하드리며,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농민 전진대회

〈2015.8.24. 당진 종합운동장〉

먹거리는 생명줄! 농심단결 울력다짐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웠던 여름의 끝자락에 천혜 바다 '당진시'에서 『2015 충남농민 전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밥은 하늘이요, 농부는 생명지기'라는 소신으로 식량 주권과 농업 수호의 기틀을 다지며, 생명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장명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탁월한 애향·애농 정신으로 이 자리에서 농심울력을 되새기고 계시는 내빈 및 회원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우리 농촌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외국 농산물의 완전개방 앞에 식량자급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발전의 해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해법 중 하나로는 지역 고유의 색깔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자치농정의 토대를 정립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인류의 삶터이자 쉼터인 농촌을 생산적 가치에서 공동체 가치로 새롭게 조명하는데 한걸음 더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은 건강한 밥상에서 출발합니다. 25년의 오랜 세월동안 전국농민총연맹 충남도연맹은 농업 현대사에서 농민 투쟁의 뚝심 있는 나팔수로 자리 잡으며 깨어있는 농심·도전하는 농업·함께 하는 농촌의 산실로 성장하며, 실천 부농의 화수분이 되어 왔습니다. 농민은 종사자가 아닌 미래성장

산업의 경영인으로 거듭나며, 이번 농민 한마당을 통해 충남 속 농촌은 복지 · 과학 영농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방화 · 세계화의 거대한 파고 앞에 농촌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앞으로 농민의 든든한 어깨동무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이번 대회에서 얻는 가장 큰 결실은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일 것입니다. 거듭 『2015 충남농민 전진대회』를 축하드리며,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진대회

〈2015.8.28.〉

사람 · 자연 · 미래를 사랑하는 일류농업

친환경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결실의 계절인 가을 어귀에 『충남친환경 농업인연합회 2015년 전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앞장서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신 전양배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님, 장명진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회장님, 김홍열 도 농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탁월한 애향과 남다른 애농 정신으로 친환경 농업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친환경농업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더욱이 올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흙의 해』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며 생태환경 보전의 주역으로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감으로 농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친환경 농업인분들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은 건강한 밥상에서 출발합니다. 충남 친환경농업인 연합회는 5년 동안 4천명의 회원들과 함께 깨어있는 농심 · 도전하는 농업 · 함께하는 농촌의 산실로 성장하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유통 및 소비대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방화 · 세계화의 거대한 파고 앞에 농촌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

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앞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든든한 어깨동무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이번 대회에서 얻는 가장 큰 결실은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일 것입니다. 모쪼록, 뜻 깊은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청소년 댄스페스티벌

〈2015.8.29.〉

청소년의 끼와 재능에 생명을 불어넣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에 흥과 멋의 본거지 '천안시'에서 『제4회 전국청소년 댄스페스티벌』이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치열한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오른 전국 42개 참가 팀원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춤은 생명력이자, 육체로 표현되는 자유입니다. 예술가들에 의해서만 표현되었던 춤은 현대의 대중화를 거치면서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자 건강학적 가치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젊은 끼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으뜸 춤꾼입니다. 열기가 뜨거운 꿈의 무대를 맘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댄스축제가 벌어지는 동안 청소년과 관람객은 하나가 되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난 달 치러졌던 예선전에서의 열띤 댄스들은 프로를 능가하는 아마추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댄스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팀원들이 많아지고 있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무대를 즐기는 모습에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밝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소년 여러분 모두의 친근한 어깨동무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를 완성하는 것은 관중들의 몫입니다. 다시 한 번 『네 번째 전국청소년 댄스페스티벌』을 축하드리며,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2015.8.31. 충남도청 문예회관〉

황금알을 낳는 첨단기술의 황금거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 개발에 대한 꿈과 열정의 제전이 펼쳐질 『제41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 원장님, 백수현 한국표준협회 회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강산이 네 번 바뀌는 오랜 세월동안 "품질분임조는 황금알을 낳는 첨단기술의 황금거위"로 자리매김하였고, 직장 내 자발적인 혁신문화를 주도하며 기적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낸 일등공신이었습니다. 미래 100년 품질 분임조의 으뜸 성공 조건은 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원이며, 일류 기술국으로 비상하는 품질 개선의 날개는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품질분임조는 명장(明匠)으로 가는 정도(正道)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무한 경쟁시대의 돌파구 중 하나는 상생과 조화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화합이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거머쥔 만능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살림을 일으켜 세울 주역들이 모인 경진대회에서 노하우를 뽐내는 동안 여러분 한분 한분이 모두 기술 달인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흔 한번째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축하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충남지회전

〈2015.9.1.〉

미래는 감(感)거리의 가치가 소중한 시대

초록이 무성해지는 뜨거운 태양 아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천안에서 『2015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충남지회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4년의 세월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새로운 문화 창조에 앞장서며 지역 예술인으로서의 사명에 다하고 계신 박진균 한국전업 미술가협회 충남도지회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술에 대한 탁월한 사명감으로 공로패를 받으시는 수상자와 뛰어난 예술혼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입상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미술인 여러분

선진 각국의 패러다임은 산업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창조로 변화하여 왔습니다. 예술의 발아(發芽)가 되는 미술은 회화, 조각, 건축 등 고대 수렵생활의 일상부터 최첨단 디지털의 문화까지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창조의 밑뿌리이자 종결점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창이며, 인간의 삶 자체인 회화에 예술혼을 담고 계신 우리 지역 미술인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문화와 예술을 꽃 피우는 국가만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전은 한국화, 서양화 등 회화의 다양한 주제 및 여러 장르 간 다채로운 작품을 오감으로 즐기는 것은 물론, 맘 따뜻한 감상과 속 시원한 소통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의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역 예술

대중화의 여건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 미술인의 현실 또한 녹록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먹거리보다 감(感)거리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충남인의 가슴에 예술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면면히 흐를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관람객의 몫입니다. 『2015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충남지회전』이 회화예술의 이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정초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름다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연안발전포럼

〈2015.9.3. 보령 웨스토피아〉

푸른 화수분, 해양 실크로드를 향하여

초록이 무성한 여름의 끝자락에 천혜 바다의 보고(寶庫) 보령에서 『제5회 연안발전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바다를 향한 순수한 열정과 끝없는 애정으로 포럼을 준비해 주신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님,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님, 김동일 보령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 국회의원님과 포럼발표를 위해 참석해주신 고충석 제주국제대총장님을 비롯한 발표자 및 토론자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서해안은 충남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아시아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중국 교역의 전진기지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인류번영의 지속가능한 터전입니다. 우리 道는 그동안 서해안의 생물 · 광물 · 에너지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며 한발 앞선 해양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수산강도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수산발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연안 · 하구 생태복원 국제 포럼을 통해 생태계 순환을 위해 꼭 필요한 연안 및 하구를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자, 인류의 고향입니다. 지구 생태계의 과거 · 현재 · 미래인 바다에는 생명체의 80%가 살고 있으며, 전 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을 운송하고 있어, 자연의 보고(寶庫)이며, 무역의 노다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서해안의 미래자원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성패는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연안발전포럼』은 환황해권 서해안 비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정초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

〈2015.9.4.〉

여러분 모두는 단 하나뿐인 승리자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 어귀에 『2015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충청남도의 심장부 예산군에서 열리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군민의 무한한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참여하신 선수단 및 관계자 여러분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올해로 3년째 접어드는 충청남도 장애학생체육대회는 사람 · 희망 ·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계층과 세대를 뛰어넘어 210만 도민의 어울림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선수단의 무한한 도전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오릅니다. 역경을 딛고 스포츠에 정진하며 땀방울을 흘리는 1천 2백명 선수단 모두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선수는 물론,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온 부모님과 지도교사는 한분 한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 하겠습니다. 메달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과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내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이 든든한 감독이자, 코치가 되어주세요. 장애학생 선수단의 존재만으로 충남은 행복합니다. 선수단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와 함께 준비한 '사랑의 밥 차'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더불어 즐기며 아이들을 힘껏 응원해 주십시오. 210만 도민과도 의회는 여러분의 뜻 깊은 체전을 마지막 순간까지 응원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종합순위 4위에 빛나는 쾌거는 내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 장애인체전에도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2015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선수단과 임원,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애국정신문화 영어말하기 대회

〈2015.9.5.〉

민족의 한줄기 빛 '유관순'을 영어로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결실의 계절인 가을 어귀에 『13회 청소년 애국정신 문화 영어말하기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민족관을 심어주는데 앞장서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신 박인숙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일본은 지금까지도 동아시아의 근대사를 왜곡하며 교과서와 언론을 통해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인이 세계인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고, 한겨레의 소원은 통일임을 만천하에 외치며 진정한 평화를 되새기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영어로 발표하는 동안 충·효·예 및 진정한 삶의 가치가 마음속 깊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국제무대에서도 자신 있는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빛날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작금에는 교과서에서 조차도 유관순 정신이 희미해지는 현실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앞으로 유관순의 민족정기를 계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의 애국혼을 담은 이번 대회에서 얻는 가장 큰 결실은 선조들의 숭고한 역사관 배양이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뜻 깊은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학사 개원식

〈2015.9.7. 충남학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둥지이자 그루터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가을을 맞아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학사 개원식』이 열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 인재들의 학업 둥지」 마련을 위한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명숙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충청남도가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학업 인프라는 교육복지 실현을 넘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면학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충남학사는 쾌적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학생들의 둥지이자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숙사의 개원은 맘껏 배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는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각양각색 날개를 달아 꿈을 펼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며, 훌륭하게 성장하여 후배들을 돌보는 *파옹구우를 실천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파옹구우(破甕救友) : 송나라 사마광이 어린시절 옹기에 친구가 갇히자 값비싼 옹기를 깨어 친구를 구했다는 일화)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학생들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정책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남학사 이전 건립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의 날

〈2015.9.9.〉

건강한 나눔의 선봉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결실의 계절에 세계유산의 고향 '공주시'에서 『제16회 충남 사회복지의 날』이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사람 · 희망 · 미래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은 바로 복지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복지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누구나 널리 잘사는 사회'로 가는 정도(正道)인 동시에 생활수준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일류 국가로 전진하는 도민 울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여러분, 다 함께 행복한 봉사의 나팔수이자 건강한 나눔의 선봉장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랜 세월의 값진 땀방울 덕분에 충남복지 현대사가 창조되었고, 소외 계층을 아우르는 나눔 문화의 기틀이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충남'을 이끌어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인들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역사회의 등대를 자처하고 계신 복지인의 든든한 어깨동무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의 가장 큰 결실은 화합과 단결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열여섯 번째 충청남도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드리며,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쌀전업농 충남도대회

〈2015.9.11. 서산 부석종합운동장〉

국민 주식을 수호하는 생명지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수확의 계절에 천혜 바다 '서산시'에서 「제13회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대회」를 향한 범도민적 율력다짐 행사를 준비해주신 허승욱 부지사님과 이은만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신 김제식 국회의원님, 이완섭 서산시장님, 임종완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 회장님 등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다른 애농 정신과 투철한 식량안보 의식으로 지역사회 농업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쌀전업농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은 건강한 밥상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경제에 더 이롭고 국민행복에 더 가까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사람 · 자연 · 미래를 사랑하는 일류 농업의 밑뿌리는 바로 한국인의 주식(主食)인 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는 사회적 안보이자, 국민의 기본 권리인 까닭에 생명지기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민 주식을 수호하고 계신 쌀 전업농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대회는 깨어있는 농심 · 도전하는 농업 · 함께 사는 농촌의 산실로 성장하고, 국제적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충남도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쌀전업농 여러분들의 든든한 어깨동무가 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열 세 번째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대회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축산인 한마음대회

〈2015.9.11. 천안시 풍세면〉

대한민국의 으뜸 생명산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축산인의 화합」를 향한 범도민적 울력다짐 행사를 준비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조권형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신 구본영 천안시장님 등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전문 축산인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은 수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축을 활용하지 못했다면 인간은 가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멸종의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류 번영의 밑뿌리인 축산 산업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으뜸생명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축산 부산물은 패션, 인테리어 등과 접목하여 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행복은 먹거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땅에서 직접 기르고 자란 가축들은 그 자체가 신뢰의 마크이자, 안전의 브랜드이며, 안전하고 투명한 대한민국표 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축산인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안으로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 전염병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밖으로는 FTA와 WTO 등 국제 개방화로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즐기며, 결속력을 다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로운 한마당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식량주권 수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서각예술 대제전

〈2015.9.12.〉

역사에 예술을 새기어 세상이 빛나다

초록이 무성해지는 뜨거운 태양 아래, 천혜 바다의 보고(寶庫) 태안에서 『제12회 충남 서각예술 대제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12년의 세월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순수한 열정과 예술혼으로 지역 예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채태선 한국서각 협회 충청남도지회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술에 대한 탁월한 사명감으로 공로패를 받으신 수상자와 뛰어난 예술혼으로 대상을 수상하신 입상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각 예술인 여러분

선진 각국의 패러다임은 산업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창조로 변화하여 왔습니다. 서각은 목판인쇄문화의 발아(發芽)로 '무구광정대다라니경', '팔만대장경' 등 세계적으로 정신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인류의 일류 예술입니다. 한국의 목판인쇄술은 기술을 넘어 종교 및 역사와의 융합을 통해 글 · 그림 · 공예 · 조각 · 회화 · 부조 등 모든 장르를 어우르는 종합예술로 승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깨달음의 명맥을 이어온 각자장(刻字匠)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겨레의 '자랑스러운 대한인'입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문화와 예술을 꽃 피우는 국가만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각예술 대제전은 글씨를 새기는 서각과 그림을 새기는 그림각에 현대화 기법을 가미하여 다양한 주제 및 여러 장르 간 다채로운 작품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맘 따뜻한 감상과 속 시원한 소통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각과 그림각은 남녀노소가

쉽게 접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통 서각 기법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회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명필 한석봉은 팔만대장경의 정교한 판각술을 보고 '육필(肉筆)이 아닌 신필(神筆)이다'라며 감탄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미래는 먹거리보다 감(感)거리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충남인의 가슴에 서각 예술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면면히 흐를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관람객의 몫입니다. 『열두 번째 충남 서각예술 대제전』이 서각작품의 이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정초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름다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서각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서예전람회

〈2015.9.12.〉

흑백에 색을 담은 지필묵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 어귀에 충남인의 손끝으로 탄생한 동양 미학을 선보일 『제23회 충남 서예전람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여년 전부터 한국서가협회 충남지회는 서예의 대가와 기초가 잘 닦여진 동호인과의 교류를 통해 서예의 흥취를 높이고, 서예전람회에서 전시와 퍼포먼스 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일반 대중이 명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목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왔습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컴퓨터가 손 글씨를 대신하면서부터 문방사우(文房四友)란 말이 낯설어진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서예는 결코 폄하 될 수 없는 심신수련의 동양 예술입니다. 종이 · 붓 · 먹의 조화 속에 정신세계가 담겨져 3천년의 예술로 계승되어 왔으며, 문장의 함축적 의미는 긴 역사와 함께 민족혼을 담아 고스란히 계승 발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예인 여러분, 서예가는 단순하게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예술인이 아닙니다. 옛 서예가들은 명산대천과 각지에 흩어진 비석과 묵적을 감상하며 자연과 혼연일체(渾然一體)의 경지를 도달했습니다. 흑백의 미학에 색채가 담긴 예술 철학을 현대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한 서예는 인류의 예술이며, 서예인은 세계의 예술인이라 할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동양미학을 지필묵에 담는 한국 서가협회 충남지회 회원들의 자긍심이 빛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예술을 완성하는 것은 관람객의 몫입니다. 『스물세 번째 충남 서예전람회』를 통해 내면의 색채가 살아 숨 쉬는 한국의 미를 감상하시는 뜻 깊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 체육대회
〈2015.9.14. 당진시 실내체육관〉

행정의 눈과 귀, 주민의 손과 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과 함께하는 충남을 위한 『2015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용주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 지부장님과 김홍장 당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석두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충남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과 마주하고 있으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SNS와 인터넷 등 각종 매체들이 발달해 있지만, 지역별 정보격차는 더욱 커지고, 도움의 손길은 점점 각박해져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고민해 왔습니다. 이웃의 얼굴조차도 모르는 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요즈음의 세태 속에서 지역의 가로등을 자처한 이·통장님들은 오랜세월 행정의 눈과 귀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묵묵히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아직도"미숙한 단계"라고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애써주시지 않았다면 이것마저 보장할 수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너무도 많은 일들을 해내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시간입니다. 맘껏 웃고, 즐기며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5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체육대회』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범도민대책위 발족식
〈2015.9.14. 충남도청 대회의실〉

지방분권이 미래의 정치 질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진보하는 미래」를 향한 범도민적 율력다짐 행사를 준비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임동규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신 이명수 국회의원님, 김동완 국회의원님, 복기왕 아산시장님, 김홍장 당진시장님 등을 비롯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님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경제에 더 이롭고 국민행복에 더 가까운 선택을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민은 국민이며, 지역은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을 향한 해바라기이어야만 하고, 어떤 권한이나 이슈에 대한 올바른 판단 근거 또한 주민이어야만 합니다. 엘빈 토플러 등 세계 석학들은 "미래사회의 최고 가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미래의 정치 질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道는 눈앞의 실익을 위해 당진항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 동북아 허브항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토 이용, 주민 편의, 상생발전 등 체계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발족식은 관할권을 되찾겠다는 범도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민·관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미래지향적 사례의 단초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충남땅 수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을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2015.9.15.〉

신생벤처 "농업"을 설계하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계절 가을의 어귀에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이 열리게 되어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농민은 생명지기'라는 소신으로 일류 농업을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사 참여를 위해 멀리 해외에서 우리 道를 방문해주신 막운화 중국 상하이시 농촌공작 판공실 처장님, 호소가와 도리히로일본 前 총리,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님, 가와카츠 헤이타 시즈오카현 지사님, 구택기 북경대 교수,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님,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님,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은 인류의 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농업은 인류 탄생과 맥을 함께 한 가장 오랜 된 산업으로 농민은 세계사를 창조하는 생명 장인(匠人)의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식량 · 물 · 에너지 · 자원 등 인류가 풀어야할 이슈의 중심에는 농업이 있으며, 생명산업은 신의학 · 신소재 · 신환경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 첨단산업이자, 신생 벤처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폭넓은 글로벌 이슈와 함께 농업이 나아갈 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천적 대안을 공유하여 자치농정의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는 단초가 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욱이 동아시아 전문가

들의 고견은 깨어있는 농민 · 도전하는 농촌 · 함께 하는 농업의 화수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누구나 살고 싶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젊은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이번 포럼의 가장 큰 결실은 농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동아시아 지방정부간의 맘 따뜻한 이해와 속 시원한 소통일 것입니다. 거듭 『2015 한 · 중 · 일 지방정부 3농포럼』을 축하드리며,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정신장애가족 한마당큰잔치
〈2015.9.18. 홍성 홍주문화체육센터〉

장애는 불행이 아닌 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풍성한 가을에 『제15회 충남정신장애가족 한마당』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김흥래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충남지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덕래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협회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 장애는 불행이 아닌 불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에는 아직도 사회적 여건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장애인을 보살펴온 가족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장애를 차등이 아닌 다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오늘 만큼은 일상에서 벗어나 다 함께 웃고 즐기며 저마다의 특기를 맘껏 뽐내는 기분 좋은 한마당이 되길 바랍니다.

충남도의회는 장애인의 든든한 어깨동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열다섯 번째 정신장애가족 한마당 큰잔치』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2015.9.19.〉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는 가슴벅찬 어울림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수확의 계절에 국방의 도시 계룡시에서 『제41회 충남합창경연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소리는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악기입니다.

선진 각국의 패러다임은 산업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창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는 '음악을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만큼 음악은 영혼과의 교감을 예술로 승화한 것입니다. 목소리는 가장 역사가 깊고 다양한 선율을 지닌 악기이며, 목소리를 연주하는 합창은 조화와 어울림을 통해 관객과 하나가 되어 무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 예술인'이신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210만 충남인은 가슴 벅찬 하모니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꽃 피우는 국가만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창경연대회는 노래를 부르는 단원과 듣는 관객이 맘 따뜻한 감상과 속 시원한 소통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래는 먹거리보다 감(感)거리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충남인의 가슴에 세계 공통 언어인 음악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소양이 면면히 흐를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관람객의 몫입니다. 다시 한 번 아름다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음악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지사기 농악대회

〈2015.9.19.〉

빠져보자 멋! 취해보자 흥!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수확의 계절에 풍요로운 예학의 고장 논산에서 『제14회 충청남도 지사기 일반 남녀 농악대회』가 성대하게 열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악은 우리 민족의 흥이자 민족혼이며, 수많은 침략과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온 대한민국표 정신 유산입니다. 그런 까닭에 1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농악대회를 지역 축제로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농악은 이제 한국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음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사물놀이는 세계 타악기 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은 문화의 밑뿌리이며, 문화는 미래의 종결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道 농악인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변에서 전통 음악을 접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 일로 되었고, 외국의 음악과 춤들이 범람하는 현실에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앞으로 젊은 세대가 우리의 소리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대회를 완성하는 것은 관객의 몫입니다. 『열네번 째 충청남도 농악대회』의 멋진 한마당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벅찬 감동을 누려보는 뜻 깊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량사 점안식 및 힐링 산사음악회
〈2015.9.19. 부여 무량사〉

치유와 깨달음의 음성 공양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수확의 계절에 『부여 무량사 극락전 삼존불 후불탱화 점안식 및 제3회 힐링 산사음악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무량사는 다양한 국보급 보물과 지방문화재를 간직한 불교문화유산으로 통일신라 때 범일국사가 창건하여 1,300여년 동안 부처님의 설법을 전하고 중생을 구원하는데 정진하여 온 천년고찰입니다.

사바세계 안에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불자들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빛을 새기게 될 삼존불 후불탱화 점안식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과 뜻을 받들어 상생하고 화합하는 기도와 교화의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며, 만중생의 심신을 치유하고자 열리는 힐링 산사음악회는 백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송림 고찰의 멋스러움과 만수산의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신명 나는 음성 공양인 동시에 지역민과 불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는 종교 문화로 승화될 것입니다. 특히, '산사음악회는 지루한 불교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대중가요를 과감하게 가미하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색적인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의 가장 큰 결실은 '치유와 깨달음'일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민생의 고난을 함께하신 부처님의 자비를 전파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름다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여 무량사』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추석맞이 영상메시지

〈2015.9.21.〉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풍요로운 가을은 드높아진 하늘만큼이나 고향과 친지를 떠올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210만 도민 여러분 !

올해는 연초부터 구제역과 메르스 등 국민적 불안거리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심각한 가뭄이 국가적 근심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어떠한 난관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왔으며, 어려운 때일수록 손길이 미쳐 닿지 않는 곳을 찾아 위로와 온정을 베풀어 왔습니다. 올해도 소외된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바빠진 농가의 부담을 헤아려서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명절에도 국내외 노동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근로자 여러분들과 묵묵히 민생 현장을 돌보고 계신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관계자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비춰주는 보름달처럼 도민 한분 한분은 충남을 밝혀주는 가로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항상 도민 곁을 함께 하겠습니다.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없이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사진대전 시상식

〈2015.9.22.〉

순수의 세계로 빠져드는 공감의 타임캡슐

아름다운 창조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 회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풍성한 계절에 『제45회 충청남도사진대전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는 강산이 다섯 번 변한 반백의 세월 가까이 무수히 많은 사진대전을 통해 충남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충남을 재발견하는 순수 예술의 풀무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회원들은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그늘진 구석구석을 필름에 담아 온정과 봉사의 손길을 제공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빛의 나팔수였던 것입니다. 추억을 담은 아름다운 세상과 더불어 사는 참 지역사회를 열어주고 계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 회원 여러분들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 지난 달에 있었던 교황방문 1주년 기념 사진전은 하느님이 빛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 가운데 자비로이 부르시는 생생한 영광을 전하는 위대한 예술의 전당임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번 사진대전은 소박하고 정겨운 추억의 소재를 되살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나브로 순수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공감의 타임캡슐이 될 것입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사진대전을 완성하는 것은 관람객의 몫입니다. 다시 한 번 『마흔다섯 번째 충청남도사진대전』을 축하드리며,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청소년 활동의 창

〈2015.9.30.〉

미래 100년 승리의 영광을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풍성한 가을에 『충남청소년 활동의 창』을 발간하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꿈나무 여러분, 일본은 지금까지도 동아시아의 근대사를 왜곡하며 교과서와 언론을 통해 진실을 감추어 왔습니다. 이번 책자는 미래 세대들이 광복을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나라사랑의 길이자, 국가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한국사 바로알기의 자명고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충남청소년 활동의 창』은 광복의 날을 '승리의 날'로 기념하며 독립 선열의 정신적 철학을 되짚어본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아시아 공동체'를 선도하고 통일의 굳건한 의지를 천명하는 세계 평화의 성공 밑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발간을 단초로 우리 아이들이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하고, 국제무대에서 자신 있는 세계인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것입니다.

『충남청소년 활동의 창』의 가장 큰 결실은 숭고한 역사관과 통일관 배양이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2015.9.30. 예산 무한천둔치공원〉

참 소방의 톱니바퀴, 이웃사랑의 첨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하게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2015년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이호명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1만여 충남의소대원 안에 안전 충남이 있습니다. 바쁜 생업 중에도 소방자치를 몸소 실천하며, 재난·재해의 현장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인명구조에 힘쓰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 속에서도 불길과 사고현장을 뛰어드는 진정한 영웅인 의소대원들은 이번 역량경연을 통해 생명 가로등으로 거듭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명절과 휴일에도 가족보다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피고, 온정을 함께 나누는 충남의소대원의 아름다운 봉사는 참 소방자치의 톱니바퀴이자, 이웃 사랑의 첨병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시·군 대원들은 평소에 틈틈이 갈고 닦은 소방기술을 정정당당히 겨루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道의회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포 수소충전소 준공식

〈2015.10.1. 내포 수소충전소〉

수소로 미래가 아닌 현재를 디자인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들녘이 너울대는 풍성한 가을에 『내포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21세기 수소에너지 시대를 이끄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윤창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과거 · 현재 · 미래는 에너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의 에너지 정책은 소비를 위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최우선이었지만 지금의 에너지는 확보의 대상이 아닌 지속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신기후 체제를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인류 공동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이 에너지 신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내포 수소충전소는 국민의 에너지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직은 신호탄에 불과한 신성장 에너지산업이지만, 이번 준공식은 관련 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부품산업 육성 등의 밑돌이 되는 것은 물론, 충남의 더 나은 성장과 국민의 더 좋은 환경을 이끌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의회는 에너지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파워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축하드리며,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4회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2015.10.2. 당진종합운동장〉

건강한 삶이 금메달입니다

생활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가을을 맞아 환황해권 행복 도시 당진시에서 『제24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활체육대회는 24년간 충남의 건강 길잡이로서 지역과 세대를 넘는 도민 화합의 향연이자 튼튼한 충남을 만들어온 일등 공신이었으며, 활기찬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체육인은 물론 도민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의 활화산이었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오래갑니다. 체육은 건강의 근간인 까닭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값진 땀방울을 흘리신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선수단 · 응원단 ·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행사를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은 메달리스트이고, 도민 여러분들은 든든한 감독이자, 코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경쟁 속에서 타오르는 환희와 감동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만큼은 웃고, 즐기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 주십시오. 희망찬 체육 한마당은 내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 밑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스물네 번째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선수단과 임원,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2015.10.3.〉

알록달록 꿈을 키우는 충남

보육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풍성한 계절에 『2015년 충남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한마음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의 인권과 인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친교와 화합을 다지는 허심탄회한 소통을 기대해 봅니다.

아이들은 현재의 거울이며, 미래의 운명입니다. 우리 도내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놀이와 슬기로운 배움을 담아내는 행복 그루터기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아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열어주는 세상,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바르게 하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없다면 반쪽 난 지구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맘껏 놀고 배울 수 있어야 살맛나는 충남입니다. 올망졸망 작은 꿈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정성껏 가꾸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며,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배인 아이들을 소중히 돌보고 계신 보육교직원 여러분이야말로 미래 보석의 세공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 여건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한마음 대회를 통해 맘 따뜻한 이해와 속 시원한 소통의 장을 열어가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남 참전 51주년 호국안보결의대회

〈2015.10.5.〉

불타는 청춘을 고국에 바치다

애국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풍성한 계절에 『월남참전 51주년과 충남도지부 창립20주년 호국안보결의대회 및 다문화가정 초청 한마음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불타는 청춘은 가족과 조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전쟁터로 돌진했던 애국영령들과 참전 전우들은 피붙이와 국가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기적을 보여준 지구상의 경제 신화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고속도로, 다리, 공장 등 경제개발의 본격화가 가능할 수 있는 국토이용 인프라가 완성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메이드인 코리아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더욱이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은 경제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남전 파병을 계기로 6.25 전쟁 시 우방국에 대한 보답과 함께 동남아시아 전역의 공산화를 막아 외교적 우호 관계를 맺었으며 북한이 넘볼 수 없는 군사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월남참전 용사 여러분들의 복지와 처우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쉰 한 번째 월남전참전과 스무 번째 충남도지부 창립』을 축하드리며,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당마당극 페스티벌

〈2015.10.6.〉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문화의 생화

황금 들녘이 너울대는 가을에 향토 연극인의 예술 무대인 『제3회 예당마당극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어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인 마당극 페스티벌을 마련하신 이승원 한국 연극협회 예산지부 지부장님을 비롯한 연극 예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은 사람에 대한 발견이며, 문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 사회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장 큰 자산인 예술은 아름다운 정서를 심는 토양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금전이 아닌 것에 대한 열정,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환희는 국민의 안목 수준과 국가의 품격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어 왔습니다. 마당극은 배우와 관객이 첫 사랑과 끝 사랑이 되는 종합 예술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예당 마당 페스티벌은 '마당극은 지루하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비보이 댄스, 난타, 방송 댄스 등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향토 예술의 극치로 관객들에게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루 세끼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부터 오랜 세월동안 지역 무대를 지켜왔지만, 아직도 지방에서 공연을 접하기란 흔하지 않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의회는 연극 예술이 대중과 좀 더 가까이 호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축제를 완성하는 것은 관객의 몫입니다. 세 번째를 맞이하는 예당마당극 페스티벌의 멋진 한마당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감동과 재미를 누려보는 뜻 깊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남지회 작품전

〈2015.10.6.〉

예술을 후세에 남기어 세상이 빛나다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풍성한 가을에 세계유산의 보고(寶庫) 부여에서 『2015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남대전지회 작품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로 두 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순수한 열정과 예술혼으로 지역 예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김성규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남대전지회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술에 대한 탁월한 사명감과 뛰어난 예술혼으로 빚어진 작품에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신 입상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국 전통조각은 후세에 빛날 일류 예술입니다.

선진 각국의 패러다임은 산업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창조로 변화하여 왔습니다. 돌과 나무 등 자연 그대로의 묘미를 최대한 살리고자 애쓰는 고유의 한국 조각은 세계적으로 정신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인류의 일류 예술입니다. 한국의 조각술은 기술을 넘어 종교 및 역사와의 융합을 통해 글 · 그림 · 공예 · 조각 · 회화 · 부조 등 모든 장르를 어우르는 종합예술로 승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깨달음의 명맥을 이어온 문화재기능인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겨레의 '자랑스러운 대한인'입니다.

210만 충남인 여러분,

문화와 예술을 꽃 피우는 국가만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화재기능인 작품전은 돌 · 가구 · 불상 · 벼루 등에 현대화 기법을 가미하여 다양한 주제 및 여러 장르 간 다채로운 작품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맘 따뜻한 감상과 속 시원한 소통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남녀노소가 쉽게 접할 수 있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통 문화재 조각 기법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회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먹거리보다 감(感)거리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충남인의 가슴에 문화재 예술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면면히 흐를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은 관람객의 몫입니다. 『두 번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남대전지회 작품전』이 전통 작품의 이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정초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름다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충남대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울림 가족 축제

〈2015.10.9. 도청 문예회관〉

마음이 피보다 강하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스모스가 만발한 기분 좋은 가을에 『제3회 어울림 가족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족애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행사를 준비하신 조삼혁 아산시 건강가족·다문화가족 통합센터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는 단절로부터의 회귀입니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가족의 영역이 축소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불균형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읽었던 이외수의 '황금비늘'을 보면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고아, 장애인 그리고 노인이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어울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을 보면서 저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을 '마음이 피보다 강하다'라는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행복한 가족문화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 번째로 맞이하는 어울림 가족 축제』를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 꽃과 드론 축제

〈2015.10.9. 도청 앞 잔디광장〉

과학과 자연이 만나는 친환경 첨단도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스모스가 만발한 기분 좋은 가을에 『내포, 꽃과 드론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포사랑의 순수한 열정으로 행사를 준비하신 안희정 도지사님, 장영석 도청이전주민 생계조합장님, 함기선 한서대학교 총장님, 윤창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이명수 국회의원님, 이철우 국회의원님, 박남춘 국회의원님, 김민기 국회의원님, 김지철 교육감님, 김양제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내포는 과학과 자연이 만나는 친환경 첨단도시를 향해 비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어린 시절에 하늘을 나는 꿈을 가져 보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드론은 단순히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가 아닌 인간의 시야를 하늘로 높이고 바다로 넓히며, 자연과 어우러진 일상 속에서 더 신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첨단 친구로 변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드높이 수놓은 드론이 지속가능한 내포의 성장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며, 내포 홍보의 일등 공신으로 우뚝 설 것이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포, 꽃과 드론 축제』를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대축제

〈2015.10.22. 도청 문예회관〉

운동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어르신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들녘이 너울대는 풍성한 가을에 어르신들을 뵙는 정겨운 행사가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2회 어르신 대축제」를 준비해 주신 동준 스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시는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대한민국의 뿌리는 은빛 어르신들이며,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는 선진 복지사회의 시금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된 것은 역경과 고난을 꿋꿋이 견디셨던 기성세대들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백세시대의 문턱으로 넘어선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기 위해 고민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가 선용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다함께 웃고 즐기며 신명나는 은빛 한마당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째로 개최하는 어르신 대축제』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사랑의 끈 연결운동
〈2015.10.23. 천안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의 심장을 나누어 주세요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풍성한 가을에 『2015 충남사랑의 끈 연결운동』을 대한민국의 심장부 천안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중한 행사를 준비해주신 정지홍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왔습니다.

행복은 우리에서 출발한다는 삶의 지혜를 실천하며, 고난과 역경을 딛고 풍요로운 충남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 도민들은 늘 함께하며 더불어 사는 가족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크신 사랑을 더 많이 기부해 주세요.

만여 명의 장애학생들은 사회 각계 지도층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는 오늘의 행사를 통해 나눌수록 더욱 커져가는 온정의 손길은 따뜻한 인연을 맺어주는 충남의 오작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입니다.

장애는 불행이 아닌 불편이며,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불편 없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10만 도민과 충남도의회는 장애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도교사의 희망찬 전진을 마지막 순간까지 응원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상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행사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카운슬링 페스티벌

〈2015.10.23.〉

양성은 소유가 아닌 균형적 존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들녘이 너울대는 가을에 『제10회 충청남도 카운슬링 페스티벌』이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행복 충남을 위한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엄소일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투철한 사명감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과 가정 폭력 예방에 헌신한 공로로 수상의 영애를 안으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性은 평등할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가정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행복한 사회는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하며, 가족 간의 존중은 안전한 사회로 가는 핵심 가치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4대악'을 넘어 '사회악'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큰 틀을 위협하는 가정폭력은 범국민적 공감대 속에 문제점이 인식되어야만 근절될 수 있습니다.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는 12년동안 피해여성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 피해 여성들의 '홀로서기'에 앞장 서 왔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감명적인 연극공연이 함께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여성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풀무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열 번째 충청남도 카운슬링 페스티벌』을 축하드리며,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포 영산대제

〈2015.10.24. 예산 법륜사〉

소리와 춤으로 사바와 극락을 잇다

높아진 하늘이 고즈넉하게 느껴지는 수확의 계절에 『2015년 내포 영산대재』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전하는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보명 주지스님을 비롯한 법륜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륜사 내포 영산대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 등에서도 불교문화의 한류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사바세계 안에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내포 불교무용인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이 펼쳐지는 동안 불자들의 마음에는 자비와 지혜의 빛을 새기게 될 것이고, 우리 지역 방언이 섞인 특유의 소리와 굿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과 뜻을 널리 알리는 울림이 될 것입니다.

내포영산대재는 수암산 자락의 굴바위절 법륜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엄한 제사 공양으로 지역민과 불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는 참 불교 의례이자, 세계 으뜸 문화유산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다채로운 불교 제례의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인 내포영산대재는 '불교 의식은 지루하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특색 있는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의 가장 큰 결실은 '치유와 깨달음'일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민생의 고난을 함께하신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파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름다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 법륜사』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마당
〈2015.10.28. 보령 문예회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풍성한 가을에 『제18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마당』을 세계머드축제의 본고장 보령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십 년 가까운 세월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중한 행사를 준비해주신 권광선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의 종합선물세트를 나눠드립니다.

미래는 먹거리보다 느낄 거리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신체의 불편함을 이겨내고 예술혼을 불태운 감명 깊은 창조의 한마당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그늘을 거두는 단초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육감의 창조가 더해진 즐거운 소통을 함께해 주세요. 문화예술 창조는 인류의 기본 욕구이며,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체성과 자신감의 주춧돌이라 하겠습니다. 시 · 회화 · 서예 · 풍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만의 숨겨진 재능과 끼를 맘껏 뽐내는 관객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이 스며들 것입니다.

장애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이며,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구어낸 불멸의 작품들을 210만 도민과 저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장애 예술인의 희망찬 전진을 마지막 순간까지 열렬히 응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세상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행사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공익단체 통합한마당

〈2015.11.6. 아산시청 대강당〉

마음으로 맺은 가족, 어울림 충남

존경하는 공익단체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슴 설레며 첫 눈을 기다리는 겨울 어귀에 중부권 중추도시 아산시에서 『2015 충남공익단체 통합한마당』이 열리게 되어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따뜻한 마음의 감동'을 한데 모으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2015 충남공익단체 통합한마당 추진위원회 이상선, 이윤기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도민 모두가 더불어 웃을 때 진짜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미쳐 닿지 않는 그늘진 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 묵묵히 봉사해 오신 여러분들의 선행은 참된 행복을 밝히는 세상의 가로등이며, 미소 충남을 빛나게 하는 나눔의 세공사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는 단절로부터의 회귀입니다. 몇 해 전 읽었던 이외수의 '황금비늘'을 떠올리면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고아, 장애인 그리고 노인이 서로를 보듬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어울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더 잘사는 충남」이 아닌 「다 잘사는 충남」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옛말을 '맘은 피보다 강하다'라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는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살맛나는 미래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민의 사랑을 듬뿍 싣는 『2015 충남공익단체 통합한마당』을 기대하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2015.11.6. 부여 문예회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황금빛 들녘이 너울대는 풍성한 가을에 『2015 충청남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를 세계유산의 본고장 부여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십오 년의 세월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중한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체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애를 안으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장애는 불행이 아닌 불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맘 따뜻한 이해와 속 시원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애는 차등이 아닌 다양의 대상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숭고한 재활 의지를 응원하겠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마음대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 다 함께 웃고 즐기며 저마다의 특기를 맘껏 뽐내는 기분 좋은 한마당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장애인은 물론,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온 가족과 지도교사의 희망찬 전진을 마지막 순간까지 열렬히 응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세상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행사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매헌 윤봉길의사 국제 심포지엄

〈2015.11.6. 예산 리솜스파〉

숭고한 정신 전 세계로 울려퍼지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평화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탄신 107주년 기념 매헌 윤봉길 의사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발제 및 토론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동북아 평화를 꽃 피우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해주신 이우재 매헌윤봉길월진회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멀리 해외에서 우리 道를 방문해주신 중국, 일본, 몽골의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거듭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 현재 · 미래를 논하고자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각양각색 전부 다른 색깔일 것입니다. 1세기 전 나라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셨던 애국선열의 꿈은 단 하나, 대한의 독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동북아의 평화이자, 전 인류의 안전이었기에 간절히 소망하며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암흑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헌신하셨던 윤봉길 의사는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도 독립운동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의 숭고한 정신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로 울려 퍼졌고, 독립의 기틀이 되어 한국인을 세계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백년 전의 어제, 오늘, 그리고 천년 후의 내일을 잇는 역사의 타임머신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생활음악 경연대회

〈2015.11.6. 천안시 문예회관〉

예술의 뜰 천안에서 음악을 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눈을 기다리는 겨울 어귀에 감성의 도시 '천안'에서 『제7회 대한민국 생활음악 경연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진 각국의 패러다임은 산업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창조로의 변화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일부 계층이 누리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영위하고 즐길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었고, 사회적 교양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연은 사흘간 여덟 부문에서 경륜과 실력을 겸비한 전국의 음악인들이 실력을 선보이며 문화 의식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나팔수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먹거리보다 감(感)거리의 가치가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충남인의 가슴에 예술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면면히 흐를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예술을 완성하는 것은 관람객의 몫입니다. 『일곱 번째로 맞이하는 대한민국 생활음악 경연대회』가 음악 예술의 이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단초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름다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생활음악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2015.11.9. 예산 문예회관〉

항상 위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3회 소방의 날 행사』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이일용 예산소방서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기념식을 위해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홍문표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님, 황선봉 예산군수님, 김용필 도의원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역(周易)에 안불망위(安不忘危)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위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과하지 않은 소방 안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소방 활동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의로운 일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소방관들은 사건사고 현장에서 매 시간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도민은 물론, 소방인까지 안전해야 진짜 안전한 예산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며, 화마와 싸우고 있는 소방가족을 충남도의회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쉰 세 번째로 맞이하는 소방의 날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2015.11.11. 예산 문예회관〉

건설은 경제성장의 심장이자 중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 창립3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 신홍균 중앙회장님과 김택환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기념식을 위해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홍문표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님, 이명수 국회의원님, 김동환 국회의원님,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에 대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의 심장이자 중추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의 대한민국은 건설 산업 이라는 튼튼한 반석이 있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건설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기술력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신 성장동력의 횃불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경제 불안정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지역 건설인 여러분은 역량과 지혜를 모아 성실한 시공, 앞선 기술개발, 투명한 경영으로 도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역 전문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립110주년 기념 대한적십자사 연차대회
〈2015.11.12. 충남도청 문예회관〉

차별 없는 사랑의 효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립 110주년 기념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연차대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대한적십자사 김선철 대외협력실장님과 민경용 대전세종충남지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기념식을 위해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적십자는 차별 없는 사랑의 효시입니다. 전 세계 189개국, 1억명의 적십자 봉사원들은 전쟁의 포탄 속에서 적군을 치료해 주고, 아이티와 같은 재앙지역에서 희망을 나눠 주며, 참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150년 동안 이어온 헌신적인 발자취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과 나눔의 메아리가 되어 全 인류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십자 희망나눔 봉사센터가 내포신도시 에 건립되면 사랑 충남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무한 사랑을 펼치고 계신 적십자 봉사원들의 값진 활동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의 무궁한 발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전진대회
〈2015.11.13. 공주 종합운동장〉

더 잘사는 충남을 넘어 다 잘사는 충남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슴 설레며 첫 눈을 기다리는 겨울 어귀에 세계유산의 본고장 공주시에서 『2015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전진대회』가 열리게 되어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바른 세상, 밝은 미래'를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선진국 대열로 발돋움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도덕성 회복입니다. 대한민국표 국민 화합의 분수령인"바르게살기운동"은 사랑 · 신뢰 · 봉사라는 사명아래 선진 한국을 이끌어온 정신혁명의 일등공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충남인은 문화교양인의 소명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의 돌파구는 경쟁이 아닌 화합이며, 이번 행사의 가장 큰 결실은 '다 함께 열어가는 바른 충남'일 것입니다.

지금은 「더 잘사는 충남」을 넘어 「다 잘사는 충남」을 만들어 오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오신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며, 살맛나는 미래를 열어 가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민의 사랑을 듬뿍 싣는 『2015 바르게살기 회원전진대회』를 기대하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척수장애인의 날
〈2015.11.13. 천안 장애인종합복지관〉

도민이 여러분의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눈을 기다리는 겨울 어귀에 『제6회 충청남도 척수장애인의 날 행사』를 맞과 멋의 고장 천안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중한 행사를 준비해주신 정병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척추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힘써 온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앉으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장애는 불행이 아닌 불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맘 따뜻한 이해, 속 시원한 소통으로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장애는 차등이 아닌 다양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숭고한 재활 의지를 응원하겠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는 장애인은 물론,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온 가족과 봉사자들의 희망찬 전진을 마지막 순간까지 열렬히 응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세상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행사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축구클럽리그 최강전
〈2015.11.14. 예산 종합운동장〉

절대강자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

한해를 정리하며 첫눈을 기다리는 겨울 어귀에 『2015 충남축구클럽리그 최강전』을 천년의 역사, 향기 가득한 예산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예산군민의 무한한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대회에 참여하신 시군 선수단 및 관계자 여러분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축구만큼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게 하는 스포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는 작은 공이지만, 그 안에 꿈과 신념이 있고, 애국심이 있으며, 세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 국가대표선수 박지성은 "그라운드에 내가 있다면, 내 안에 그라운드가 있다"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축구 그라운드 안에서는 절대 약자,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만이 존재할 뿐인 것이며, 그런 까닭에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하며 아름다운 경쟁 속에서 타오르는 환희와 감동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를 즐긴다는 것은 무엇보다 승부를 떠나 자신이 갈고 닦은 최상의 실력을 뽐내며, 선수들과 서로 화합하는 행복한 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무대를 210만 도민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5 충남축구클럽리그 최강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선수단과 임원,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통일 충남대회 및 문예제전

〈2015.11.16.〉

민족 통일과 국민 화합의 가로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슴 설레며 첫 눈을 기다리는 겨울 어귀에 역사문화의 본고장 홍성군에서 『2015 민족통일충청남도대회 및 제46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이 열리게 되어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된 대한민국'을 향한 범국민적 울력다짐 행사를 준비해주신 민족통일 충청남도협의회 김광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바른 통일관과 탁월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겨레의 소원은 한반도의 통일 회복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은 물론, 아시아의 안보이자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한 교두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행사는 민족통일에 대한 우리 겨레의 염원을 문학과 예술로 표현하며 남북이 하나 되는 세상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통일의 기상을 펼치는 벅찬 무대가 될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과 범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민·관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미래지향적 사례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족 통일과 국민 화합의 가로등을 자처하신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회원 여러분들의 애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는 우리 모두의 통일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겨레의 소원과 예술을 담은 『2015 민족통일충청남도대회 및 마흔여섯 번째 한민족통일문예제전』을 기대하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통합직원관사 준공식
〈2015.11.20. 예산 경찰청기숙사〉

도민 곁에 더 다가서는 충남안전 지키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돌아보며 첫눈을 기다리는 겨울 어귀에 『경찰청 통합직원관사 준공식』이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양제 충남지방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과 유관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고 3번째로 맞는 겨울,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 직원여러분의 관사를 준공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지역 현장 곳곳을 누비며, 사건사고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경찰 여러분들이 있어서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청 통합직원관사 준공식은 '행복한 충남' 건설하기 위한 주춧돌에 정초를 새기는 고무적 계기라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은 지역밀착형 치안에서 출발합니다. 내포에 자리 잡은 직원관사는 도민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충남 안전 지키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찰청 통합직원관사 준공식』을 축하드리며, 충남지방경찰청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난엽예 명품대전

〈2015.11.21.〉

건전하고 맑은 정신의 문화컨텐츠

한해를 돌아보며 첫눈을 기다리는 겨울 어귀에 『2015 한국난엽예명품대전』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십오년의 세월 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난 문화의 보급과 저변 확대로 한국 난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하여 한류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해 오신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난초는 겸손과 지조의 상징입니다. 매난국죽 사군자 중에서 난초는 고결한 선비를 상징합니다. 부패와 비리에 얼룩진 요즘, 은은한 향기를 지닌 한국란이 더욱 사랑받는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산에서도 향내를 숨기지 못하는 난은 건전하고 맑은 정신을 나타내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국난은 세계의 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의 패러다임은 산업에서 지식, 창조로 변화하여 왔으며, 한국의 난 산업은 창조 문화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한국의 자연예술 문화의 위상을 고양시키고,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각지와의 교류를 통해 자연보호 및 자생지복원운동을 함께 하는 의미 깊은 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미래는 먹거리보다 감(感)거리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충남인의 가슴에 한국난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면면히 흐를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름다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난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시상식

〈2015.11.24.〉

주민 참여의 사랑방

『2015 풀뿌리자치대상 시상식』을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1988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지역 언론은 중앙 언론의 위력, 방송미디어의 발달, SNS의 활성화 등 언론매체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역민의 여론을 대변하며,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위한 언론의 사명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지역신문과 함께 참 민주주의의 부활에 힘쓰며, 민의를 꽃피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세종 · 충남지역신문협』이평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를 잘 숙성시켜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는 주민 참여의 사랑방인 지역 언론은 지역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자치분권을 발전시켜 온 참 민주주의의 밑뿌리이기에 이번 풀뿌리자치대상의 의미는 실로 가슴 벅차다고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세종 · 충남지역신문협』과 발맞춰 나갈 것입니다.

거듭, 『올해 풀뿌리자치대상』 수상자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며, 세종 · 충남지역신문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2015.11.25. 온양관광호텔〉

열정과 투혼을 보여준 우리 선수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남의 기상을 드높이신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대회를 위해 힘쓰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단 여러분! 열정과 투혼을 보여주신 선수단 여러분들이 참으로 대견스럽습니다. 작년보다 한 단계 높은 종합 6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여러 종목에서 포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선수단을 끝까지 뒷바라지한 충남체육회와 지도교사 그리고, 경기단체와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대회의 눈부신 활약은 내년에 우리 道 아산시에서 개회되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밑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의회는 210만 도민과 함께 고향의 명예를 빛낸 선수단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준 선수와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해단식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체험전시회
〈2015.11.25. 예산 조찬형창호전수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창이자 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문화가 있는 날 - 생활목공예』체험전시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충남 문화재단 임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황선봉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道는 전통 문화예술의 토양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곳 예산군 조찬형창호전수관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창(窓)이자 문(門)으로 조상의 지혜가 담긴 전통산업의 보고(寶庫)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道 지정 무형문화재이신 조찬형 · 박학규 · 정봉기 선생님은 오랜 세월동안 전통창호, 목판본 서각, 세한도 필통의 맥을 이어오신 자랑스러운 예술인들이십니다. 이번 생활 목공예 체험은 그 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가장 한국적인 민속공예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전통예술 향한 무한한 사랑을 펼치고 계신 우리고장 예술인들의 값진 활동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충남문화재단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의 이야기 미술작품 전시회
〈2015.12.1. 충남도의회 홍보관〉

가장 충남적인 지역 미술의 가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의 이야기』미술작품 전시행사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에 흔쾌히 응해주신 바탕W회 이미정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는 천오백 년 전 백제왕국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세계유산의 본고장이자 충청남도의 심장부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전시 행사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리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1인 3역을 해 오신 여성작가들의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작품하나 하나를 감상하는 동안, 추억과 그리움이 담긴 공주의 일상을 느끼고 가장 충남적인 지역미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예술 향한 무한 사랑을 펼치고 계신 우리고장 예술인들의 값진 활동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바탕W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체육가족 한마음대회
〈2015.12.2. 천안드라마웨딩홀〉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갖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겨울에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 및 2015 충남 장애인체육가족 한마당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충남교육청 김환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선수단 여러분! 역경을 딛고, 스포츠의 열정과 투혼을 보여주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대견스럽습니다. 더욱이, 작년보다 한 단계 높은 종합 9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여러 종목에서 포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과 체육 진흥에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특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선수단을 뒷바라지한 충남장애인체육회와 지도 교수 그리고, 가족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마당대회는 비장애인과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고무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의 숭고한 재활 의지를 210만 도민과 함께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모쪼록,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 촉진대회

〈2015.12.8. 충남교통연수원〉

행복 공동체의 으뜸 일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한 『2015 새마을운동 촉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조명수 새마을중앙회 사무총장님과 임동규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안희정 도지사님, 오시덕 공주시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탁월한 소명의식으로 올바른 새마을지도자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표 산업화의 분수령인 "새마을 운동"은 경제 · 역사 · 사회를 아우르는 혁명으로 기적의 한국을 이끌어온 번영의 일등공신이었으며, 현대로 접어들면서 나눔 · 봉사 · 배려의 실천덕목이 더해져 뉴새마을운동으로 재탄생하면서 제2 한류이자 글로벌 혁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한해는 연초부터 가뭄과 메르스 등 도민의 근심거리가 잦아지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 또한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가로등을 자처하시며, 묵묵히 봉사에 힘쓰고 계신 시군 및 읍면동 회장단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앞으로도 행복공동체의 으뜸 일꾼이신 새마을운동 지도자 여러분들의 복리증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충남도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벤처인대회

〈2015.12.8. 천안 갤러리아시티〉

무한 경쟁시대의 돌파구는 상생과 협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新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12회 충남벤처인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충남벤처협회 정백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허승욱 정무부지사님, 구본영 천안시장님과 복기왕 아산시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탁월한 소명의식으로 건전한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성공적인 벤처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벤처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박 성과"을 꿈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닌 "지속 성장"의 튼튼한 밑뿌리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경쟁력은 확보되었지만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고용률을 높이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며 성공적인 경영성과를 일구어 내신 한국형 실리콘 밸리의 주인공이신 여러분 모두가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무한 경쟁시대의 돌파구는 벤처인들 간의 상생과 협력일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기술 한국의 운명을 거머쥔 파워 벤처인의 집념과 화합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충남벤처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자원봉사자 대회

〈2015.12.9. 농업기술원 대강당〉

남에게 도움을, 나에겐 보람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행복한 충남을 위한 『2015 충청남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충남자원봉사센터 지순관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탁월한 소명의식으로 건전한 봉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따뜻한 충남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원봉사는 개인의 소양을 넘어 사회를 이끄는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의 빨래를 하였더니 내 발이 절로 희어진다."라는 뜻의 세답족백(洗踏足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는 보람을 남기는 자원봉사의 참 모습을 담은 적합한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헤아리며, 도민과 함께 파워 충남을 이끌고 계신 여러분의 한분 한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참사랑, 참나눔의 토양을 일구어 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도의회는 무한한 헌신을 아끼지 않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복리증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양봉협회 충남도지회 정기총회
〈2015.12.9. 충남도청 문예회관〉

친환경 먹을거리의 블루오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계절에 「2015 한국양봉협회 충남도지회 정기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양봉협회 조균환 회장님, 김용래 조합장님과 김광배 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신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다른 애농 정신과 양봉산업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행복한 삶은 든든한 한 끼 식사에서 출발합니다. 인류의 식량 중 절반가량은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지하고 있으며,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상의 생태계는 멸종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양봉은 단순히 꿀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몇 천 년 동안 인류와 생태계를 지켜온 자연 그 자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곤충은 UN식량농업기구에서 미래 대체식량으로 지목될 만큼 친환경 먹거리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총회가 깨어있는 농심 · 도전하는 농업 · 함께 사는 농촌의 산실로 성장하고,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봉장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양봉인 여러분들의 든든한 어깨동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한국양봉협회 충남도지회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의 날 기념식

〈2015.12.10. 충남도청 대회의실〉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대전충남기업협의회 안경남 회장님, 한국무역협회 이상일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출의 금자탑을 세우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기업인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무역은 국가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을 순환시켜 세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성장의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현대 들어 국가는 하나의 브랜드로 인지되고 있으며, 무역은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경제 성장"의 밑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환율 전쟁, 유가 하락 등 여러 요인들이 뒤엉켜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수출 전망 또한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무역수지 전국 최고치를 달성하며, 성공 신화의 릴레이를 이어나가고 계신 우리 지역 기업인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시시각각 경제 상황이 변하고 있는 무한 경쟁시대에 충남의 기업인들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210만 도민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대전충남기업협의회 및 한국무역협회 충남지역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아산 전국국악경연대회

〈2015.12.19.〉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 눈을 보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에 『제1회 아산 전국 국악경연 대회』가 성대하게 열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여 주실 참가자 여러분들을 31만 아산 시민과 더불어 열렬히 환영합니다.

전통은 문화의 밑뿌리이며, 문화는 미래의 종결점입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은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소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판소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사물놀이는 세계 타악기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민요는 민족혼의 자긍심이자, 한겨레의 정신유산입니다.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한 차원 높은 한국의 소리를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전통국악 동호인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더욱이 '민요는 지루한 전통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현대음악인 랩을 가미하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이색적인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젊은 세대가 우리의 소리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경연을 완성하는 것은 관객의 몫입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산 전국 국악경연대회』의 멋진 한마당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벅찬 감동을 누려보는 뜻 깊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소식
〈2015.12.24. 예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속성장의 튼튼한 밑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 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지역센터 개소식』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백규현 이사장님과 이해긍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자리를 함께 하시는 홍문표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님, 허승욱 정무부지사님, 황선봉 예산군수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대박 성과"를 꿈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 성장"의 튼튼한 밑뿌리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개소식은 장애인 스스로 경쟁력 있는 창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장애는 차등이 아닌 다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한분 한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며, 좀 더 윤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 맞서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파워 장애기업인의 창업의지에 충남道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지역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송년사

〈2015.12.30.〉

최고의 가치는 도민 행복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을미년 한 해가 자부심과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충청남도와 우리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개원한 제10대 도의회가 이제 중턱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40명의 도의원들은 민선 6기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제10대 충남도의회의 의정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등 3대 의정비전의 알찬 결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메르스, 가뭄, 내포 균형발전 등 수많은 격랑들이 있었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돕고 위로하는 수많은 사연들이 감동의 꽃을 피웠으며, 의회, 집행부 그리고 도민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 나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세계유산 등재, 경제 성장률 및 무역수지 전국 최고치 달성, 청풍명월 골드 3년 연속 소비자대상, 메르스 사태 조기극복 등 예년보다 훨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더욱이, 道의회의 3농 혁신 등 정책특위는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 현안의 돌파구를 찾고자 선봉장을 자청하며 최일선에서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 행복입니다. 새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으로 우리 도의회와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민여러분, 2015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찬 새해, 210만 도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2014. 7. 1 ~ 2016. 6. 30)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도민과 함께
(2016년도)

신년사

〈2016.1.1.〉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丙申年) 새 날이 밝았습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 다재다능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유난히 대내외 사건사고가 많았으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방안의 활시위를 잡아 당겨한다는 사례들을 실감나게 보여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메르스, 가뭄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40명의 의원들은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피해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며, 유연한 대처로 어떠한 재난에도 '끄떡없는 충남'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道의회의 3농 혁신 등 정책특위는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 현안의 돌파구를 찾고자 선봉장을 자청하며 최일선에서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道의회는 한결같은 자세로 공감 · 창조 · 실천 의정이라는 3대 비전아래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뛸 각오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 지방의회 의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 · 경제 · 관광 등 新아시아 실크로드를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대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道의회는 도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210만 도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남 여성계 신년교례회

〈2016.1.5. 더 센트럴웨딩홀〉

여성들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충남여성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병신년 새해를 맞아 도내 여성 리더들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오늘 여성계 신년교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청남도 여성의 역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정숙 회장님 등 여성단체 회원들과 지도자 여러분께 반갑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해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이 땅의 어머니들은 수많은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표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족 안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은 물론 당당하게 남성과 경쟁하는 사회인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다재다능하면서도 지혜로운 원숭이처럼 따뜻한 기운으로 건강, 성공, 수호의 길을 다지며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만사형통의 해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여성들의 활발한 자기발전과 사회참여를 높이고 '여성들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드는 일에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발전의 든든한 조력자인 충남 여성지도자 여러분들의 오늘 힘찬 새해 첫 다짐들과 각오들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일보사 신년교례회

〈2016.1.6. 충남도청 대회의실〉

한 단계 도약하는 충남

반갑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도자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대전일보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무대에서 큰 힘이 되어 주신 홍문표, 박수현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님을 비롯한 우리지역의 지도자 여러분께 큰 감사와 더불어 새해에도 변함없는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희망과 기대로 대망의 병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더 나은 발전과 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다재다능하면서도 지혜로운 원숭이처럼 따뜻한 기운으로 건강, 성공, 수호의 길을 다지며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만사형통의 해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우리시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화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충남이 경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도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병신년 새해 도민 모두가 건승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건설기계 충남연합회장 이취임식
〈2016.1.6. 더 센트럴웨딩홀〉

신 성장동력의 횃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아 『전국건설기계 충남연합회 제6대 · 제7대 회장 이취임식』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역 건설기계산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김명배 회장님을 비롯한 제6대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백상현 회장님을 비롯한 제7대 임원 여러분의 힘찬 첫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계 경제 불안정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산재해 있는 난관 속에서도 우리 지역 건설인 여러분들은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 성장 동력의 횃불을 밝혀왔습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 적극적으로 건설의 길을 개척하는 성공적인 2016년을 기대하며, 충남도의회는 지역 건설기계산업의 숨겨진 황금알을 발굴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전국건설기계 충남연합회의 눈부신 발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신년교례회

〈2016.1.7.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경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새해

경제인,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아, 오늘 여러분을 뵙고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신년 벽두에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형기 회장님, 충청투데이 김도훈 사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과 경제·기업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지역 경제는 경제성장률 및 무역수지 전국 최고치 달성 등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며, 멈추지 않는 비약적 발전을 일구어 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함께하신 경제·기업인들이 밤낮없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올 한해 더 많은 발전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은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고 있어,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는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우리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해서 지역경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지역경제 기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충효인성교육원 개원식

〈2016.1.26. 홍성 홍주문화회관〉

충효의 본고장 면모 이어나가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힘찬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뜻깊은 출발을 갖는 충남 충효인성 교육원의 개원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기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원을 개원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하말수 충효국민운동본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고 집에서는 티비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교통도 매우 편리해졌고, 여행도 이곳저곳으로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분명 사람살기가 더욱 좋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과 사회 분위기는 갈수록 추워지고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의 개원은 참으로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의 마음속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나라 충효의 본고장은 충남이었고, 충남에서도 홍성 등 내포문화권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교육원을 중심으로 우리지역의 이러한 자랑스러운 면모를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인성교육의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식
〈2016.1.27.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안전 충남의 첫 날갯짓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은 우리도의 응급 의료 시스템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게 될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첫 날개를 펼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가슴 뿌듯합니다. 먼저, 닥터헬기가 도입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안희정 지사님, 박우성 단국대학교 병원장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는 도서 및 산간 등 의료 취약지역이 많아 이곳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시 이 분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도입이 절실하였고, 그동안 보건복지부, 충청남도와 단국대병원 등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날아다니는 응급실'인 닥터헬기를 전국 다섯 번째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우리 도민에게는 너무도 고마운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든 도민께서 편안한 삶을 보장받는 '안전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헬기의 첫 날갯짓이 우리 도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몸짓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
〈2016.2.3. 충남도립대학교 해오름관〉

인생은 전인미답의 길을 가는 것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충남도립대학교의 제17회 학위수여식을 안희정 지사님과 내외귀빈 여러분을 비롯한 210만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학생들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학부모님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자녀분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역의 인재로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을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큰 박수 한 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수 ~)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사모를 쓴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정말 든든합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큰 자부심과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더 큰 세상에서 당찬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험난한 취업난과 불안한 미래로 인해, 흙수저, 헬조선, 망한민국 등 패배감에 젖은 자조 섞인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매순간 우리 모두는 한 번도 밟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긍정을 선택하여 나가면 긍정의 결과가 나오고 부정을 선택하면 부정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주인공이 되실 것을 인생의 선배로서, 충남도의회 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정들었던 대학 문을 나서게 됩니다. 직업인으로 첫발을 내딛을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지금,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간다는 자신감만은 꼭 가지시고 힘차게 이곳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위를 받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앞날에 큰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더욱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도 더 행복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이 헬리콥터 최종호기 출고식
〈2016.2.16. 예산 유아이 헬리콥터〉

서해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면서 진정한 새해를 여는 시기에, 육군 주력기종 최종호기 출고식이 열리게 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기쁜 자리를 함께 해주신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를 잘 이끌어 주시면서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임성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유아이 헬리콥터」회사는 30년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다 기종 헬리콥터의 창정비를 수행하며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하우를 더욱 잘 발전시켜 앞으로의 충남 항공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도는 새롭게 자리잡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서해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노력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분야에서는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 의정토론회와 항공사 초청 간담회도 열었고, 국회 예결위를 통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국가 예산에 확보하는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최근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안」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 타당성 조사가 곧 시작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충남의 하늘길을 여는 데에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봄을 시샘하는 늦겨울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고등학교 내포신도시 이전 개교식
〈2016.2.23. 홍성고등학교〉

젊고 밝은 에너지 불어넣어 주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새 봄의 문턱에서, 홍성고등학교가 새로운 개교식을 갖게 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님, 홍문표 국회의원님, 강치구 총동문회장님과 이석호 미주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교의 내포 이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지철 교육감님, 정호영 홍성고등학교장님, 김문웅 이전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고는 충남이 자랑하는 명문학교입니다. 1941년 개교 후 75년간 2만 3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이며, 사회 곳곳에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신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충남이 내포신도시로 그 중심을 옮기면서 동북아시아 환황해권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나는 데에 홍성고가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아울러 남녀공학으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곳 신도시에 젊고 밝은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께서도 새롭고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더욱 정진하시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봄을 맞이하는 환절기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양곡가공협회 정기총회
〈2016.3.8. 충남도의회 특별회의실〉

고품질 쌀로 고부가가치 창출해내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경칩'이 지나는 시기에, 이곳 충남도의회에서 '한국양곡가공협회 2016년 대의원 정기 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자리를 준비하시며 노고가 많으셨던 김진경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충남 지회장님과 시·군의 지부장님 여러분, 장미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님,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김진경 회장님은 4대 충남도의원을 역임하셨던 선배님으로써, 현재도 충남도의정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양곡가공협회'는 1966년 7월에 설립되어 50년 넘게 우리나라 양곡가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당시에는 국가식량을 증산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가공하고 쌀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이뤄가는 데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쌀 개방과 소비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지금껏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노력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쌀 산업은 결코 힘을 잃어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한국양곡가공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개관식

〈2016.3.14. 천안 안전체험관〉

더욱 안전한 충남 이루어가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개관식'을 갖게 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며 노고가 많으셨던,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국정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양승조, 박완주 국회의원님과, 이진환, 이종화, 김응규, 오인철, 유병국, 이공휘, 김문규, 김종문, 홍성현, 김동욱, 김연 도의원님, 구본영 천안시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 곳 안전체험관은 충청권에서 최초임은 물론 전국에서도 다섯 번째로 건립된 소중하고 의미있는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 등 인위적인 위험요소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은 물론, 스스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개관하는 체험관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안전 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더욱 안전한 충남을 이뤄가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한국 난대전

〈2016.3.19. KT&G 천안지점〉

한국 난의 멋과 가치 널리 알려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한국 난의 멋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2016 한국난대전」이 오늘 충청남도 천안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온 도민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응률 한국난연합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분들과 전국의 애란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는 이미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난대전」 또한 동양의 아름다움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난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승화시켜 국민들의 건전한 정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원예 산업으로서의 우수성을 전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작년에 백제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중국 등 환황해권의 문화 및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힘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란인 여러분께서도 충남도가 발전하는 모습에 큰 응원을 보태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난 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한국난대전」이 더욱 발전을 거듭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진정한 「국제 난 대전」으로 발돋움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16 한국난대전」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 개소식
〈2016.3.22. 충남희망나눔봉사센터〉

사랑과 희망을 불어넣는 소중한 공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활기찬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오늘, 대한적십자사 『충남희망나눔봉사센터』 개소식이 열리게 된 것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먼저, 대한적십자사 강호권 사무총장님과 민경용 대전 · 세종 · 충남지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양승조, 이명수 국회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백낙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김석환 홍성군수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이 화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다시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미래사회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인간만이 갖는 고유의 가치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적십자'는 150년이 넘는 활동으로 전 인류에게 사랑과 존엄이라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전 세계 189개국, 1억 명의 봉사원들이 전쟁의 포탄 속에서 적군을 치료해 주고, 세계 곳곳에 희망을 나눠주며, 참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소하는 『충남희망나눔봉사센터』 또한, 우리 지역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며 사랑과 희망을 불어넣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적십자 여러분들의 값진 활동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센터의 개소를 축하드리며 적십자사의 무궁한 발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故 윤규상 선생 추모비 제막식

〈2016.3.23. 예산 충의사〉

고인의 열정과 헌신 고이 간직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춘분이 지나며 따뜻한 봄 햇살이 아름다운 오늘, 우리 예산의 큰 어르신인 故윤규상 선생의 추모 1주년을 함께하며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 또한 예산인으로서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작년, 우리 곁을 떠나신 고인을 기리며 '추모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더해지면서 오늘의 뜻깊은 제막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뜻을 모으고 성과를 내기까지 힘을 불어넣어주신 남문우, 최갑식 추진위원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부탁합니다. (~박수~) 아울러 이우재 월진회장님을 비롯한 각계 각층 여러분의 노고에도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자, 역사가이자, 문화인으로서, 윤봉길 의사 선양사업에 평생을 바치신 분으로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아오신 분으로서, 그 분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남아계십니다. 고인의 유훈을 받들어 윤봉길 의사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며, 어르신께서 마지막까지 노력하신 보부상촌을 비롯한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이 탄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도의장으로서 어르신의 유훈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막식이 고인의 열정과 헌신을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덕상무사 공문제 및 보부상 재현놀이 축제
〈2016.3.31. 예산 덕산시장〉

조선시대 상거래의 핵심 역할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활기찬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예덕상무사 공문제 및 보부상 재현놀이』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부상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김영주 예덕상무사 접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신 홍문표 국회의원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 김영호 예산군의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예덕상무사 사원 여러분! 조선시대 건국 이래 꾸준하게 발전해 온 보부상은, 마을 곳곳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물자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이곳 내포 보부상은 조선시대 상거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1851년 이래로 117대 접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 깊은 예덕 상무사는 그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 '충청도에서는 내포를 제일로 삼는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내포의 소중한 유산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내포 보부상촌 조성'과 '보부상 놀이의 충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내포 보부상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8회 한내장 4.3 독립만세운동 기념식
〈2016.4.3. 예산 대의사〉

선열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살자

존경하는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 박기종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귀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가르쳐주신 선열들을 다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19년 4월 3일, 일제침략에 맞서 죽음으로 독립만세를 성토했던, 故인한수 의사님, 장문환, 조인원 선생님과 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영전에 도민의 마음을 담아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70여년이 흘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조국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후손인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일제는 아직도 과거 만행을 반성하지 않으며, 독도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등 동북아시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곳 한내장에서 5천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끝까지 일제에 맞서 싸웠던 그 애국충정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며, 선열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예산의 아들로서, 도의회 의장으로서, 이러한 마음을 되새기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순국 선열들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기원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4회 충남연극제

〈2016.4.5. 예산 문예회관〉

우리 삶 가까이 호흡해 온 종합예술

충남의 연극 예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봄을 맞으며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를 반기는 시기에, 제34회 충청남도 연극제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 해로 서른 네 번 째 맞는 충남연극제는 지역 연극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연극 문화의 확산을 통해 충남의 향토 연극예술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일간 4개 시·군의 극단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연극제에 참여하게 될 충남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멋진 공연들이 펼쳐져, 지역 연극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연극인 여러분!

연극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인류와 함께 걸어 온 뿌리 깊은 종합예술입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이라는 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같이 한 편 한 편의 연극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독창적인 매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연극만의 매력을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계신 예술인 여러분께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는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남연극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연극협회 충남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연극 예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6.4.6. 천안시청 대회의실〉

건강한 삶이 사회유지의 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청명이 지나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보건의료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로 오늘 유공표창을 받으시는 기관과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과 구본영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갈수록 높아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건강한 삶'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우울증과 자살 등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지역사회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들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특히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당부 드립니다.여러분께서 이러한 소중한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희망충남 어울림축제
〈2016.4.19. 당진실내체육관〉

진정한 행복 깨닫고 인생의 승리자 되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면서 대지가 기름지게 된다는 '곡우'와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희망충남 어울림 축제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이자 환황해권의 중심도시인 당진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도민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봄에 '장애인의 날'이 있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을 통해 생명의 신비함과 강인함을 느끼듯이, 여러분들께서 좌절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희망과 용기는 결국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갖게 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는 신체적 조건이나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자신감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우리 충남의 장애인 가족 여러분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장애인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되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기념식과 어울림축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
〈2016.4.21. 충남도청 문예회관〉

예방이 치료보다 최선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활기찬 봄날에 열리는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오늘의 뜻 깊은 행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류진하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윤용선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님과 김성용 전국 자율방재단 연합회 총재님, 이종화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님, 도내 각 시장·군수님들과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율방재단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재작년의 세월호 사건과 작년의 메르스 사태를 보더라도, 자칫 방심하는 순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최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변의 재해위험요소를 살피는 안전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자율봉사의 정신으로 열심히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자율방재단 여러분께서 활발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발대식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자율방재단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2016.4.21. 청양 문예회관〉

도민의 생명지킴이

충남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과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찬 봄기운이 가득한 시기에, 『충남 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도민의 생명지킴이로 앞장서서 노력하시며 오늘의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이호명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과 황정옥 여성 회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윤종인 충남도 행정부지사님, 이종화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님과 김홍열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평소, 생업에 종사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과 각종 재해·재난의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보다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의 안전과 도민의 행복을 지킨다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평소 틈틈이 훈련해 오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을 겨루며 고단했던 일상들은 접어두고 재충전하는 즐거운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대회를 축하하며 충남 의용소방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민화합의 장 홍예공원 유채꽃 축제
〈2016.4.21. 내포신도시 홍보관〉

아이처럼 환한 웃음꽃 피워보세요

내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 시기에 『홍예공원 유채꽃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포를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행사를 준비하신 장영석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윤종인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도청이 이 곳으로 이사를 온 지도 네 해 째가 되었고, 이제는 많은 기관들이 자리를 잡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노력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이주기관의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멋지게 단장한 홍예공원과 넓게 펼쳐진 유채꽃밭을 보니, 가슴이 활짝 열리는 느낌입니다. 오늘만큼은 일상을 접고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환한 웃음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포 주민 여러분!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오래갑니다. 내포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포의 밑뿌리입니다. 앞으로 튼튼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홍예공원 유채꽃 축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이저우의 날 선포식

〈2016.4.22. 충남도청 문예회관〉

한·중 인문교류사업의 힘찬 출발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활기찬 봄기운이 가득한 시기에, 중국 구이저우성과 대한민국 충청남도가 2016년도 한·중 인문교류사업의 테마도시로 선정되어 그 힘찬 출발을 의미하는 '구이저우의 날'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먼 걸음을 해주신 천민얼당서기님을 비롯한 구이저우성 관계자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 회장님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중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오늘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큰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곳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제성장률과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며, 과거 이 땅의 왕국이었던 '백제'의 유적은 작년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21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남도의회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지린성 인대, 허베이성 인대, 헤이룽장성 인대, 옌벤조선족자치주 인대의 주임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고, 동북아 지방정부간 문화와 관광의 적극적인 교류를 약속하는 의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천민얼 당서기님은 구이저우성 인대의 주임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앞으로 구이저우성 인대와도 적극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오늘의 「구이저우의 날」 선포식을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머무시는 동안 충청남도의 멋스러움을 느끼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점등 법회
〈2016.4.25. 충남도청 로비〉

화합과 상생의 정신 실천하자

사랑하는 불자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연등 점등 법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민과 함께 봉축을 합니다.

먼저, 석가세존의 높으신 자비의 뜻을 전해 주시며 충남 발전에 앞장서 오신, 수덕사 옹산 큰 스님과 정묵 주지 스님, 각 사찰의 주지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희정 도지사님과 충남도청 불자회 관계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이웃과 서로 돕고 사랑하는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한 점등 법회가 도민 모두의 경건하고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는 불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불자님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권투연맹 프로복싱대회

〈2016.4.29. 예산 충의사〉

어렵던 시절 '용기와 꿈' 주던 국민스포츠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제43회 매헌윤봉길평화축제」를 기념하며, 「한국권투연맹 제2회 전국신인왕 결승전 및 세계타이틀 경기」가 예산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찾아주신 전국의 복싱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곳 예산군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며 '의좋은 형제'와 '사과의 특산지'로 널리 알려져 왔고, 이제는 충남의 중심이 된 '내포신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언제나 한국 복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이인경 한국권투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싱은 우리에게 국민스포츠를 넘어 어려웠던 시기를 기쁨으로 채워주던 '용기와 꿈' 그 자체였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흘린 감동의 눈물은 모두의 기억 속에 소중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옛 명성을 되찾고자 땀 흘리며 노력하고 계신 복싱 가족 여러분께 큰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다시금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다시금 국민들께 '용기와 꿈'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모두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장의 가장 뜻깊은 행사인 「매헌윤봉길평화축제」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국권투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3회 매헌 윤봉길 평화축제

〈2016.4.29. 예산 도중도〉

숭고한 정신 계승하여 민족정기 지켜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84년 전 오늘, 1932년 4월 29일도 이처럼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 날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제43회 매헌윤봉길평화축제」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이우재 월진회장님과 축제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님, 홍문표 국회의원님, 황선봉 예산군수님, 강재석 예산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윤봉길 의사를 기리며 축제를 열고 있지만, 그 의미는 해가 갈수록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가족 간, 이웃 간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많아지고, 지역 간의 이기심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 지금 모습은 그 분이 원하신 후손들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온몸을 불사르며 대한의 독립을 이끌었던 그 정신을 조금씩 잊고 지내며, 각자의 바쁜 삶에만끌려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 이웃과 지역을 위해 어떤 희생을 베풀었는지, 대한민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 분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며 민족정기를 굳건히 지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예산인으로서, 도의회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한마당 축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관광객 2천만 도약 환대서비스 다짐 결의대회
〈2016.5.3. 온양관광호텔〉

국가 경제를 이끄는 고부가가치 산업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산으로 바다로 나들이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오늘, 충남 관광객 2천만 도약을 위한 환대서비스 다짐 결의대회의 개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합니다. 평소 충남관광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쓰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김인배 충청남도관광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문화와 관광의 실질적인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각 국 참가단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며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여행업과 숙박업 등에 국한되지 않고, 쇼핑을 비롯한 제조업, 건설과 교통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연관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계적으로도 물동량 감소, 저유가, 그리고 중국경기 하강이라는 위험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여 진정한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우리 충남 또한 작년에 백제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대한민국 관광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힘이 모아진다면 관광대국은 현실로 곧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깊은 결의대회를 축하드리며, 한국 관광산업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내포 연산홍 축제

〈2016.5.4. 충남도청 거울연못〉

내포에서 새롭게 활짝 꽃피어나다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5월을 맞이하며, '2016년 내포 연산홍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을 사랑하고, 내포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행사를 준비하신 홍은아 청심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박찬송 초대 청심회장님을 비롯한 퇴직 선배 공직자 분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2012년까지 대전 구도청에서 열렸던 연산홍 축제가 이 곳 내포에서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갑고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도청이 이전하면서, 일과 가정을 꾸려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음에도 꿋꿋이 그리고 열심히 도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헌신해주신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행복한 일터 만들기 과제 발굴 및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청심회원 여러분께 고맙고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이 곳에서 다시 본 축제가 부활하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내포에서 새롭게 활짝 꽃피어난다는 가슴 뿌듯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축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모두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는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내포연등문화축제 봉축법요식
〈2016.5.6. 내포신도시 KBS부지〉

부처님의 자비 내포에 널리 퍼지기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도민 화합과 내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제3회 내포 연등 문화 축제」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봉축을 합니다.

먼저, 석가세존의 높으신 자비의 뜻을 전해 주시며 충남 발전에 앞장서 오신,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 옹산 큰 스님, 수덕사 정묵 주지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희정 도지사님과 홍문표 국회의원님,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님, 김환식 충남교육청 부교육감님, 김석환 홍성군수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도시에서 여러모로 불편함을 감수하시며 열심히 생활하시고, 내포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을 환하게 비추는 연등의 행렬을 바라보니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내포에 널리 펼쳐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새로운 충남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내포신도시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주는 것 같아 가슴 뿌듯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아름다운 축제가 내포 주민과 도민 모두의 경건하고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불자님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2016.5.13. 당진실내체육관〉

생활체육 활성화로 고령화사회 대비하자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가정의 달이면서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2016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당진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건강한 충남을 만드는 데에 애쓰신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 표창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생활체육 어르신 여러분!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빠른 상황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그 속도가 더욱 빠른 가운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향후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순에서 1, 2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고령화와 건강문제가 이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 상황에서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화합과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지켜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다면 고령화시대가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대회가 어르신들의 건강함을 느끼며 함께 기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법회
〈2016.5.14. 수덕사 대웅전〉

부처님의 크신 사랑 다시금 일깨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봉축 대법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봉축을 합니다.

석가세존의 높으신 자비의 뜻을 전해 주시며 오늘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 옹산 큰 스님, 수덕사 정묵 주지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님, 홍문표 국회의원님, 황선봉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다시금 일깨우고 실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소외 받고 그늘진 이웃을 돌아보고 용기와 희망의 등불을 밝히기 위하여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참된 진리를 펼치는 불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 가슴 뿌듯합니다.

모쪼록,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봉행하는 봉축대법회가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의 소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불자님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15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2016.5.20. 서천 해양생물자원관〉

지구 생명체의 고향, 소중히 지켜가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제15회 세계 습지의 날」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님, 노박래 서천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처 및 지자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신 김태흠 국회의원님, 람사르, 와덴해 관계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습지'는 '지구의 콩팥'입니다. 생태계를 정화해주고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양분을 섭취하면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을 얻듯이, 지구 생명체의 고향, 지구의 뱃속과도 같은 곳이 이 곳 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해 '세계 습지의 날'은 람사르 지정 20주년이자 국내에서는 열다섯 번째를 맞는 뜻깊은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 여러분 모두의 큰 열정과 노력을 당부합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서해안 시대'를 맞아 세계 5대 습지 중 하나인 '서해갯벌'을 지켜나가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15회 세계 습지의 날」기념행사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시설생활어르신 및 근무자 한마음대회
〈2016.5.25. 덕산 리솜스파캐슬〉

자랑스런 대한민국 만드신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시기에, 「제10회 시설생활어르신 및 근무자 한마음대회」의 개최를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소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박현주 충남노인복지협회장님과 오세현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설 근무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황선봉 예산군수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시설 근무자 여러분!

지난 날 어려웠던 시절을 나라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하시고, 현재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시는 시설 근무자 여러분들이, 어쩌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소임을 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제나 든든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책무 중 하나입니다. 우리 도의회도 시설생활 어르신들의 복지는 물론 근무자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며 지원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만큼은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며 모두가 화합하는 의미있고 유쾌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만수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14회 충남 자활한마당 대회
〈2016.5.27. 논산 연무문화체육센터〉

우리의 앞날 꿋꿋하게 개척해 나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제14회 충남 자활한마당 대회」가 드넓은 탑정호와 대둔산이 아름다운 논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먼저, 굳센 의지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자활 가족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최동식 충남지역 자활센터 협회장님, 노병갑 충남광역 자활센터장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신 허승욱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님, 황명선 논산시장님, 김종민 국회의원 당선자님, 성낙현 한국자활협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활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 후에 세계가 놀랄 만 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최근에는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점점 각박해져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서며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앞날은 어둡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한마당 대회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
〈2016.5.27. 천안 유관순체육관〉

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에 노력해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에, 「2016년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한마당 축제」가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남도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찾아주신 전국의 척수장애인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충남은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어가면서,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이 서해안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보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에 협회가 출범한 이래 적극적으로 척수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노고와 열정을 쏟아주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회장님과 정병기 충청남도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척수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도민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중도에 장애를 입게 된 경우가 많은 척수장애인 여러분은 풍부한 사회 경험과 다양한 경력을 소유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재활 노력과 사회적 인식개선 운동 등을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가 이뤄진다면, 척수장애인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 의료적 손실을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성숙한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척수장애인 여러분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한마당 축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7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2016.5.31. 공주 백제체육관〉

결혼은 사랑을 창조하는 첫 걸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제17회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서른 세 쌍의 신혼부부 여러분께 210만 충남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이건휘 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랑 신부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결혼'만큼 중요하고 성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결혼은 사랑을 창조하는 첫걸음'이라는 말처럼,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묘약은 결혼에서부터 진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으며 가정을 잘 꾸려 나가시고 이웃과 지역을 밝게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장애인가족 여러분이 행복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성대한 결혼식을 축하드리며, 서른 세 쌍 신혼부부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2회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2016.6.3. 부여종합운동장〉

승패를 떠나 후회없는 승부를 보여주세요

자랑스러운 충남 장애인 선수 및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여름 하늘이 눈부시게 푸른 6월을 맞으며 제22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백제문화의 중심 부여에서 열리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느덧 스물두 번째를 맞는 본 대회는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소중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처럼 성대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이용우 부여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한 마당을 위해 그동안 많은 땀방울을 흘리신 선수단 여러분께 큰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참가선수단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진정한 승자이며,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장애라는 높은 벽을 스스로 뛰어넘고 열정과 투혼의 스포츠 정신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사지가 없는 불편한 몸으로 세계를 돌며 희망전도사로 활동 중인 호주의 '닉 부이치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의 외모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줬는지를 기억할 거에요." 여러분의 활기찬 에너지와 용기들은 도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승패를 떠나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 주십시오. 210만 도민과 도

의회는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감동의 순간마다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우리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22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도민 모두가 즐겁게 화합하는 활기찬 대회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2016.6.4. 천안 시민문화여성회관〉

우리 민족예술의 결정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신록이 푸르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시기에 『제2회 천안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성대하게 열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아울러, 충남의 핵심도시인 천안을 방문해주신 전국의 국악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흥겨운 우리 가락의 정취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대회를 준비하신, 김영실 사단법인 서도선소리산타령보존회 충남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국악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우리네의 삶과 정서, 그리고 예술혼이 녹아있는 민족예술의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음악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소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판소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사물놀이는 세계 타악기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받는 등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한 차원 높은 한국의 소리를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전통국악 가족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악 공연이 많이 펼쳐져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국악을 접하고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면서, 충청남도의회도 도민들께서 우리의 소리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겠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련한 경연을 완성하는 것은 관객의 몫입니다. 오늘의 멋진 한마당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벅찬 감동을 누려보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8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2016.6.9. 예산종합운동장〉

도민 모두를 합심하게 하는 뿌리

햇살이 뜨거워지는 여름 어귀에, 제68회 도민체육대회가 충절의 고장이며 내포신도시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예산군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에 메르스 등으로 인해 대회 직전에 취소가 되는 어려움도 극복하며 올 해 이렇게 훌륭하게 준비를 해주신 황선봉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예산군민의 무한한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대회에 참여하신 15개 시·군 선수단 및 관계자 여러분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오래갑니다. 스포츠도 그러합니다.

68년간 도민체육대회는 지역과 세대를 넘는 도민 화합의 향연이자,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해 온 통로였으며, 활기찬 경기를 통해 체육인, 장애인, 그리고 도민 모두를 합심하게 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충남인 여러분!

우리 도의 체육발전을 위해 값진 땀방울을 흘리신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찬사를 부탁드립니다. 선수단, 응원단,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행사를 진행하신 여러분 모두가 메달리스트이며, 바로 도민 여러분들이 든든한 감독이자, 코치이십니다.

사랑하는 선수단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경쟁 속에서 타오르는 환희와 감동 때문입니다. 오늘 만큼은 웃고, 즐기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명나는 무대를 210만 도민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우리 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 밑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선수단과 임원,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2016.6.16. 보령 웨스토피아〉

여성이 국가와 지역발전의 주역

전국의 대한어머니회 지도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과 김동일 보령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깊어가는 시기에 전국의 여성 지도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6년도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를 이곳 보령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충청남도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대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대한어머니회 임태수 중앙연합회장님과 서경옥 충남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유공표창을 받으시는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머님들은 든든한 가정지킴이 역할은 물론 각자 여러가지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여성권익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 및 복지사업을 펼쳐나가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여성의 행복을 지켜 오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역할은 국가와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국민소득 2만 달러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뛰어난 감수성과 창의력이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가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여성으로서 받게 되는 차별이 없도록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도민을 보듬는 의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 지도자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대회가 여러분 모두의 화합을 이루어가는 뜻깊은 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대천 바닷가를 비롯한 명소들을 방문하시며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여성 지도자 여러분의 앞날에 기쁨과 건강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
〈2016.6.19. 당진 종합운동장〉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활기찬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에, 「제10회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4대 사회악 근절 및 한마음대회」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당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대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유태곤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하신 박종만 자율방범연합회 중앙연합회장님과 윤종인 행정부지사님, 장향진 지방경찰청장님, 김지철 교육감님, 홍문표 국회의원님, 김홍장 당진시장님과 도의원님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자율방범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취약지 순찰 방범활동과 학교폭력 계도활동은 물론, 재해예방과 복구에 앞장서 주셨고, 거리질서 유지와 각종 행사시 안전 지원 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4대 사회악 근절에 앞장서 주시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소중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오신 여러분의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범 정신으로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자율방범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한마음대회는 대원 여러분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일상의 시름은 잠시 잊고 즐겁게 화합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충남평화통일포럼

〈2016.6.22. 천안 독립기념관〉

통일은 우리 역사의 근본적인 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2016년 상반기 충남평화통일포럼」이 충남의 핵심도시인 천안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병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토론에 참여하시는 패널분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현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평화통일 기반구축'입니다.

이는 곧 통일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며, 한반도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국민들의 염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강도 높은 도발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라는 특단의 제재를 취한 것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온 국민의 뜻이 모아지고 노력한다면 남북관계는 새롭게 진전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날 국가발전에 있어 중대한 고비마다 '민주평통'이 중심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것처럼, 남북한의 긴장관계 완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뜻깊은 포럼의 자리가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 통일여론을 확산시키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2014. 7. 1 ~ 2016. 6. 30)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언론사 등
창간 · 발간 축사

천안저널 창간 3주년 〈2014.7.5.〉

참 지역언론의 모범이 되길

공정한 참언론 「천안저널」의 창간 3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천안저널은 창간이후 줄곧 지역주민에게 생생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보다 깊이 있는 심층보도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 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매체의 발달과 경쟁의 심화, 경기침체의 지속 등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도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참언론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김명일 대표님을 비롯한 「천안저널」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매체로서 독자들로부터 사랑받은 공명정대한 지역언론으로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천안저널」의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포타임즈 창간 2주년 〈2014.8.5.〉

초심 잃지말고 정진하는 언론이 되길

내포타임즈」의 창간 2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역언론은 주민의 눈과 귀가 되기도 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건전한 지역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지역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포타임즈」가 있어 도청이전과 함께 출범한 건강한 내포시대를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노력을 하여 왔듯이 공정한 언론으로 기능을 다하고, 특히 내포신도시와 홍성 · 예산지역의 상생발전을 통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창간목적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언론의 소임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내포타임즈」의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청남도의정회보 제2호 발간 〈2014.8.5.〉

풀뿌리 민주주의의 든든한 후원자

『충청남도의정회보』 제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해 말 의정회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회보를 창간하셨고, 이제 제2호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의정회보가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알찬내용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의정회의 선배의원님들은 충남도의회 역사발전의 산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도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고심해 주시는 모습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경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두 번째 의정회보 발간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의정회원님 여러분! 62년 역사의 충남도의회는 이제 제10대 의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의회는 선배 의원님들의 걸어온 발자취를 이어가고 발전시켜 21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가고자 합니다.

제10대 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을 의정목표로 삼았습니다. 10대 의회가 도민들에게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의정회 선배의원님들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정회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충남도의회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정회원님 여러분! 올해는 충청남도의정회가 출범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많은 일들을 해 오신 점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갖으시길 바라며, 충남도의회와 함께 더 발전해 나가는 충청남도의정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2번째 '의정회보'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충청남도의정회와 회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충청남도의회 의정백서 발간 〈2014.8.10.〉

210만 도민 여러분께 바칩니다.

제9대 충남도의회의 지나온 4년간의 활동들을 한권의 책으로 담아 210만 도민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의정백서가 발간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의 활동사항들은 그때그때마다 속기록 등 각종 회의록과 영상, 사진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며 의회홈페이지, 소식지, 그리고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도민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거기에만 머문다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지혜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백서의 발간은 4년마다 갖게 되는 자기성찰의 기회이고 더 나은 내일을 다짐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회의 지나온 모습을 도민에게 소상히 보여드리는 일은 주인인 도민을 섬기는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지난 제9대 의회는 다시 부활한 지방의회가 성년을 넘기던 때에 시작되어 세종특별자치시를 출범시키고, 도민들의 여망이었던 도청이전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도민과 함께 하며 충청남도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기울인 의미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의정활동의 기록들이 「제9대의회 의정백서」에 충실하게 담겨졌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도민의 이해를 돕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발전에 좋은 의정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인간의 행위는 기록됨으로써 잊혀 지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번 「의정백서」가 단순한 기록물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있어 디딤돌이 되어주길 기대하며, 本書를 210만 도민 여러분께 바칩니다.

백서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과 집필 등에 수고하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신문 창간 25주년 〈2014.8.27.〉

'공명정대' 지역 대표언론으로 발전하길

「예산신문」은 지난 25년의 세월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발전과 함께하면서 예산지역 주민의 눈과 귀가 되며 지역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셨습니다.

「예산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정낙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은 도청 이전이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즉, 내포신도시와 함께 충남의 중심지역으로 거듭 날 기회와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균형감 있는 식견과 건전한 지역여론 형성일 것입니다. 바로 「예산신문」과 같은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창간당시와 같은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공정함을 잃지 않고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명정대한 지역대표언론으로 예산주민과 독자들에게 영원토록 사랑받은 신문사로 지속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예산신문」 창간 25주년을 거듭 축하합니다!

충청남도 지적사 발간 〈2014.8.30.〉

충남지적 관리의 유익한 참고자료

충남지적 역사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적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적사" 발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적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인간과 국가의 역사를 뒤 돌아 보는 것과 마찬가질 일 것입니다. 인간은 땅위에서 삶을 영위하고 국가 또한 국토를 바탕으로 존립하기 때문입니다.

지적(地籍)이란 단순히 '지적공부'를 의미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지표면에서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이라고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공적인 측면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적인 측면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호와 재산 가치를 제고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사무는 그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국가안위 뿐 아니라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충남의 지적역사를 총정리 하는 행위는 좋은 역사자료를 넘어 도민을 위한 더 나은 토지행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의 삶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인 지적제도는 아쉽게도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 목적으로 탄생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지적인들의 지혜와 열정으로 지금은 세계에서도 가장 통일되고 체계적인 지적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장 앞서가는 서비스행정을 펼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지적 분야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도와 노력들을 펼치신 지적인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지적사"가 발간되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대한 자료의 발굴과 체계적인 저술에 힘써 주신 편찬위원 여러분과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지적자료 수집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시 한 번 "충청남도 지적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중도일보 창간 63주년 〈2014.9.1.〉

충청인에게 신뢰받는 신문 되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청권 대표 정론지 중도일보의 창간 63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중도일보는 1951년 창간되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감내해온 중부지역 간판 신문입니다. 바로 폐간과 휴간의 아픔 등 시련을 겪기도 하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충청인에게 사랑 받은 신문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정중립, 신속정확, 지역개발'이라는 중도일보사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언론의 기능을 다한 덕택일 것입니다.

지역언론이 살아 숨 쉬고 건전한 여론이 생성될 때 건강한 지역사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도일보가 더욱 더 오랜 시간 동안 튼실한 지역언론으로 크게 발전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중도일보」의 창간 6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남장애인신문 창간 12주년 〈2014.10.20.〉

충남 장애인들의 든든한 친구

충남장애인신문의 창간 12주년을 210만 충남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의식은 조금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에서야 장애인인권헌장이 제정되어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시켜 나가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교육, 고용, 의료, 보험, 결혼 등 사회 거의 전 부문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다르면 장애인들이 사회조직에서 차별을 대부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의 유일한 장애인 전문지인 「충남장애인신문」의 창간 12주년을 즈음하여 새삼 장애인인권헌장 등을 접하며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사회의 궁극적 목표라면, 소외받고 어려운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고 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선상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상은 의식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2년 전 창간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업에 앞장서 오신 충남장애인신문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탁정원 사장님 등 충남장애인신문사 임직원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우리 충남도의회도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충남장애인신문」의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리며, 장애인이 편한 세상을 충남장애인신문의 발전과 함께 기원합니다.

백제신문 창간 15주년 〈2014.11.11.〉

다양한 지역목소리 대변하는 언론 되길

'밝은 생각', '좋은 생각'으로 15년간 쉼 없이 달려온 「백제신문」의 창간 15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의 기능은 신속·정확한 정보전달이 기본이지만, 그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부조리함을 찾아내어 고발함으로서 시정을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보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역신문사로서의 한계와 어려움이 크지만, 사회의 그늘진 곳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뜻을 전달하며 '밝은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 언론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언론이 바로 '백제신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백제신문이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선도자의 위치에서 생생하고 진솔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지역이 안고 있는 공동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데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백제신문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명실공이 지역의 대표신문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홍성신문 창간 26주년 〈2014.12.1.〉

원조지역신문, 참 언론으로 발전하길

지역신문의 원조 「홍성신문」의 창간 26주년을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홍성신문의 애독자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민주화의 물결이 크게 분출되었던 시기에 가장 앞서 창간된 지역신문이 바로 홍성신문입니다. 홍성신문이 창간됨으로써 지역단위의 신문사가 무수히 창간되었고 각 지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풀뿌리민주주의 부활로 이어지는 소중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년의 세월동안 지역언론 문화창달에 혁혁한 공을 세운 홍성신문사의 역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급속한 보급과 디지털 방송미디어의 발달로 언론환경이 격세지감을 느껴질 정도로 변화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칙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신문이 창간시 추구했던 '민주주의적 가치지향', '지역민 생존권 확보', '지역공동체 형성주도'라는 가치를 되새기며 진실한 지역 언론으로 기능을 다하는 한 이 시대의 대표지역신문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홍성신문」 창간 26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변함없이 공명정대한 '참' 지역신문으로 계속 발전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충남교육소식 제100호 특집호 발간 〈2014.12.10.〉

행복한 충남교육의 소통지기

「충남교육소식」의 제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행복나눔 충남교육」으로 제호를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의지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교육가족의 사랑과 노력으로 9년 가까운 세월동안 지속적으로 「충남교육」의 생생한 모습들을 도민들에게 전달해 오셨습니다. 먼저 쉼 없이 달려온 길에 매달 자료수집과 취재, 편집 등으로 소식지 발간을 위해 땀 흘리신 충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세상사가 그렇듯이 좋은 소식들도 있었고 때론 좀 어두운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식지의 기본적 기능은 독자들에게 치우침 없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충남교육소식의 독자인 210만 도민들에게 앞으로도 알찬 소식을 가감 없이 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인간이 된다.'고 말했고,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개인의 인격형성에 있어서나, 밝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나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미래에 희망인 교육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의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충남교육이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걸어 갈 수 있도록 새로이 탄생한 「행복나눔 충남교육」이 '눈'과 '귀'가 되어 살펴보고, 또한 '손'과 '발'이 되어 더욱 가까이에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나눔 충남교육」의 더 나은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늘 충남교육에 대한 행복한 소식들이 지면을 통해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부매일 창간 25주년 〈2015.1.20.〉

'정도의 길' 통해 중부권시대 열어가길

「중부매일」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방자치가 태동하던 시기에 창간되어 「중부권 시대의 재창조」라는 사시를 바탕으로 그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권은 지난 2012년 세종시를 출범시켰고, 서해안시대와 영충호 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비전을 밝히며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방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약자로 방치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중부매일」의 창간정신이 큰 힘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의 대표 지역 언론으로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일보 2만호 발간 〈2015.2.12.〉

충청인의 눈과 귀가 되어온 참언론

지역의 '참언론'으로서 충청인이 눈과 귀가 되어 온 대전일보의 2만호 발행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1950년 창간이후 65년이란 세월 동안 지역민의 알 권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대전일보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대전일보는 지역 밀착형 보도와 지역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해 오며 흔들림 없는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2만호 발행을 맞아 더욱 새롭게 도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시민재단 소식지 창간 〈2015.3.13.〉

도민의 열린 사랑방을 기대하며

「충남시민재단 소식지」 창간을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충남시민재단은 2013년 12월에 창립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변화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기부문화 확산, 시민사회 활성화 등 풀뿌리 공동체 형성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운동을 지원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공익 활동에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시민재단 소식지』가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시대변화를 고민하고, 대응하며, 공유하는 범 충청권의 연대와 협력 정신을 키워 주는 사회의 윤활유로 자리매김하기를 설레는 맘으로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은 곳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남시민재단』과 발맞춰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노력을 하여 왔듯이 지역 시민사회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의제들을 이념적 잣대를 넘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기폭제가 될 지역 언론의 버팀목으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충남시민재단 소식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남일보 창간 23주년 〈2015.3.13.〉

도민의 사랑 듬뿍 받는 신뢰 언론

『충남일보 창간 23주년』을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대전 충청지역 일간신문으로써 네 번째 창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충남일보는 지난 23년동안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충남을 아우르는 화합 · 소통 · 상생을 통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 언론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균형의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봉사하며, 진실한 정론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신뢰받는 언론지로 성장해왔습니다.

애독자들로 하여금 충남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충남일보』 전재철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은 곳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남일보』와 발맞춰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노력을 하여 왔듯이 지역 구석구석 누비며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장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서 도민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는 신뢰 언론의 맥락을 이어가시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충남일보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월간 내포저널 창간 〈2015.5.15.〉

지역 민주주의 실현의 밑거름

『월간내포저널』 창간을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내포시대신문은 2007년 5월에 창립하여 지역민주주의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자 정론직필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였으며, 환황해권시대 지속가능한 내포 발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지역신문으로 첫발을 내딛은 9년 동안, 지역사회의 불우이웃 · 장애인 · 결식아동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소외 계층을 어우르며 공익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내포시대신문』 박해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기조에 뒤처지면 그 문화는 자멸하게 됩니다. 언제나 생생하고 빠른 소식을 심층 보도하며 지평을 넓히는 신개념 월간지로 자리매김할 것을 설레는 맘으로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내포시대신문』과 발맞춰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노력을 하여 왔듯이 지역 구석구석 누비며 미래지향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유하는 파수꾼으로서 도민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는 신뢰 언론의 맥락을 이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월간내포저널』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청신문 창간 10주년 〈2015.4.25.〉

비판하고 귀 기울이는 충남인의 어깨동무

『충청신문 창간 10주년』을 21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충청인과 희망찬 새아침을 함께 하기 위해 2005년 4월 첫발을 내딛은 충청신문은 10년 동안 도민의 눈과 귀가 되었으며, 충남을 아우르는 화합 · 소통 · 상생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 언론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세월입니다.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미래지향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유하는 나침반으로 지역 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 언론의 맥락을 이어온 충청신문이 자랑스럽습니다.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알리고, 시대 변화에 맞춰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10년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은 곳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청신문』과 발맞춰 나갈 것입니다.

애독자들로 하여금 충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알리고자 혼신을 다하신 『충청신문』이경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충청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안신문 창간 25주년 〈2015.5.14.〉

스물다섯해 正 보도 · 昌 문화 · 情 태안

『태안신문』창간 25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안신문은 1990년 5월에 창간호를 발행하여 지방자치의 부활과 맥을 같이해 오면서 오랜 세월동안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지역 신문으로 첫 발을 내딛은 25년 동안 『백혈병 어린이 돕기』, 『태안사랑 가족걷기대행진』등 공익활동과 가족건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태안신문』 박철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의 위력, 방송미디어의 발달, SNS의 활성화 등으로 대변되는 언론매체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역 신문이 존속하는 이유는 현장의 관심과 이슈를 생생하게 보도하며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태안신문』과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태안신문』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공유하는 태안 소식의 선봉장으로서 도민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는 신뢰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태안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전투데이 창간 9주년 〈2015.5.17.〉

9년간 眞 보도의 나팔수

『대전투데이』창간 9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전투데이는 2006년 5월 17일에 창간하여 젊은 생각을 공유하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지역 신문으로 첫 발을 내딛은 9년 동안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계신 『대전투데이』 김성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앙 언론의 위력, 방송미디어의 발달, SNS의 활성화 등으로 대변되는 언론매체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역 신문이 존속하는 이유는 현장의 관심과 이슈를 생생하게 보도하며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대전투데이』와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투데이』는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회를 일깨우는 언론의 선봉장으로서 도민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는 신뢰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전투데이』의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스피플아이 창간 5주년 〈2015.5.28.〉

民을 바라보고 心이 꿈꿔왔던 아름다운 세상

『뉴스피플아이』창간 5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스피플아이는 2010년 출범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방송과 언론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민의 눈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국민 뉴스미디어로 우뚝 섰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생동감 넘치는 국민뉴스를 전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지향해 오신 『뉴스피플아이』 주대환 편집인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언론의 위력, 방송미디어의 발달, SNS의 활성화 등으로 대변되는 언론매체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역 방송과 신문이 존속하는 이유는 현장의 관심과 이슈를 생생하게 보도하며,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위한 언론의 사명에 매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뉴스피플아이』와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피플아이』는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을 찾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뉴스의 선봉장으로서 도민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는 신뢰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뉴스피플아이』의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시사저널 청풍 창간 25주년 〈2015.7.1.〉

明 세상과 快 사회를 열어가는 언론

월간시사저널 『청풍』창간 25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시사저널 청풍은 『2013 문화체육관광부 컨텐츠 기사 우수 잡지』에 선정되었을 만큼 중부권 최고의 월간 시사저널로 사랑을 듬뿍 받아 왔으며, 지역 내 올바른 여론 형성과 지역 발전에 닻을 올린 지 스물다섯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반세기 동안 언론의 길을 올곧게 걸으며, 취재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우수한 인적 자원과 성숙한 혁신 매체로써 언론 보도에 대한 다각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신 월간시사저널 『청풍』 한평용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언론의 위력, 방송미디어의 발달, SNS의 활성화 등으로 대변되는 언론 매체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역 시사저널이 존속하는 이유는 현장의 관심과 이슈를 생생하게 보도하며,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위한 언론의 사명에 매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월간시사저널 『청풍』과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월간시사저널 『청풍』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을 찾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언론의 첨병으로서 도민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는 신뢰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거듭, 월간시사저널 『청풍』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안신문 창간 4주년 〈2015.7.1.〉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언론

『천안신문』창간 4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안신문은 2011년 2월 설립한 이후로 천안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정한 참 언론으로 기틀을 다지며, 지역 내 올바른 여론 형성과 지역발전에 닻을 올린 지 네 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4년 동안 언론의 길을 올곧게 걸으며, 취재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우수한 인적 자원과 IT 기반의 최첨단 매체로써 언론 보도에 대한 다각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신 『천안신문』 김명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언론의 위력, 방송미디어의 발달, SNS의 활성화 등으로 대변되는 언론 매체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역 방송과 신문이 존속하는 이유는 현장의 관심과 이슈를 생생하게 보도하며,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위한 언론의 사명에 매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천안신문』과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천안신문』은 취재 · 기획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현안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함은 물론, 시대 변화를 선도하며 문화 컨텐츠와 융합하는 혁신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천안신문』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포타임즈 창간 3주년 〈2015.8.19.〉

일주일에 한 번, 소식의 풀뿌리

『내포타임즈』창간 3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성신문은 강산이 세 번 변하는 세월동안, 홍성과 예산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정한 참 언론으로 기틀을 다졌으며, 내포타임즈는 2012년 8월 19일 첫 발행 이후로 지역 내 올바른 여론 형성과 지역발전에 닻을 올린 지 세 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진실한 보도와 공정한 여론 수렴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각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신 『홍성신문 · 내포타임즈』 윤두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언론의 위력, 방송미디어의 발달, SNS의 활성화 등으로 대변되는 언론매체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역 방송과 신문이 존속하는 이유는 현장의 관심과 이슈를 생생하게 보도하며,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위한 언론의 사명에 매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내포타임즈』와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내포타임즈』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언론매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현안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함은 물론, 시대 변화를 선도하며 지역민의 관점에서 참다운 신문고의 역할을 다하는 자치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내포타임즈』의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산신문 창간 26주년 〈2015.8.26.〉

올바른 지역여론 형성의 마중물

『예산신문』창간 26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포는 충청남도의 심장부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돌을 맞이하는 예산신문은 충청의 심장박동 소리를 자처하며 올바른 지역밀착형 여론 형성을 통해 알 권리의 마중물이 되는 한편,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최고의 언론으로 기틀을 다져 왔습니다. 진실한 보도와 공정한 여론 수렴을 위하여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전 미디어 성장기반을 확보하신 『예산신문』 정낙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십육 년이면 강산이 세 번 가까이 바뀌는 세월입니다. 긴 시간동안 예산신문은 현장을 누비며 미래지향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유하는 나침반으로 지역 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살아 숨 쉬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 언론의 맥락을 이어왔습니다. 중앙 언론의 위력, 방송미디어의 발달, SNS의 활성화 등으로 대변되는 언론매체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역 방송과 신문이 존속하는 이유는 현장의 관심과 이슈를 생생하게 보도하며,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위한 언론의 사명에 매진하여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실천·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예산신문』과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신문』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언론매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현안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함은 물론, 시대 변화를 선도하며 지역민의 관점에서 참다운 신문고의 역할을 다하는 으뜸 자치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예산신문』의 스물여섯 번째 창간 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미래를 향한 백년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도일보 창간 64주년 〈2015.9.1.〉

역동 현대사를 지켜온 64년, 충청권 으뜸신문

『중도일보』창간 64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입니다. 충청의 심장박동 소리인 중도일보는 예순네 번째 돌을 맞이하는 중도일보는 충청의 심장박동 소리를 자처하며 올바른 지역밀착형 여론 형성을 통해 알권리의 마중물이 되는 한편,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최고의 언론으로 기틀을 다져 왔습니다.

진실한 보도와 공정한 여론 수렴을 위하여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전 미디어 성장기반을 확보하신 『중도일보』 김원식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십사 년이면 강산이 여섯 번 넘게 바뀌는 세월입니다. 긴 시간동안 중도일보는 현장을 누비며 미래지향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유하는 나침반으로 지역 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살아 숨 쉬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 언론의 맥락을 이어왔습니다.

더욱이 중도일보는 지식과 정보 등 세상사는 이야기에 대한 갈증만을 해소시키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국단위의 스포츠행사, 민속대제전, 전시회, 분야별 봉사상 개최 등은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애향의 정체성을 공유하는데 매진해온 중도일보가 자랑스럽습니다.

중앙 언론의 위력, 방송미디어의 발달, SNS의 활성화 등으로 대변되는 언론매체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역 방송과 신문이 존속하는 이유는 현장의 관심과 이슈를 생생하게 보도하며,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위한 언론의 사명에 매진하여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중도일보』와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도일보』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언론매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현안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함은 물론, 시대 변화를 선도하며 지역민의 관점에서 참다운 신문고의 역할을 다하는 으뜸 자치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중도일보』의 예순네 번째 창간 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미래를 향한 백년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매거진 창간 5주년 〈2015.9.1.〉

생생하고 빠른 소식 전하는 국가대표 매거진

『시민매거진』창간 5주년을 210만 충남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하합니다.

시민일보는 창간 21년 동안 지역민주주의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자 정론직필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였으며, 지역의 정치 · 경제 · 사회 등 고급정보를 독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지역 신문으로 첫발을 내딛은 성년의 세월 동안,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가정구현을 통해 대한민국을 일류 선진국가로 올려놓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시민매거진』 임정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기조에 뒤쳐지면 그 문화는 결국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망설였던 사건 사고를 풀어가며 생생하고 빠른 소식을 심층 보도하고 있는 『시민매거진』은 '국가대표 매거진'이며 사력을 다하고 있는 언론인은 '시대적 영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하여 왔듯이 지자체 구석구석 누비며 미래지향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유하는 파수꾼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는 신뢰 언론의 맥락을 이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듭, 『시민매거진』의 다섯 번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풍 지령 300호 발간 〈2015.10.30.〉

밝고 행복한 충남을 열어온 으뜸 청풍

월간시사저널 『청풍 지령 300호』가 발간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반세기 동안 청풍은 2013년에 이어 『2015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기사 우수 잡지』에 선정되었을 만큼 도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중부권 최고의 월간 시사저널로 닻을 올려 왔습니다.

사반세기 동안 언론의 길을 올곧게 걸으며, 취재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우수한 인적 자원 발굴과 성숙한 혁신 매체로써 다각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신 월간시사저널 『청풍』 한평용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양지로 이끌어내는 기사 발굴과 함께 우리 지역의 그늘진 곳을 밝히고자 5억 원의 장학기금을 후원하였고, 국내외 각종 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기상을 높여온 참 봉사언론 『청풍』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청풍』과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거듭, 『청풍』의 삼백 번째 기념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백년대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포시대 창간 9주년 〈2015.10.31.〉

아홉해, 한결같은 충남의 나침반

『내포시대』창간 9주년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는 충청남도이고, 충청남도의 심장부는 내포입니다. 아홉 번째 돌을 맞이하는 『내포시대』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최고의 언론으로 기틀을 다져 왔습니다.

여론의 빠른 눈과 귀가 되기 위해 서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On-Line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내포시대』 박해철 발행인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산이 바뀌는 오랜 세월동안 현장을 누벼온 『내포시대』는 좀 더 정확한 지역 여론의 나침반이 되기 위해 모바일 실시간 동영상과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내포저널』을 창간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모금행사와 태풍피해 위로 콘서트 등을 개최하며 도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의 고취에 매진해온 『내포시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참뜻을 헤아리는 것을 시작으로 낮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공감 · 실천 · 창조 의정 구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내포시대』와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거듭, 『내포시대』의 아홉 번째 창간 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언론 신문고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충청일보 창간 70주년 〈2016.1.26.〉

지방언론 역사의 산 증인

지혜로운 붉은 원숭이의 해인 2016년도에 「충청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일보는 1946년 창간한 이래,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언론 역사의 살아 있는 증인으로서 그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먼저 이규택 충청일보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큰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이 70이면 종심(從心)이라고 합니다. 공자(孔子)가 칠십이 되니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광복 직후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가장 큰 격변기를 정면으로 맞서가면서 지방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왔고 이제는 그 연륜이 종심(從心)에 이르렀다는 점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중앙언론의 위력이 지속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SNS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세상에 낼 수 있는 지방언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권의 가장 역사 깊은 언론사로서 사명을 다하며, 지역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살아 숨 쉬는 얘기들을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 또한 도민의 참 뜻을 헤아려 공감하고 실천하며 창조하는 의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충청일보」와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청일보」발간 7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투데이 창간 〈2016.3.14.〉

지역민의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시기에, 지역 언론의 새로운 힘이 되어줄 충남투데이가 창간하게 된 것을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직원을 비롯한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중앙언론의 위력이 지속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SNS가 활성화되어있는 정보과잉의 시대에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소리를 균형있게 전달하는 공정하고 다양한 언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민의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가 모아져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여론이 되고, 이것이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져 나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충남투데이는 지역사회의 정확한 소식과 그 애환을 담아냄은 물론, 입체적인 분석과 전망을 통해 바른 여론형성을 이끌어야 하는 사명 또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참 뜻을 헤아려 공감하고 실천하며 창조하는 의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충남투데이와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충남투데이 창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일보 창간 15주년 〈2016.3.15.〉

지역 곳곳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언론

파릇파릇한 새싹과 향긋한 봄나물이 모두를 미소 짓게 하는 새 봄에, 서울일보가 창간 1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소식을 충실하게 전해주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직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백만의 총검보다도, 석 장의 신문지를 더 두려워한다.'고 프랑스의 명장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정보의 홍수와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언론의 역할은 과거 나폴레옹 시절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때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모아져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여론을 모아주며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져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입니다.

오늘의 창간 15주년을 맞는 서울일보도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를 내걸고 출발하여, 현재는 전국종합일간지로 발돋움하며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에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참 뜻을 헤아리면서 적극적인 의정을 펼쳐 나가는 데에 서울일보와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일보」의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장애인신문 장애인의 날 특집호 〈2016.4.25.〉

도민에게 큰 힘이 되어준 진정한 승리자

충남 장애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봄기운이 가득한 시기에,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21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 기념 특집호 발행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남장애인신문」은 우리 도의 유일한 장애인전문지로서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회인식개선 사업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탁정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장애인 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매년 4월 20일,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에 '장애인의 날'이 있게 된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을 통해 생명의 신비함과 강인함을 느끼듯이, 여러분들께서 좌절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사지가 없는 불편한 몸으로 세계를 돌며 희망전도사로 활동 중인 호주의 '닉 부이치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의 외모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줬는지를 기억할 거에요." 도내 12만 5천 장애인 여러분의 활기찬 에너지와 용기들은 도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항상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장애인 가족 여러분 모두는 해 낼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선진국 등에 비해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도 장애인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노력들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4년까지 제정하였으며,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충남도의 핵심가치로 삼아 장애인 복지정책의 증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정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장애인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정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도의회와 도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에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며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신문 창간 11주년 〈2016.4.22.〉

충청권이 국가발전의 중심축 역할하도록

충청인의 희망찬 새아침을 여는 충청신문이 창간 1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충청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면을 채워 주시는 이경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백만의 총검보다도, 석 장의 신문지를 더 두려워한다.'고 프랑스의 명장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정보의 홍수와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언론의 역할은 과거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때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여론을 통해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져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오늘 창간 11주년을 맞는 충청신문도 충청권이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충청지역 곳곳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현재 충남은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어가면서, 서해안비전을 선포하고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충청신문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충남이 서해안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충청신문의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투데이 창간 10주년 〈2016.5.17.〉

충청지역 곳곳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충청권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대전투데이가 창간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면을 채워 주시는 김성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백만의 총검보다도, 석 장의 신문지를 더 두려워한다.'고 프랑스의 명장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정보의 홍수와 가치관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언론의 역할은 과거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때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생한 목소리들이 여론을 통해 구체적 사회의제로 이어져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오늘 창간 10주년을 맞는 「대전투데이」도 젊은 생각, 바른 신문이라는 목표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노력해오며 충청권이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충청지역 곳곳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현재 충남은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어가면서, 서해안비전을 선포하고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이 서해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전투데이」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사의 앞날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2014. 7. 1 ~ 2016. 6. 30)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언론보도 기고문

대전MBC 주간소식지 기고문

〈2015.7.5.〉

지방자치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동안 대전MBC는 살아 숨쉬는 다양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변화무쌍한 대중문화를 선도해온 으뜸 청춘 방송입니다. 충청지역 대표 채널 대전문화방송은 1964년 개국 이래 시청자와 청취자의 관심과 애정을 한 몸에 받으며 차별화된 참 지역방송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개척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이진숙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낳고 자라 유년 시절과 학창 생활을 모두 고향에서 보낸 터라 농촌의 여느 아이들처럼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규모 행사와 공연이 수도권에 편중된 세태 속에서 대전 MBC는 드넓은 세상과 소외지역을 이어주는 어깨동무이자 그루터기였습니다. 혼잡한 도심부터 추수철 들녘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전 MBC라디오와 드라마로 일상의 고단함을 달랬으며, 라디오와 TV를 듣고 보면서 교양에 대한 목마름을 삭이고자 했습니다.

애향 방송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대전 MBC는 충청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숨겨진 우리 고장의 멋과 맛에 대한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와 기행탐사 등 미지의 세계를 다각적으로 개척하여 왔습니다.

도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육아 및 태교, 다문화가정 사생대회, 세계문화기행, 김장나눔 등 출산·다문화·여행 이벤트에서 맘 따뜻한 나눔 행사까지 전방위 사회분야에 걸쳐 참신한 소재를 개발하며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언론매체로서의 공헌들은 2014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지역시사보도 TV부분), 2014 제43회 휴스턴 국제필름페스티벌 대상(탐사보도), 2010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상(지역방송부문) 등에 고스란히 담기며, 충남과 대전, 세종 방송권역을 아우르는 중부권의 대표 방송사로 우뚝 서는 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충남 도의회는 민선6기 개원 1년 동안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라는 구호 아래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40명의 의원들은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메르스와 가뭄 등 긴급한 피해 현장을 찾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 현안의 돌파구를 찾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자 의정토론회, 의원 연구모임,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화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의회는 공감 · 창조 · 실천 의정이라는 3대 비전 아래 210만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뛸 것이며, 내포신도시의 『고품격 명품도시 기틀다지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화하되 변함없는 대전 MBC가 취재 · 기획 · 방송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현안을 심층 분석함은 물론, 시대 변화를 선도하며 문화 컨텐츠와 융합하는 혁신 방송으로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이 주인 되는 충남" 를 위해 대전문화방송과 함께 발맞춰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품격 높은 충청권 주간 소식지 ≪대전 MBC M-STORY≫가 충청인의 백년을 함께 할 영원한 벗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MBC 주간소식지 기고문

〈2016.2.2.〉

동북아시아의 중심을 꿈꾸는 내포신도시

어린 시절 발가벗은 채 냇가에서 물장구치던 기억이 떠오를 무렵, 그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그 친구는 타 지역에서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답했다. 한동안 이야기 꽃을 피우던 중, 친구가 "다음 주에 대전 갈 일이 있는데, 못다 한 담소나 나눠볼까?"고 했다.

그렇다. 이 친구는 아직 충남도청과 도의회가 대전 선화동에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지막한 그 친구의 목소리는 내 귀에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만큼 내포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했다는 자책도 뒤따랐다.

충남의 행정기관이 홍성과 예산의 중심, 내포에 둥지를 튼 지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이들이 내포에 대한 의미를 생소해 하고 있다. 한 지역 광고를 보더라도 '대전 도청 앞'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 아직도 도청이 대전에 있다는 인식이 깨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국내외 많은 사람이 충남을 찾고, 내포를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찰나에 반세기의 동반자 대전 MBC가 내포를 알리는데 지면을 할애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컴퓨터 대신 원고지를 꺼내 들었다. 쉽게 쓰기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탓이다.

내포는 예로부터 서해 바다에 인접한 충남 중서부 지역을 통칭하여 불려온 지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충남 아산에서 태안까지의 평야지대를 일컬으며, 삽교천과 무한천의 두 물줄기가 흐르는 지역을 아우르는 총칭으로 사용된다. 역사적으로 불교와 천주교 전파의 통로였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한용운, 윤봉길, 김좌진 등 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한 지역으로 왕권 중심의 공주·부여지역과 대비되는 서민 중심의 독특한 문화·생활권을 형성해 왔다.

그리고 신도시 주변엔 가야산을 중심으로 수덕사와 개심사 등 고찰과 마애불을 비롯한 불교 유산이 산재해 있고 덕산은 온천 휴양관광지로 유명하며,

조금만 차로 달리면 남당항, 천수만, AB지구 간척지,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멋진 서해안의 풍광을 감상하며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이러한 충남의 소중한 자산인 내포가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동북아시아 중심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신도시로서의 걸음마는 4년여 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4살 유치원 아이의 모습이기는 하다. 현재 여러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이 계속 들어서고 있지만, 종합병원 및 대형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듯하다. 하지만, 서해선 복선전철과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고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중국 등과 가장 가까운 환황해권 발전에 힘을 쏟고 있으며, 서산비행장의 민항 유치를 위해 도민 모두가 노력하는 등 희망적인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내포신도시를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민의 삶의 질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면서 내포신도시의 발전 속도를 낼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4월, 제7회 동북아시아 5개국 지방의회 의장 포럼을 우리도에서 최초로 개최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 뜻깊은 행사는 내포신도시를 적극적으로 대외에 알리고 급증하고 있는 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의 도내 유치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더욱이 백제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발판삼아 외국 관광객 유치에 더욱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MBC와 충남도의회는 대전의 구청사시대 때에도 반세기를 동고동락해왔으며 지금의 내포시대를 여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함께 해 온 동반자이다.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집행부 및 정부에 뜻을 전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도민의 대변자이고, MBC도 도민의 목소리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리는 도민의 대변자이다.

지금껏 함께 걸어왔던 시간과 노력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참으로 많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충남의 중심 내포신도시를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함께 키워내는 일이 될 것이다. 대전 MBC와 충남도의회가 힘을 모아 노력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내포의 위상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김기영 의장 연설문집

발행일 : 2016년 7월

발행처 : 충청남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비서실(☎ 041-635-5062)

인 쇄 : 동방상사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충청남도의회에 있습니다. 〈비매품〉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http://council.chungnam.go.kr